

열린 마음

캐나다연합교회 퀴어긍정 사역을 위한 자료집



퀴어긍정 사역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들과 협력하여
앨리슨 C. 힌틀리 지음

2020년 4월 개정



캐나다연합교회 무지개연대(Korean Rainbow United) 번역팀

김선영, 김수혜, 김윤정, 박은주, 신윤주 옮김

오현선 감수

2023년 6월 옮김

Open Hearts: Resources for Affirming Ministries in The United Church of Canada
and Wider Society

Alyson C. Huntly

Copyright © 2011 Affirm United/S'affirmer Ensemble Revised 2017; 2020

Affirm United/S'affirmer Ensemble

P.O. Box 57057,

Ottawa, ON K1R 1A1

www.affirmunited.ca

With open hearts, open minds
there is welcome in this place
there is welcome in this space
there is welcome with embrace
with open hearts.

Mary–Ellen Kish © 2008. Used with permission.

This resource was developed collaboratively by The United Church of Canada and Affirm United/S'affirmer Ensemble in response to a need for resources and educational materials to support Affirming Ministries within this denomination and among its partners.

The United Church of Canada seeks to fully honour and celebrate the gifts and diversity of all its members and leaders, including those of different sexual orientations and gender identities, and encourages its member communities of faith and ministries to make a public statement of welcome, inclusion, and justice-seeking

by becoming Affirming Ministries. Affirm United/S' affirmer Ensemble i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within the United Church. Affirm United created and sponsors the Affirming Ministry Program. Members of Affirm United's national council provided guidance and feedback in the development of this resource, and many Affirming Ministries shared their insights and experience of being Affirming.

캐나다연합교회 무지개 연대 / Korean Rainbow United

Email KoreanRainbowUnited@gmail.com

Website <https://koreanrainbowunited.org/>

* 본 문서는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앨라이활동지원사업의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목차

서문 _ 오현선

개요

자료집의 목적

자료집의 구성

용어에 관하여

1부 퀴어긍정 사역

어퍼 유나이티드와 퀴어긍정 사역 프로그램

퀴어긍정 사역의 표식

우리는 이미 모두를 환영하는데 왜 굳이 퀴어긍정 사역지가 되어야 하는가?

퀴어긍정 사역지가 되는 법

퀴어긍정 사역 비전선언문 예시

퀴어긍정 사역을 시작한 다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퀴어긍정 사역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반대와 두려움,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들

캐나다연합교회와 성별 다양성 및 성적 지향 이슈

2부 퀴어긍정 사역을 위한 교육, 분별, 실행 계획

여는 순서와 닫는 순서

퀴어긍정 사역: 기본 사항

스토리텔링 서클

성서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슈

활동 자료: 성서 구절과 일상생활

유인물: 소그룹을 위한 지침

우리 사역지가 퀴어긍정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유인물: 소그룹을 위한 사례 연구

퀴어긍정 사역을 위한 비전과 희망, 가능성 분별하기

퀴어긍정 사역 비전선언문 작성하기

실행 계획 개발을 위한 5단계

청소년을 위한 탐구

어린이를 위한 탐구

배움과 성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3부 퀴어긍정 사역을 위한 자료

자료 구하는 방법

일반 문서 자료

캐나다연합교회 자료

성별 및 성적으로 다양한 청소년

어린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영화

성소수자, 성별 정체성 이슈를 다룬 다큐멘터리

투스피릿 관련 주제

트랜스 관련 주제

관련 기관 링크

선주민과 인디언기숙학교에 관한 캐나다연합교회 자료

인종주의와 문화적 정체성에 관한 캐나다연합교회 자료

열린 마음^{Open Hearts}의 국역본을
故 초록나무 임보라 목사님께 바칩니다.

서문

“침묵은 폭력이며, 행동은 성스러운 신앙고백이다”

오현선(한국예수교회연대 공동대표)

내가 만난 캐나다연합교회 사람들

나는 2022년 독일 카를스루에 WCC 총회에 RPF(Rainbow Pilgrims of Faith) 회원 자격으로 참여하였고, 당시 RPF가 마련한 세미나(Encounter Program)에서 캐나다연합교회 사무총장 마이클 블레어(Michael Blair) 목사를 만났다. 연합교회 최초로 흑인이자 게이로서 사무총장이 되었다고 자신을 소개할 때, 인종과 성별 정체성의 다름을 수용함으로 더 많은 변화를 시도하는 캐나다연합교회의 개방성이 내심 부러웠다. 북미라는 환경에서 게이로 존재하는 것보다 흑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더 많은 도전을 받는다는 블레어 목사의 솔직한 표현을 통해서는 평등한 인권을 향한 시민사회의 인식 확장과 태도 변화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님을 새삼 절감하였다. 그를 통해 한 개인에게 나타나는 복합적 정체성이 서로 다른 존재들의 그것들과 맞닿아 교차할 때 서로를 긍정하는 선한 의지를 확장해온 연합교회의 역사와 지혜가 담긴 ‘사람도서관’을 만난 듯 감동했다.

또 한 사람은 박은주 목사이다. 2022년 가을 안식년을 맞아 한국을 방문한 박은주 목사는 캐나다연합교회의 역사와 퀴어긍정 사역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한국에서 태어나 신학교를 졸업하고, 당시 여성에게 안수를 허락하지 않았던 장로 교단을 떠나 캐나다로 이주하여 캐나다연합교회 목사가 되었다. 박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교회는 퀴어 그리스도인에 대한 수용과 환대를 넘어 교회 전체가 구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실질적 퀴어긍정 사역(Affirming Ministry)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주기도 했다. 또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 가운데 투스피릿(Two Spirit)¹을 더하여 LBGTQIA2S+라고 표현한다는 사실도 배웠다. 선주민의

¹ 1990년 캐나다 위니펙에서 열린 북미 선주민 게이 및 레즈비언 콘퍼런스에서 유래되었으며, 많은 선주민 집단에서 전통적으로 발견되는 여러 혼합 또는 교차 성별 역할 중 하나를 수행하는 선주민을 가리킨다. (본문 중)

목소리를 경청하며 차이를 드러내고 그 차이에 대해 상호 존중하며 공존의 길로 가려는 연합교회의 역사를 바로 앞에서 본 것 같아 기뻐다. 박 목사는 연합교회에 대해 질문이 많아진 나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열린 마음(Open Hearts)>의 영문 파일을 보내주었다. 이 파일을 받을 때만 해도 내가 이 책의 한글 번역본을 감수하고 서문을 쓰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연합교회 내 KRU(Korean Rainbow United) 회원들이다. 인터넷 관계망을 통해 KRU가 주관하는 ‘K-Queer Talk 2023’ 상반기 온라인 대화 모임을 접하게 되었다. 주제들이 좋아 첫 시간부터 참여하였다. 매월 한 번씩 6개월을 꾸민 주제들은 ‘퀴어도 성스러울 수 있을까?’, ‘만화와 퀴어에 대한 이야기’, ‘레즈비언 부부, 한국과 한국 교회 탈출기’, ‘우리의 세상은 변하고 있다’, ‘인간의 성별과 성차에 대한 이해: 성의 다양성을 이해한다는 것의 의미’, ‘성서와 퀴어: 성서는 정말 퀴어를 정죄하는가’였다. 목회자, 신학자들이 더 먼저 고민하고, 소통과 이해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모습에 감동하였다.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대화 모임이 어서 시작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 책 <열린 마음>의 한글 번역을 결정하고 예산을 마련하고 실현한 분들 역시 KRU 회원들이다. 작년부터 이어진 캐나다연합교회의 이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이 책의 번역을 마무리하는 데 기여할 기회를 얻은 것이 하나님의 섭리만 같다.

세계가 깨어나고 있다. 당신이 좋아하든 아니든 변화는 오고 있다. 한국 사회도 교회도 깨어나고 있다. 당신이 혐오하든 정죄하든 변화는 시작되었다.

서문을 쓰고 있는 오늘은 10년째 매달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는 ‘성소수자 부모 모임(Parents and Families of LGBTQIA People in Korea)’에 다녀온 날이다. 나는 만 4년간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나도 이 모임의 분위기와 내용이 매번 더 깊어지고 새로워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모임에는 북미 거주 한인들도 참여하고 있다. 오늘은 결혼을 앞둔 레즈비언 청년 커플의 웨딩 촬영 이야기, 아기를 낳게 되어 세 사람의 가족을 이룬 레즈비언 커플의 이야기, 그리고 “나의 아이는 게이이지만 나는 전혀 불편한 것이 없으며 내 아이가 자랑스럽다”라고 하신 한 아버지의 미소 담은 증언이 함께 둘러앉은 모두를 감동케 했다. 그 시간을 맞이하기까지 겪었던, 또 앞으로 올 시간에 겪어야 할 많은 험산준령이 있겠으나,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더 깊고 넓게 확장된

부모 모임은 더 많은 퀴어인을 품으며 계속 걸어갈 자신감을 스스로 쌓아가고 있다.

이성애 중심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비이성애 세계관을 가진 각 사람의 이야기는 참여한 수만큼 다양하고 풍부하다.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어서, 이원론적으로 혹은 이성애 중심으로 구조화된 세계를 모두를 위한 평등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당사자와 엘라이(allies, 동맹, 동지, 연대인)의 의도된 노력과 더 많은 연대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퀴어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목소리가 담고 있는 요청을 수용하며 불편함들을 개선해야 한다.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한 문화의 개선, 가부장적·이성애적 언어와 호명 방식의 개선, 다양성 수용이 어려운 비퀴어인의 인식 개선, 행정 개선, 혼인평등법·비혼출산지원법·생활동반자법 등을 비롯한 법 개정, 그 어느 하나 변화가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 지난 5월 26일 갤럽 조사에서 조사 참여자의 40%가 동성 결혼 법제화에 찬성했다고 한다. 40대, 50대의 증가 폭도 커졌다. 3월에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에서 승소한 것도 기쁜 소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고하였지만, 사실혼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게 될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인권위원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2022년 5월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평등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차별 해소는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해결해야 할 사회적인 문제”라는 데에 응답자의 75%가 동의했다. 또 “21대 국회에는 차별금지법안 4개가 발의돼 계류 중인데,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는 67.2%가 동의한다고 대답했다.²

그런데 한국 사회 속 한국 교회의 상황은 이런 변화에 비하면 매우 뒤처져 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퀴어인들에 대한 혐오 표현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런 일부 한국 교회의 행태에 많은 사람이 사회적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나 역시 광화문에 갈 때는 혐오로 가득 찬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귀마개를 들고 나간다. 퀴어 혐오에 저항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혐오하는 그리스도교회의 비상식적 탄압은 피해자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든다. 지도력을 가진 소수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² ‘국민 67% “차별금지법 필요”...인권위 “사회적 합의 이미 충분”’, 《한겨레》 2022년 5월 8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1928.html

하는 교단법을 앞세워 저항의 목소리를 내는 성도들을 처벌하고 있다. 이렇게 교회 안과 밖, 너무 다른 두 세계를 넘나들며 내가 교단의 시대착오적 교리와 교권 집단에서 벗어나 교리에서 자유로운 예배의 목사로, 그러한 강단의 신학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저항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연대 속에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 대도시 서울에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매일 쫓겨나고 있는 영세 상인과 도심 원주민의 곁에서 예배로 함께 투쟁하는 청년 그리스도인들은 그 현장뿐 아니라 장애인 차별 반대, 기후 정의와 생태적 삶으로의 전환 운동, 차별금지법 제정 투쟁 등 그리스도교회가 배제하고 있는 여러 인권 결핍의 현장에 함께한다. 1980년대 반독재 투쟁에 돌을 들고 나섰던 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이 청년들은 십자가를 들고, 촛불을 켜고, 침묵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축제를 하고, 춤을 추며 투쟁한다. 언젠가 한 퀴어 청년이 내게 말했다. “프리다, 우리 한 줌도 아닌 반 줌밖에 안 돼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숫자와 자본을 중시하고, 대형과 초대형이 되고자 갈망하는 소위 보수 교회의 시선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이들은 하고 있다. ‘NCKK 탈퇴 추진 범**교인 연합’을 구성하여 차별금지법 제정 지지, 동성애 옹호, 종교다원주의 지향성이 있는 NCKK(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내 회원 교단의 즉각 탈퇴를 주장하고 나선 주류 개신교회와는 전혀 다른 교회 밖 성도가 출현하고 있다. 건물교회 밖, 투쟁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같이 절망하고 같이 희망하는 성도들이 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세계가 깨어나고 있다. 당신이 좋아하든 아니든 변화는 오고 있다(The World is waking up. And change is coming whether you like it or not).”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즉각 행동을 세계에 촉구한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urg)의 말이다. 나 역시 그레타처럼 표현하고 싶다. “한국 사회도 교회도 깨어나고 있다. 당신이 퀴어인을 혐오하든 정죄하든 변화는 시작되었다.”

‘열린 마음(Open Hearts)’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이어가자!

이 책 <열린 마음>은 원래 캐나다연합교회와 어펌 유나이티드(Affirm United/S'affirmer Ensemble)가 연합교회와 관련 단체, 사역지를 위해 만든 책이었다. 그런데 이제 한글로

번역되어 누구라도 퀴어긍정 사역을 하고자 할 때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목회지침서이자 안내서로 사용될 것을 기대하니 기쁨을 감출 수 없다.

어펌(Affirm)은 1982년 캐나다연합교회 내 게이와 레즈비언의 단체로 시작되었다. 곧이어 어펌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어펌의 친구들(Friends of Affirm)’이 결성되었다. 1994년 이 두 단체가 결합하여 어펌 유나이티드가 되었다. ... 어펌 유나이티드는 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단체로서 예배하고 사역하며 예언자적 과업을 감당한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모두가 조건 없이 하나님에게 사랑받는다고 선포한다. 이 단체는 교회와 사회에서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가진 이들의 완전한 참여와 정의를 위해 노력한다. (본문 중)

독자들은 이 책을 읽어 나가며 캐나다연합교회와 어펌 유나이티드가 퀴어긍정 사역을 원하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을 지원하고 지지하기 위해 얼마나 철저하고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이 책을 썼는지 알게 될 것이다. 목회지와 다양한 사역지에서 성소수자를 긍정하는 사역을 하려 할 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명료한 언어, 신학적·성서적 근거, 다양한 생각의 상호 교류 방식, 실천 가능한 교육 방법과 자원을 가득 담았기 때문이다. 이 책에 담긴 실천적 지혜는 누군가를 향해서 쉽게 열 수 없었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며,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마음은 서로 다른 존재를 향해 활짝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사역지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한번 열린 마음은 결코 닫힐 수 없으며, 한 곳을 향해 열린 마음은 모든 방향을 향해 열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에 응답하는 신앙으로 모두 연결된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연결된 존재들은 폭력적 침묵을 깨고, 거룩한 자신들의 신앙고백을 행동으로 이어가게 될 것이다. 퀴어긍정 사역을 하려는 사역지와 성도들의 퀴어긍정 신앙고백문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오길 바란다. 감수의 기회를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

2023년 6월 11일 일산에서

개요

이 문서는 퀴어긍정 사역(Affirming Ministries)에 대한 자료집이다. 퀴어긍정 사역은 캐나다연합교회에 소속되거나 동반자 관계인 신앙공동체, 지역협의회, 교육 기관, 캠프 사역, 교목 사역 및 기타 사역이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을 포용하며 그들을 위한 정의에 헌신한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사역이다. 퀴어긍정 사역은 섹슈얼리티(sexuality)와 젠더 문제에 대해서 뚜렷하게 입장을 밝힌다. 하지만 정의를 위해 헌신하는 퀴어긍정 사역은 훨씬 더 범위가 넓다. 퀴어긍정 사역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보여주시는 환대와 사랑, 정의의 방식대로 더 온전히 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세계의 선함과 다양성을 기뻐하시듯, 퀴어긍정 사역 또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예찬한다.

갓가지 불의가 편견과 권력의 문화 속에서 서로 얽혀 있고 서로를 강화하기도 하므로 어떤 정의의 문제가 다른 정의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길 수 없다. 변화를 위한 사역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난다. 퀴어긍정 사역은 외모, 비장애, 문화, 계층 또는 나이에 근거한 편견과 차별에 도전하며 창조세계의 치유와 온전함을 향해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한다. 가령 인종주의를 근절하고, 경제 정의를 증진하고, 접근성을 높이며 지구 환경을 돌본다. 퀴어긍정 사역은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이라는 이슈를 넘어서 모두를 위한 정의와 포용을 위해 나아가고자 한다.

퀴어긍정 사역은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과 섹슈얼리티 스펙트럼에서 자신의 자리를 탐색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며 정의를 구현하고자 한다.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선언한다. 그리고 다른 교회와 사회도 그렇게 하기를 촉구한다.

캐나다연합교회의 퀴어긍정 사역 네트워크는 1992년 캐나다연합교회와 사회 안에서

모든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지닌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인 어펌 유나이티드(Affirm United/S'affirmer Ensemble)에 의해 시작되었다. 캐나다연합교회는 퀴어긍정 사역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소속 사역지의 참여를 장려한다.

퀴어긍정 사역은 분별과 성찰의 과정을 통해 포용적이 되는 것과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발견하도록 돕는다. 또 각자의 사역지를 비롯해 보다 광범위한 교계와 지역사회에서 성 다양성과 성적 지향에 관한 이슈에서 정의를 추구하고, 퀴어긍정 사역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참여하겠다는 지속적인 헌신을 명시하는 신앙고백문과 비전선언문을 작성한다.

퀴어긍정 사역 프로그램은 연합교회 지체들(신앙공동체, 지역협의회, 캠프 사역, 교목 사역, 교육센터, 아웃리치 사역 등)이 공개적으로 환영하고 포용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길 독려한다. 이 프로그램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이슈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역사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된 다른 집단(예컨대 나이, 인종, 성, 접근성과 사회경제적 차이 등으로 배제된 집단)을 포용하고 정의를 도모하는 연합교회의 여러 다른 자료도 학습하도록 권장한다.

자료집의 목적

이 자료집은 연합교회 사역자와 선교 동역자들이 성장하고 변화하여 단순히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것'을 넘어서 진심으로 마음을 열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앙공동체로서 우리가 마음을 연다는 것은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침묵, 억압, 수치심의 벽장문을 여는 것이며, 정의와 온전함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에 마음과 생각을 여는 것이다. 또한 무지갯빛과 같은 인간의 다양성을 찬미하고, 사랑과 공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다.

이 자료집은 다음과 같은 신앙공동체, 교육 기관, 지역협의회, 캠프 사역, 교목 사역 및

연합교회의 다른 여러 사역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워크숍, 교육 정보를 제공한다.

- 퀴어긍정 사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알고 싶다.
- 퀴어긍정 사역지가 되는 과정에 착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 퀴어긍정 사역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이 사역을 어떻게 말과 행동으로 실천할지 분별하는 과정에 있다.
- 퀴어긍정 사역을 하고 있지만 포용과 정의를 실현하는 이 사역을 배우고 성장하며 다시금 이 사역에 헌신하고자 한다.

이 자료집에서 제안하는 학습과 프로그램은 참가자가 성적 지향과 성별 다양성 이슈에 관해 이미 기본적인 이해 수준을 갖추었다고 가정한다.

자료집의 구성

이 자료집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1부: 퀴어긍정 사역지 되기

1부에서는 퀴어긍정 사역이 무엇인지, 퀴어긍정 사역이 되는 과정과 절차는 무엇인지, 퀴어긍정 사역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실천 방안과 퀴어긍정의 표식 등 개괄적 정보를 다룬다. 또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연합교회의 입장에 대한 배경 정보도 제공한다. 1부의 내용은 일반 유인물로 사용하거나 2부의 워크숍 자료로 쓸 수 있다.

2부: 연구와 성찰

2부에서는 실천 방안과 학습 활동을 제공한다. 퀴어긍정 사역지가 되기 위한 연구와 성찰의 과정, 그리고 사역과 더불어 사람들이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데 유용한 학습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2부에는 다음과 같은 워크숍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 **퀴어긍정 사역:** 기본 사항에서는 참가자들이 퀴어긍정 사역이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는지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스토리텔링 서클**에서는 참가자들이 배제와 포용에 대한 이야기,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 이슈가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이야기, 개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듣는 기회를 제공하여 소외된 모든 이들에 대한 공감과 연민, 이해를 고양한다.
- **성서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슈**에서는 성서가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해 무엇을 시사하는지, 그리고 성서가 젠더소수자와 성소수자를 억압하는 데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설명한다.
- **우리 사역지가 퀴어긍정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서는 환영과 퀴어긍정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퀴어긍정 사역지가 되면 사람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우려되고 염려되는 점은 무엇인지, 퀴어긍정 사역지가 되기 위한 가능성과 희망은 무엇인지 검토한다.
- **퀴어긍정 사역을 위한 비전과 희망, 가능성** 분별하기는 성서 본문과 예술을 활용하여 퀴어긍정 사역을 수행하기 위한 비전과 희망, 가능성을 복돋아준다.
- **퀴어긍정 사역 비전선언문 작성하기**는 퀴어긍정 사역의 비전선언문을 작성하거나 갱신하는 데 도움을 준다.
- **실행 계획 개발을 위한 5단계**는 교회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젠더소수자와 성소수자에 대한 불의와 배제 문제에 대응하여 퀴어긍정 사역이 행동에 나서도록 돕는다.
- **청소년을 위한 탐구**에서는 13~18세 청소년들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문제, 포용에 대한 성서적 비전, 퀴어긍정 사역의 의미를 탐구한다.
- **어린이를 위한 탐구**에서는 1~6학년 어린이들이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가족이 있으며 하나님은 그 모든 종류의 가족을 사랑하신다는 점, 교회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곳이라는 점, 퀴어긍정 사역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환대와 포용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점을 배운다.

3부: 자료

3부에서는 퀴어긍정 사역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보충 자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주석이 달린 도서 목록, 추천 영화, 단체 연락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연합교회 자료, 반-인종주의 활동과 선주민 및 인디언기숙학교에 관한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러한 영역에서 정의와 포용을 위한 사역을 확장하려는 사역자에게 도움이 된다. 여기에서 언급한 자료 외에도 배제되고 소외된 다른 사람들(예컨대 나이, 인종, 성, 접근성, 사회·경제적 차이 등으로 배제당하는 이들)을 다루는 유용한 자료가 많으니 이러한 자료들도 찾아보길 권한다.

어firm 유나이티드 웹사이트(<https://affirmunited.ause.ca/>)의 자료실은 또 다른 정보 출처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다.

용어에 관하여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또한 언어는 하나님의 창조세계와의 관계에도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 ‘열린 마음(Open Hearts)’이라는 이 자료집의 목적은 제목 그대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여는 것이다. 모든 젠더와 섹슈얼리티가 하나님의 선물이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믿는 연합교회의 이 자료집이 각 사역지에서 진행되는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관한 논의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 자료는 처음 작성된 이후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졌지만, 완벽하고 완전한 최신 버전이란 있을 수 없다. 이 자료집이 작성되고 난 뒤에 어떤 용어가 다른 용어보다 더 널리 사용될 수도 있다. 일부는 뉘앙스가 바뀌거나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될 수도 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이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불편해하는 단어를 선택하기도 한다. 언어의 차이는 세대나 상황 또는 개인 취향의 문제일 수 있다. 만일 어떤 단어를 써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과 그들의 경험을 설명할 때

어떤 단어를 선호하는지 물어보라.

어떤 유나이티드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존재를 특정하는 꼬리표로서의 쓰임을 넘어 섹슈얼리티의 연속선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자료집에서는 LGBTQIA2S+(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stioning or Queer, Intersex, Asexual, and Two-Spirit people)라는 축약어를 사용한다. 이는 이전에 사용하던 LGBT보다 더 포괄적인 용어이지만, 이 역시 완벽하지는 않다. 그러나 많은 성소수자 관련 단체에서 이 용어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간결성을 위해 우리는 성적 지향이 이성애가 아니거나 성별 정체성이 남/여 이분법의 범주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이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아래의 용어 목록은 결코 완전한 목록이 아님을 일러둔다.

무성애자(asexual)는 성적 매력이나 욕구를 느끼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어떤 이들은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 누군가에게 끌리기도 하지만, 모든 무성애자가 그런 것은 아니다.

양성애자(bisexual)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거나 연애 감정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모든 양성애자가 남성과 여성에게 똑같이 끌리는 것은 아니며, 주로 한쪽 성별에 끌리더라도 자신을 양성애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양성애는 성적 지향에 대한 설명이지 그 사람이 한쪽 성별 또는 양쪽 성별과 성행위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여전히 양성애자라는 용어로 자신을 설명하는 이들도 있지만, 범성애자(pansexual)나 전성애자(omnisexual) 혹은 퀴어와 같은 용어를 더 편하게 사용하는 이들도 있다.

시스젠더(cisgender)는 성별 정체성이 타고난 성별과 일치하는 사람을 말한다.

게이(gay)는 보통 다른 남성과 관계를 맺는 남성을 가리킨다. 게이는 남성과 여성을 통칭하는 용어로도 쓰이는데, 여성과 연애하는 여성들이 스스로를 레즈비언이라는 용어 대신 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젠더(gender)는 사회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거나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여성, 남성, 소녀, 소년, 중성 등).

젠더플루이드(genderfluid)는 성별 정체성과 표현이 유동적이어서 개인의 상황이나 욕구에 따라 변화하는 사람을 말한다.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은 실제 생물학적 성별과 구별되는 남성, 여성, 둘 다 또는 그 어느 쪽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개인의 자기개념을 말한다.

성별 비순응자(gender non-conforming)는 성별 표현이 일반적인 성별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킨다.

동성애자(homosexual)는 공식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많은 사람이 자신을 설명할 때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게이(남성을 사랑하는 남성)나 레즈비언(여성을 사랑하는 여성) 같은 용어를 선호한다.

인터섹스(intersex)는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신체적 특징이 이례적으로 병존하는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어 XY 염색체를 가진 사람이 신체적으로는 여성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 XX 염색체를 가진 사람이 남성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 생식기가 모호하거나 성 발달이 다른 경우도 있다. 인터섹스는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을 모두 가질 수 있다. 인터섹슈얼리티(intersexuality)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 명확하게 분류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해 20세기에 도입된 의학 용어이다.

논바이너리(non-binary)는 자신을 남성 또는 여성으로 정체화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포괄적 용어이다. 논바이너리 성별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자신의 성별이 남성과 여성의 혼합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남성 또는 여성의 범주를 넘어선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 또 자신이 어떤 성별에도 전혀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다. 논바이너리는 두 가지 이상의 성별을 인정하는 문화에서 특정한 성별 범주를 의미할 수도 있다.

범성애자(pansexual)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관계없이 성적 또는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끌리는 사람을 말한다. 범성애자는 스스로를 젠더블라인드(gender-blind)라고 여길 수도 있는데, 이는 성별과 섹슈얼리티가 타인에 대한 매력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라는 뜻이다. 범성애는 양성애의 하위 범주로 간주되기도 하고, 그 자체로 하나의 성별 정체성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며, 성별 이분법을 거부한다.

퀴어(queer)는 경멸적인 용어로 사용되곤 했지만, 학계에서는 전통적인 성별·성적 고정관념과 성 역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하기도 한다(예: 대학의 ‘퀴어 연구’ 프로그램 또는 ‘퀴어 신학’). 젊은 성소수자는 흔히들 스스로를 퀴어라고 부른다. 퀴어는 성소수자 사이에서 애정 어린 호칭일 수도 있지만, 성소수자를 공격할 때는 여전히 경멸적인 용어일 수 있다.

미정자(questioning)는 커밍아웃(coming out) 과정에 있거나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을 탐색 중인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다.

성(sex)은 누군가의 성별과 관련하여 형용사로 쓰일 때 대개 여성, 남성, 인터섹스처럼 신체적이고 생물학적인 성별을 가리킨다.

섹슈얼리티(sexuality)나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무성애와 같이 개인의 성적 욕망이나 정서적 끌림을 가리킨다.

트랜스(trans)와 **트랜스젠더(transgender)**는 타고난 성이 자신의 성별 정체성이나 성별 표현과 다른 사람을 말한다. 일부 크로스드레서(cross-dresser)와 인터섹스는 스스로를 트랜스로 여긴다.

트랜스섹슈얼(transsexual)은 여성에서 남성으로 혹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하는 사람, 또는 생물학적 성이 자신이 느끼거나 살아온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지칭하곤 했다. 하지만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에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 낡은 용어로, 현재는 주로 성 확정 수술이나 호르몬 대체 요법과 관련한 의학 용어로 쓰인다.

투스피릿(two-spirit)은 1990년 캐나다 위니펙(Winnipeg)에서 열린 북미 선주민(First Nations)³ 게이 및 레즈비언 콘퍼런스에서 유래되었으며, 많은 선주민 집단에서 전통적으로 발견되는 여러 혼합 또는 교차 성별 역할 중 하나를 수행하는 선주민을 가리킨다. 오지브웨(Ojibwe) 용어인 니이즈 마니도와그(Niizh manidoowag)를 직역한 ‘투스피릿’은 일반적으로 몸에 남성적 영과 여성적 영이 동시에 존재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그러나 많은 선주민은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불편해한다. 이 용어는 게이, 레즈비언 또는 LGBTQIA+ 안의 다른 용어와 서로 바꿔 쓸 수 없으며, 선주민이 아닌 사람이 이 용어를 사용하여 자신을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1부: 퀴어긍정 사역

어펄 유나이티드와 퀴어긍정 사역 프로그램

어펄 유나이티드는 캐나다연합교회 안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그 활동은 교단 외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상관없이 이 사역을 지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어펄 유나이티드는 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단체로서 예배하고 사역하며 예언자적 과업을 감당한다. 모든 이가

³ ‘선주민’은 Indigenous, First Nations, Aboriginal 등의 번역어로, 북미 지역에서 수천 년간 살아온 이들을 가리킨다. ‘북미 원주민(Native American)’이나 차별적 용어인 ‘인디언(Indian)’을 대체하는 용어로 쓰인다. _웁킨이 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모두가 조건 없이 하나님에게 사랑받는다고 선포한다. 이 단체는 교회와 사회에서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가진 이들의 완전한 참여와 정의를 위해 노력한다.

어펌(Affirm)은 1982년 캐나다연합교회 내 게이와 레즈비언의 단체로 시작되었다. 곧이어 어펌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어펌의 친구들(Friends of Affirm)’이 결성되었다. 1994년 이 두 단체가 결합하여 어펌 유나이티드가 되었다.

어펌 유나이티드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교육: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인식을 증진한다.
- 행동: 교회, 사회, 그리고 우리 단체 안에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 지원: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 캐나다연합교회 내에서 지원을 받고 공동체를 찾도록 한다.

어펌 유나이티드는

-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캐나다연합교회뿐 아니라 에큐메니컬 및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연대 단체의 구성원과 신앙공동체, 의사 결정 기관에 교육의 기회와 자료를 제공한다.
- 성소수자(LGBTQIA2S+, 성별 비순응자, 젠더플루이드),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을 지원하고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자료를 공급한다.
- 퀴어긍정 사역지, 전국 실무단, 지역 모임과 더 넓은 사회 공동체를 통해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한다.
- 캐나다연합교회와 연대 단체들이 교회와 사회에서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지닌 이들을 지원하는 사역에 예언자적·목회적으로 임하도록 격려한다.

퀴어긍정 사역 프로그램의 시작

1991년 어펄 유나이티드는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긍정하고 지원하는 연합교회 신앙공동체 네트워크인 퀴어긍정 사역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1995년 2월 26일 위니펙의 어거스틴 연합교회(Augustine United Church)가 캐나다연합교회 최초의 퀴어긍정 사역지가 되었다. 1995년 말에 이르러서는 5개 교회로 늘어났다. 현재 캐나다 전역의 연합교회 가운데 225개가 넘는 곳에서 퀴어긍정 사역을 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퀴어긍정 사역은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정보, 수용, 지원, 정의 실현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받아들이신다는 사실을 말과 행동으로 선포한다. 그리고 다른 교회와 사회도 그렇게 할 것을 촉구한다.

퀴어긍정 사역지가 되고자 준비하는 교회들은 보통 2년쯤 걸리는 분별과 성찰의 과정을 통해 퀴어를 포용하고 정의를 추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발견한다. 교회는 정의를 위한 일에 헌신하겠다고 명시한 퀴어긍정 사역 비전선언문을 준비한다. 거기에는 교회가 헌신하려는 과제들, 특히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둘러싼 문제들을 명명하고, 퀴어긍정 사역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과 참여를 명시한다.

퀴어긍정 사역 프로그램의 목적

- 연합교회의 사역지와 동역자, 더 넓게는 사회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이슈에 대응해나가면서 배우고 성장하도록 돕는다.
-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을 위해 사역하는, 또 그들과 함께 사역하는 연합교회의 사역지와 동역자, 더 넓게는 사회를 지원한다.
-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지닌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온전히 참여하는 사람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길 주저하지 않는 연합교회의 사역지와 동역자를

발굴한다.

- 교회와 사회에서 정의에 관한 관심을 넓힌다. 퀴어긍정 사역 프로그램은 교회가 성소수자뿐 아니라 흑인과 선주민, 유색인 등 여러 사회적 집단에 입힌 상처와 불의를 인정한다. 교회는 그들을 차별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불의를 저질렀다. 또한 계층, 경제적 배경, 나이, 장애, 문화, 성별, 민족,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이유로 사람들을 목살하고 배제했다. 퀴어긍정 사역 프로그램은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초점을 두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정의와 포용의 비전을 실천하고자 한다.

퀴어긍정 사역 프로그램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흑인과 선주민, 유색인에 대한 정의와 치유, 화해, 그리고 인종주의 종식을 위한 노력을 사역에 포함하도록 이해와 인식, 행동의 폭을 넓히길 장려한다. 소수 민족이나 원주민(Aboriginal), 메이티(Métis), 선주민(First Nations) 출신 중에서도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지닌 이들은 이중의 억압을 경험할 수 있다. 이들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으로 인해 자신의 공동체에서 소외될 수 있으며, 백인/유럽 출신이 주류를 이루는 성소수자 네트워크 안에서도 인종주의를 당하거나 고립되고 비가시화될 수 있다.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의를 지지하는 교회들을 비롯해 캐나다 내의 단체들이 구조적이고 내면화된 인종주의와 백인 특권(white privilege), ‘외국인’이나 ‘타자’에 대한 두려움을 다루는 것은 중요하다. 퀴어긍정 사역은 인종주의와 백인 특권(White privilege)을 종식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과 연대하여 성차별, 계층 차별, 장애인 차별(ableism) 등의 문제를 둘러싼 대화와 상호 행동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퀴어긍정 사역 준비 단계

다음은 우리가 늘 받는 “퀴어긍정 사역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요약한 내용이다. 자세한 내용은 <열린 마음(Open Hearts: Resources for Affirming Ministries)>과 어펌 유나이티드 웹사이트(www.ause.ca)의 자료실(Resources) 및 퀴어긍정 사역(Affirming Ministries) 섹션에 있는 자료들을 참조하라.

퀴어긍정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의 웹사이트를 통해 퀴어긍정 사역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기를 바란다.

<http://affirmunited.ause.ca/affirming-ministry-cordinators/>

퀴어긍정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목회 현장이 PIE(Public, Intentional, Explicit) 개념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 분별, 결정의 과정을 거친다.

공개적(Public): 당당하게 선포하라! 교회 건물 안팎과 교회 생활 전반에 퀴어긍정 사역의 상징, 표식, 단어들을 사용하라.

의도적(Intentional): 퀴어긍정 사역은 신앙공동체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교육, 연구 과정을 신중하게 행한다. 퀴어긍정 사역은 교회가 행한 억압과 차별의 역사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지속적인 성장과 교육, 기념이 사역의 일부가 되도록 한다.

명시적(Explicit): 퀴어긍정 사역은 누구를 환영하는지 매우 명확하다. 퀴어긍정 사역은 퀴어, 트랜스, 투스피릿 그리고 그들의 은사를 호명한다.

여러분의 사역지나 공동체에 오는 사람들에게 장벽이 될 만한 다양한 영역, 예컨대 나이, 성별, 인종, 장애, 계층, 경제 상황, 특히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기를 바란다.

사역에는 신앙공동체, 지역협의회, 교육 기관, 아웃리치 사역, 교목 사역, 수련회장, 캠프 사역 등이 포함된다. 우리는 에큐메니컬 단체도 환영한다. 이 과정을 위한 자료들은 어펍 유나이티드 웹사이트(www.ause.ca)와 무료 자료집인 <열린 마음>에서 얻을 수 있다.

교육과 분별 과정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a) 퀴어긍정 사역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사역지와 공동체에서 개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기
- b) 수년간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는 성구들에 대해서 현대 신학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경청하고 토론하기
- c) 그 결정이 사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른 퀴어긍정 사역지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자신의 사역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토론하기
- d) 사회 정의 측면에서 왜 퀴어긍정 사역지가 되는 것이 중요한지 경청하고 토론하기

이 과정은 필요한 만큼 오랜 시간이 걸린다.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여러 퀴어긍정 사역지에서 권하듯 이 과정에는 사역지 안에서 되도록 많은 그룹이 참여해야 한다. 포용을 위한 퀴어긍정 사역을 공개적으로 선언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낀다면, 아래 설명처럼 몇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모든 문서는 사역지 내부의 승인을 받기 전에 반드시 퀴어긍정 사역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에게 보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개 선언 작성하기

다음의 초안들을 퀴어긍정 사역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에게 보내야 한다.

A. 사역과 생활에서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가진 이들을 포용한다는

내용의 비전선언문

비전선언문 작성을 위한 지침은 자료집 <열린 마음>이나 어펍 유나이티드 웹사이트(www.ause.ca)의 퀴어긍정 사역(Affirming Ministries) 섹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러분이 속한 특정 공동체, 교회와 세상에 대한 여러분의 은사와 헌신을

반영하여 고유한 선언문을 작성하는 과정은 여러분의 사역에 도움이 된다.

비전선언문은 계층, 인종, 성, 나이, 장애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포용을 밝힐 수도 있다. 비전선언문에는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 사역과 생활에 온전히 참여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비전선언문은 보통 운영위원회 또는 당회에서 합의한 후 사역지의 모든 구성원이 투표로 결정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먼저 퀴어긍정 사역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에게 보내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퀴어긍정 사역지가 된 후의 지속적인 실행 계획

이 실행 계획은 퀴어긍정 사역지가 되는 과정에서 사역지 내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 앞으로 다른 어떤 영역에서 포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지 성찰하는 위원회의 지속적 작업
- 이 위원회와 사역지 내 다른 그룹 간의 협력을 통한 신규 회원 교육
- 사역지와 더 넓은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적 교육 행사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선교와 사역의 이슈 탐구
- 지역협의회 내 다른 사역들을 위한 워크숍 개발
- 더 넓은 지역사회에 참여

C. 평등 결혼(Equal Marriage) 정책(결혼 예식을 제공하는 퀴어긍정 사역지의 경우)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가진 커플들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결혼 정책

이 세 가지 서약은 필수이다. 더 나아가 포용적인 건물 사용 정책 같은 것을 개발하는 사역지도 있다. 추가적인 노력은 언제나 환영이다!

결정하기

평등 결혼 정책을 제출하고 퀴어긍정 사역 프로그램 코디네이터가 비전선언문과 실행 계획을 승인하고 나면, 투표를 통해 사역지 구성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어펄 유나이티드는 이 투표에서 최소 75%의 찬성을 받을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목표는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포용하도록 하는 것임을 기억하라. 따라서 여러분의 사역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두가 투표하길 권장한다.

전국 퀴어긍정 사역 운동에 헌신하기

모든 퀴어긍정 사역지는 연간 기관 멤버십을 통해 어펄 유나이티드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 회원이 되면 퀴어긍정 사역 프로그램, 옹호 활동, 연례 콘퍼런스, 치리 등 여러 가지를 지원받는다.

다양한 정보와 초대를 받을 주요 연락처를 확인하고, 여러분이 진행 중인 사역에 대해 매년 보고해주길 요청한다. 또한 매년 여름에 열리는 어펄 유나이티드 연례 콘퍼런스와 총회에 회원들을 보내주길 바란다(자세한 정보는 www.ause.ca 참조).

기념하기!

위에 열거한 모든 단계와 필수 요건을 완료했다면 다음 단계는 여러분의 사역지와 지역사회, 나아가 더 광범위한 캐나다연합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한 공개적인 기념 예배를 여는 것이다. 이 예배에서 여러분은 어펄 유나이티드로부터 인증서를 받고 퀴어긍정 사역의 첫발을 내딛게 된다. 이 기념식을 하고 나면 여러분의 사역지는 캐나다 전역에서 나날이 늘어가는 퀴어긍정 사역지 목록에 오르고, 어펄 유나이티드와 캐나다연합교회 웹사이트에 등재된다.

퀴어긍정 사역의 표식

퀴어긍정 사역은 다른 연합교회 사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느 사역지와 마찬가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지원하고, 섬기고, 구하고, 찬양하고, 배우고, 일하고, 놀고, 성장한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점들을 찾아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교회와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제당했던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을 환영하고 포용하며 그들을 위한 정의를 추구한다는 것을 공개적·의도적·명시적으로 드러내는 표식들을 보게 될 것이다.

퀴어긍정 사역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이슈에 대해 행동하는 데 깊이 헌신하지만, 무엇보다 정의를 추구하는 공동체이다. 항상 배우고 성장하며,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에 대한 증거를 넓혀간다. 또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정의와 온전한 포용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포용과 환영, 정의를 위한 노력의 다른 표식들 또한 보게 될 것이다.

환영의 표식

- 현판의 어퍼 유니티드 로고
- 공공장소에 내건 무지개, 트랜스 및 기타 깃발들
- 휠체어 접근성 안내문 옆의 향(scent)접촉성 알레르기나 땅콩 알레르기 주의 표시
-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환영한다는 안내문과 표식
- 퀴어긍정 사역과 다양성에 대한 예찬이 담긴 후보의 문구
- 교회 공문서 양식의 어퍼 유니티드 로고
- 퀴어긍정 사역 인증서가 있는 진열장
- 눈에 잘 띄게 게시된 퀴어긍정 사역 비전선언문
- 어퍼 유니티드 버튼이나 티셔츠, 무지개 리본 또는 무지개 스톨을 착용한 사람들

- 문화, 출신 국가, 장애, 계층, 나이, 민족 등이 눈에 띄게 다양한 공동체

다양성 예찬의 표식

- 성소수자 가정의 자녀를 위한 유아 세례
- 예배 강단에 놓인 무지개 초 또는 배너
- 성소수자, 성별 비순응자 또는 기타 문화적으로 특정하게 구성된 성가대
- 동성 커플 결혼식에 초대
- 종교 간 결혼을 함께 축하하도록 지역사회 초청
- 다문화 행사에 초대
- 종교 간 행사에 초대
-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음악
- 퀴어긍정 사역 선언 연례 기념행사

포용과 돌봄의 표식

- 평등 결혼을 장려한다는 내용의 결혼 정책
- 젠더 포괄적 언어를 사용하는 결혼식과 세례식
- 웹사이트에 게시된 다양한 구성의 가족 이미지와 사진
- 저렴한 주택을 위한 지역사회 운동에 함께한다는 소식
- 성소수자 관련 행사나 활동 공지
- 성소수자의 관심사와 지역사회 행사 등을 위한 기도
- 음악과 기도를 이끄는 청소년과 어린이들
- 다양한 형태의 다양성을 명시적으로 포용하는 예배 언어
- 모든 종류의 가족을 존중하는 교회학교 활동과 교육 자료
-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함하는 찬송가 또는 사역지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을 존중하기 위해 여러 언어로 된 찬송가

- 모든 종류의 가족을 포함한 교인들의 사진 주소록
-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 새 화장실 계획에 대한 공지
- 트랜스젠더 예배 인도자, 교사, 청소년 리더, 설교자
- 예배, 의사 결정 과정, 지역사회 활동에 나이와 장애에 상관없이 모두를 의도적으로 참여시키기

배움과 성장의 표식

- ‘어린이를 초대하여 대화하는 설교 시간’에 성별 비순응자 또는 성소수자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기
- 레즈비언 영성에 관한 워크숍
- 북미 선주민 영성에 관한 워크숍
- 어퍼 유나이티드 연례 콘퍼런스에 초대
-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잡지, 서적, 웹사이트
- 소외된 이들에 관한 성인 독서 모임 또는 연구 모임
- 최근의 다문화 교회 행사에 참석한 팀의 보고서
- 사역지 건물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만들기 위한 워크숍
- 퀴어긍정 사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는 새신자 오리엔테이션

정의 구현과 지원 활동의 표식

- 퀴어와 미정자 청소년을 위한 웹사이트의 정보와 자료
- 동성 노인 커플 주택 프로젝트를 위한 자치 단체의 기금을 지지하는 청원
- 아웃리치, 환경에 대한 관심, 인권을 위한 시위 지원 등을 통해 더 넓은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공지
- 안전한 학교를 위한 행동 캠페인에 대한 공지
- 게이 노인들의 건강 요구에 관한 지역사회 모임에 참석한 대표자의 보고서

- 사역을 위한 반-인종주의 행동 계획 개발
- 지역 에이즈 호스피스를 위한 자원봉사자 요청
- 가족에게 커밍아웃하려는 이들을 위한 지원 그룹
- 사역지 건물 내 퀴어 및 미정자 청소년 모임
- 세계 에이즈의 날,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등을 기념하는 예배나 특별 헌금
- 프라이드 퍼레이드 참여

우리는 이미 모두를 환영하는데 왜 굳이 퀴어긍정 사역지가 되어야 하는가?

이미 여러 사역지에서 포용을 드러내는 표식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미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왜 성적 취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하는지 의아해할 수 있다. 퀴어긍정 사역지가 되는 것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면, 자신들은 이미 모두를 환영하고 있으므로 굳이 퀴어긍정 사역지가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단순한 환영 그 이상을 제공하기

퀴어긍정 사역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다양한 성적 취향과 성별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만이 아니다. ‘환영’이나 ‘포용’과 같은 말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외부인을 받아들일지 말지 선택할 권력이 있음을 암시한다. 이는 우리와 다르거나 소외된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이 마치 자선 행위인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교회는 사적인 클럽이 아니며 우리도 문지기가 아니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환영할 위치에 있지 않다. 새로운 사람이 문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 공동체는 새로운 공동체가 된다.

혼인 잔치의 비유(마태복음 22:1-14)는 우리 신앙공동체의 진정한 주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임을 일깨워준다. 이 비유에서 초대받은 이들이 나타나지 않자 주인은 연회장을 가득 채우기 위해 거리와 마을 뒷골목으로 간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두가 이미 축하 잔치에 초대되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젠더소수자와 성소수자를 비롯한 다른 이들이 이미 환영받은 초대에 응한다는 뜻이다. 참석함으로써 우리는 모두가 함께 한 상에 앉는 데 동의한 것이다.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환영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모든 놀라운 다양성 가운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급진적인 사랑을 마주하게 된다.

퀴어긍정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상상보다 더 넓고 포괄적임을 인정하고, 교회가 뭘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혀 다른 메시지를 들었을 수도 있는 이들에게 이 소식을 나누기

위해 헌신한다. 비난과 배제, 혐오의 목소리가 교회 안과 사회에서 크고 끈질기게 이어지기 때문에 퀴어긍정 사역은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언한다. 퀴어긍정 사역자로서 “커밍아웃” 하는 것이 위험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성소수자들이 처한 위험에 비할 바 아님을 이해한다. 퀴어긍정 사역은 공적 증인이 되고 다른 사역의 롤모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다양한 성적 취향과 성별 정체성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선언하기

소외된 이들은 대부분 그들 자신과 관계에 대한 혐오와 정죄, 부정적 메시지에 둘러싸여 살아간다. 때로는 퀴어, 패그(fag), 변태 같은 말로 강조되는 무섭고 이름 붙일 수 없는 타자성을 경험하며 자랐을 수도 있다. 학교 운동장에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게이, 다이크(dyke), 트래니(tranny) 같은 말이 경멸과 모욕의 언어로 쓰이는 것을 자주 듣는다. 앞서 언급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자신이 누구인지 커밍아웃할 때 사랑하는 사람, 동료, 친구 또는 신앙공동체로부터 맹렬한 비난의 메시지를 받는다.

안타깝게도 교회는 독설에 찬 혐오와 정죄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내곤 한다. 프라이드 행사에 보수적 우파 그리스도교 교인들은 “너희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또는 “하나님은 호모를 혐오한다”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나온다.

TV 설교자들이나 Focus on the Family (가족에 집중하라) 같은 단체들은 계속해서 거부와 정죄, 혐오의 메시지들을 쏟아낸다. 그리고 이따금 또 다른 설교자들이 우리 지역에 오거나 TV에 나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라며 동성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고 말한다. 그들은 본문의 구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채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라는 레위기 20장 13절을 곧잘 인용한다. 에이즈, 9·11 테러, 또는 여타 재앙들을 동성애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한다. 동성 커플을 포함하는 결혼법이나 게이 성공회 주교 선출은 일부 그리스도교인들의 즉각적인 분노를 일으키고, 종교단체들은 전환 치료와 같은 위험한 관행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조장한다.

이러한 혐오의 말과 관행이 그리스도교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많은 성소수자가 오로지 이러한 한쪽의 이야기만 듣게 된다. 성소수자들은 모든 그리스도교인이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여긴다. 성소수자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자신을 거부하신다고 믿을지도 모른다. 다양한 젠더와 성적 지향을 지닌 사람들을 위한 정의와 포용을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교인이라면 더 큰소리로 사랑과 연민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새신자나 지역사회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알 거라고 짐작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퀴어긍정 사역은 판단과 정죄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과 연민의 방식을 선포하고 따르는 데 전념한다. 퀴어긍정 사역의 비전선언문은 비전과 희망을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소수자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매우 구체적이므로 퀴어긍정 사역의 비전선언문도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라는 구체적인 문구를 명확하게 사용한다. 예배와 프로그램, 공동체 생활에서 다양한 가족 구성과 관계, 삶의 경험을 호명하고 존중한다.

안전한 공간 만들기

퀴어긍정 사역은 많은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과 성적 지향 때문에 교회에서 상처와 고통을 받아왔음을 인정한다. 동성애, 트랜스, 관련 권리에 대한 교회 내 씩씩한 논쟁은 많은 사람이 교회를 불신하게 만들었다. 캐나다연합교회에 속한 교회 중에는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교회들도 있다. 그들은 게이 목사를 절대로 청빙하지 않겠다고 공표하고, 동성 관계를 비난하며, 평등 결혼을 절대 지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교회학교 교사나 청소년 리더직을 내려놓으라고 요구받거나 모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성소수자들도 있다. 많은 경우 그 상처는 매우 개인적이다. 커플이 결혼식을 위해 목사를 찾아갔다가 그 교회는 예배당에서 평등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청년이 겨우 용기를 내어 성서 공부 모임에서 자신이 게이라고 고백했건만 왜 동성애자들은 항상 자신의 성적 지향을 과시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또는 트랜스젠더 아들을 둔 여성이 교회가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자를 반대한다고 선포하는 동안 침묵하며 앉아 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매년 600명에 달하는 10~24세의 청(소)년이 자살로 사망한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청소년 중 약 32%가 자살을 고려하거나 시도한다고 한다(청소년 전체에서는 이 비율이 7%이다).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경우는 그 비율이 두 배나 더 높다. 가족에게 거부당한 성소수자 청소년의 12%가 자살을 시도한다. 중독 및 정신건강 센터에 따르면 이 아이들을 자살로 몰고 가는 것은 그들의 섹슈얼리티가 아니라 이성애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낙인과 차별이다. 낙인, 차별, 거부는 영혼을 파괴하고 생명을 위협한다. 이런 경험들은 빈곤이나 인종주의, 성차별주의처럼 역시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다른 형태의 소외와 억압과 맞물리는 경우가 많다.

퀴어긍정 사역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포함하여 구성원의 경험에 귀를 기울이고자 노력한다. 퀴어긍정 사역은 성소수자들과 성별 비순응자들을 양육하고 지원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을 공표한다. 이 공개적 성명은 특히 중요하다.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으로 소외되고 낙인찍힌 사람들도 삶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섬기는 영적인 가정을 갈망한다. 하지만 어떤 교회가 그들 자신의 본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지 혹은 기피하거나 거부할지 알 수 있는 방도가 없다. 그러므로 퀴어긍정 사역은 이를 알리는 표식와 상징을 내걸고, 퀴어긍정 사역지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퀴어긍정에 대한 입장을 웹사이트와 출판물에 명시한다.

여러 퀴어긍정 사역지에서 후보나 광고 시간에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우리는 퀴어긍정 사역지로서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다양성을 기뻐한다. 우리는 나이와 성별 정체성, 인종·문화적 배경, 성적 지향, 장애, 가족 구성 등이 다양할 때 공동체가 풍요로워짐을 예찬한다. 우리는 모두가 자신의 모습 그대로 이 사역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며,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다양성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기뻐하기

퀴어긍정 사역을 하려는 신앙공동체는 다름을 포용하는 것이 공동체에 축복과 기쁨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퀴어긍정 사역은 타인에 대한 개방성을 분명히 선언함으로써 깊고 넓은 인간의 다양성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한다. 다양성을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는 협력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다. 구성원들의 다양한 경험과 재능으로부터 배우고 혜택을 누린다. 갈등을 보다 창조적으로 관리한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더 넓은 관점의 아이디어와 시각을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매우 다양한 지식과 이야기,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의해 더욱 풍요로워진다. 퀴어긍정 사역은 인간 다양성의 한 측면을 위한 공간과 개방성을 창출할 때 다른 측면들을 위한 개방성도 창출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물리적 비유를 들자면,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경사로를 설치하면 유아차를 끄는 사람, 푸드뱅크에 상자를 배달하는 자원봉사자, 물품 배달원에게도 도움이 된다. 다름에 대한 개방성을 창출하는 것은 비슷한 파급효과가 있어서 중독, 정신건강, 가족생활의 혼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같은 많은 사람이 판단을 덜 받는다고 느끼고 한층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끔 돕는다. 긍정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온전하고 진정한 자신을 공동체에 그대로 드러낼 수 있게 돕는다.

정의 추구

대부분의 성소수자는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또는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폭력을 겪은 사람을 적어도 한 명 이상 알고 있다. 성소수자 청소년은 학교 운동장에서 표적이 된다. 커밍아웃을 하면 집에서 쫓겨나거나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거부당하기도 한다. 너무나 많은 동성애,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로 사망한다.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투스피릿 성인은 직장과 주거지, 지역사회, 의료시설과 교회에서 차별과 괴롭힘에 직면한다. 여전히 많은 이가 수치심과 두려움의 벽장 속에서 살고 있다.

퀴어긍정 사역은 정의를 위해 일하고, 화해와 치유를 촉진하며, 교회와 사회에서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평등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한다. 성소수자 공동체와 함께하는 행사를 지원하고 참여하며, 퀴어긍정 사역 배너를 자랑스럽게 내걸고, 다른 사역자들이 퀴어긍정 사역을 하도록 장려하며, 어펄 유나이티드의 사역을 돕는다.

퀴어긍정 사역지는 게이 교회나 단일 이슈에만 초점을 두는 공동체가 아니다. 퀴어긍정 사역은 다양한 정의 문제에 관여한다. 우리는 치유와 정의를 실현하는 일, 즉 교회 됨이 우리의 정체성의 일부임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인종주의에 맞서 싸우고,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도록 교회 건물을 고치고, 빈곤 퇴치 행진에 참여하고, 인디언기숙학교에 대한 연합교회의 사죄를 실천하고자 어린이들을 기리고 중독 지원 단체에 공간을 제공한다.

섹슈얼리티나 젠더 문제에 대한 정의를 위한 사역은 반인종주의, 경제 정의, 환경 정의 등의 다른 정의를 위한 사역을 지원하거나 연합하는 경우가 많다. 이 자료는 특별히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지만, 퀴어긍정 사역을 한다는 것은 지구 전체의 더 큰 정의와 연민을 향한 여정에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퀴어긍정 사역지가 되는 법

다음은 퀴어긍정 사역지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단계를 요약한 것이다.

1. **작게 시작하기.** 퀴어긍정 사역은 목회 현장 안에서 보통 한두 명이나 소그룹으로 시작한다. 한 사람이 이 아이디어에 관심이 있고 열린 마음을 가진 한두 명과 함께 모여 시작할 수도 있다. 혹은 선교 및 아웃리치 위원회와 같은 교회의 위원회가 당회나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도 있다.
2. **어펌 유나이티드에 연락하기.** 되도록 빨리, 이왕이면 퀴어긍정 사역지가 되겠다는 생각이 처음 떠오를 때 연락하라. 어펌 유나이티드의 퀴어긍정 사역 프로그램 코디네이터(affirmunited.ause.ca/affirming-ministry-coordinators/)는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고, 자료와 인적 자원을 찾을 수 있게 돕고, 퀴어긍정 사역이 되기 위한 과정과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흔히 빠지는 함정이나 위험 요소를 피해 가도록 도와줄 수 있다.
3. **정보와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기.**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이 작업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서가와 퀴어긍정 사역 전시 테이블에 어린이책과 청소년을 위한 자료가 비치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라. ‘3부: 퀴어긍정 사역을 위한 자료들’을 참조하라.
4. **다른 퀴어긍정 사역과 연결하기.** 어펌 유나이티드 웹사이트(Affirmunited.ause.ca/find-a-ministry)에서 퀴어긍정 사역지 목록을 찾아보고 몇몇 사역지의 웹사이트를 방문해보라. 가까운 곳에 있는 퀴어긍정 사역지에 연락하거나 방문해서 그들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 사역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대화해보라. 인근의 다른 퀴어긍정 사역지 혹은 퀴어긍정 사역을 하고자 하는 다른 교회들과 함께 워크숍이나 공동 예배를 계획하라.

5. **유용한 자료 수집하기.** 어퍼 유나이티드 웹사이트의 자료실(Resources)을 찾아보고, 관련 기사와 책, 영화 등의 자료를 수집하라. 추천 도서를 읽기 시작하고, 추천 영화도 감상하라.
6. **관심 있는 사람들의 소그룹 결성하기.**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 비공식적 그룹을 만들고 퀴어긍정 사역 과정이 어떠할지, 왜 그것이 신앙공동체나 사역에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라. 이 그룹이 당회나 운영위원회(또는 여타 의사 결정 기구)에 제출할 권고안이나 발의안을 준비할 수도 있다.
7. **운영위원회에 권고하기.** 퀴어긍정 사역지가 되는 것을 고려하기 위한 성찰과 연구 과정을 시작하고, 연구와 분별, 성찰의 과정을 이끌 퀴어긍정 사역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운영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출하라. 기존의 소그룹에 참여한 사람들이 추진위원회의 일원이 될 수도 있다. 해당 사역지의 주요 의사 결정 기구에서 연구 과정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행사와 자료 비용을 충당할 예산을 요청하라. 운영위원회에 모든 진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정보를 제공하라.
8. **배움과 성찰의 과정에 모두를 참여시키기.** 이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며 일반적으로 가장 오래 걸리는 과정이다. 다양성에 대한 각 사역지의 경험과 문화에 따라 보통 18개월에서 2년간 소요된다. 이 과정을 위한 교육 자료는 2부에 수록되어 있다. 사역지의 구성원과 임원 모두를 이 교육과 성찰, 연구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되도록 많은 소그룹, 위원회, 회원과 임원이 참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종주의, 경제 정의와 계층, 성차별, 장애와 비장애, 나이, 문화 등 다른 정의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이슈에 대해 더 많이 배운다.
 - 성서, 설교, 대화를 통해 성소수자를 긍정하고 환영하며 그들을 위한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신학적으로 성찰한다.

-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미정자/퀴어, 인터섹스, 무성애자, 투스피릿, 젠더플루이드, 논바이너리인 활동가와 공동체 구성원이 참여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경험을 나누도록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큰 다양성 문제에 주목하고, 인종 차별을 받는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비롯해 한층 폭넓은 스펙트럼의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지 고민해본다.
- 사역지의 생활과 사역에서 어떻게 성소수자와 성별 비순응자를 환영하고 지원하고 포용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 사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와 고민, 그리고 퀴어긍정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공유할 기회를 많이 마련한다.
- 여러분의 사역이 교회와 더 큰 지역사회에서 성소수자를 위한 정의, 돌봄과 지원을 위한 지속적 노력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평가한다.

9. 퀴어긍정 사역 비전선언문, 실행 계획, 평등 결혼 정책 작성하기. 지금이 퀴어긍정 사역의 적기라고 생각한다면, 신앙공동체의 현 미션선언문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퀴어긍정 사역 비전선언문을 준비하기 시작하라.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지닌 이들을 완전히 포용하고 지지하고 옹호하는 데 헌신하겠다는 것이 여러분의 사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이야기한다. 비전선언문을 준비할 때 어퍼 유나이티드에 연락하여 비전선언문 작성을 위한 지침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라. 퀴어긍정 사역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하여 작성한 비전선언문, 실행 계획, 평등 결혼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사역지의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라. 이 세 가지는 아마도 서로 다른 단계에서 완성될 것이다. 많은 사역지가 이미 평등 결혼 정책을 승인하였고 이를 코디네이터에게 알릴 수 있는 상황이다. 많은 퀴어긍정 사역지에서 퀴어긍정 사역 비전선언문의 승인 후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도움이 됨을 알게 되었다.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다른 사역지의 비전선언문을 읽어보라.

- **퀴어긍정 사역 비전선언문**은 사역지의 생활과 사역에서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정의와 긍정, 포용의 비전에 관해 이야기한다. 이 선언문은 계층, 인종, 성별, 나이, 장애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포용성을 아우를 수 있다.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 사역지의 생활과 사역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점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이 선언문의 필수 요건이다. 이 선언문은 사역지의 현 미션선언문의 일부가 되거나 그것을 보완한다. 퀴어긍정 사역은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의 지지가 있어야만 제대로 이행할 수 있으므로, 이 선언문은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회의(특별 회의나 연례 회의 등)에서 검토받아야 한다. 문법이나 어순 이외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퀴어긍정 사역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와 상의하여 퀴어긍정 사역 비전선언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선언문의 최종 수정 권한 그리고 퀴어긍정 사역지가 되기 위한 신청 과정의 일부로서 선언문을 퀴어긍정 사역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에게 보낼 수 있는 권한은 사역지 당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있다.
- **실행 계획**은 퀴어긍정과 정의에 대한 헌신을 어떻게 계속 이행할 것인가를 다룬다. 여기에는 인종주의 등 다른 정의 이슈에 대한 탐구, 사역지 또는 더 넓은 지역사회에서의 성소수자 지원 계획, 성별 비순응자 지원 계획, 다른 퀴어긍정 사역지와 공동 행동, 지역사회에서의 옹호 또는 정의 활동, 지역 내 다른 사역지를 위한 워크숍 개발, 지역 성소수자 정의 지원 또는 옹호 단체 참여, 어퍼 유나이티드에 대한 지속적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 **평등 결혼 정책**(아직 없는 경우)은 모든 성별 조합의 커플이 동일한 권리와 자격을 갖고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퀴어긍정 사역을 하려면 투표를 통해 사역지 구성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적어도 75% 이상의 찬성을 받을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목표는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포용하도록 하는 것임을 기억하라. 따라서 여러분의 사역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두가 투표에 참여하길 권장한다.

* 신앙공동체를 위한 주의 사항:

퀴어긍정 사역지가 되고자 신청하는 일에 관해 투표하기로 할 때, 이 투표는 캐나다연합교회 매뉴얼에 따라 “재정 또는 행정 사안”으로 간주됨을 이해해야 한다. 필수 요건 목록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신앙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이 결정에 동참하길 권장한다. (참석자 모두가 퀴어긍정 사역의 뜻을 실천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캐나다연합교회 매뉴얼 B.3.7.2항에 명시된 대로 신도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공식 회원들이 투표를 시행할 것을 권장한다.

B.3.7.2 신도들은 다음의 경우 회중 회의(meetings of congregation)에서 투표할 수 있다.

- (a) 정회원이 신도들의 투표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 (b) 재정 또는 행정 사안에 관한 투표일 경우

10. 퀴어긍정 사역지가 되기 위해 투표로 사역지의 승인을 요청하기. 전국 단위 프로그램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과 자료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기관 멤버십 회비가 있다. 기관에 따라 회비를 덜 내거나 더 낼 수 있다. 어펄 유나이티드에 가입하면 퀴어긍정 사역지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메일링 리스트에 추가된다. 퀴어긍정 사역지는 어펄 유나이티드 콘퍼런스와 연례 총회에 참가자들을 보내주길 권장받는다. 각 퀴어긍정 사역지는 투표권이 있는 두 명의 대표를 연례 총회에 보낼 수 있다.

11. 기념하기. 여러분의 사역지가 퀴어긍정 사역지로 승인되면 어펄 유나이티드는 인정과 축하의 예배로 이를 인정할 것이다. 퀴어긍정 사역지가 된 것을 기념하는 예배를 계획하라. 이 기념식에 함께할 수 있도록 지역의 신앙공동체와 더 넓은 지역사회에 초대장을 보낼 수 있다. 지역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이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확인하라. 어펄 유나이티드를 대표하는 누군가가 참석하여 퀴어긍정 사역

인증서를 수여하고 퀴어공정 사역지들의 인사말을 전할 것이다. 이 기념식 이후 해당 사역지는 어펄 유나이티드 웹사이트의 퀴어공정 사역지 목록에 추가된다.

12. **공표하기.** 퀴어공정 사역지 인증 정보와 어펄 유나이티드 로고를 사용해 사역지의 간행물과 웹사이트, 외부 간판에 캐나다연합교회의 퀴어공정 사역지로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공표하라. 보도 자료를 보내거나 지역 교회 신문에 기사를 작성할 수도 있다. 건물에 퀴어공정 사역 비전선언문을 눈에 잘 띄게 게시하라.
13. **행동하기.** 퀴어공정 사역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정의와 표용을 향한 헌신을 지속해서 실천하라. 사역지들은 실행 계획을 책임감 있게 이행하고 필요시 수정할 수 있도록 퀴어공정 그룹 또는 공정 그룹을 구성해야 한다.
14. **성장하기.** 정의와 배제 이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예컨대 인종주의에 대해 더 알아보고 반-인종주의 행동 계획을 개발하라. 선주민과의 화해 과정에 참여하라.

퀴어긍정 사역을 위한 과정

퀴어긍정 사역 과정의 목표:

공개적으로, 의도적으로, 명시적으로 다양한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환영한다.

이 과정은 영적, 성찰적, 상황적, 교육적이며 온전한 참여를 요청한다.

이 과정은 필요한 만큼의 시간이 걸린다.

이 과정은 이야기이며 투쟁의 과정이다. 중심은 사람에 있지 서류에 있지 않다.

이 과정은 변혁의 과정이다.

필요성에 직면 → 분별 → 시작 → 참여 → 문서화 → 공동 결의 → 가족이 되다

필요성에 직면: 필요성, 질문 또는 비전은 목회가 어떻게 공개적, 의도적, 명시적으로 환영을 할 수 있는지 질문하게 이끈다.

분별: 그룹을 만들어 어떻게 하면 (더욱) 급진적이고 의식적으로 환영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지 살피기 시작한다. 퀴어긍정 사역 과정을 고려하고, 퀴어긍정 사역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한다.

시작: 공식적으로 퀴어긍정 사역 과정에 들어가는 것은 사역지의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실무진을 꾸린다.

참여: 교육, 스토리텔링, 기도, 두려움과 희망을 경청하기. 퀴어긍정 사역이 목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별하기 위해 신앙공동체 및 더 넓은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과 함께 일하기.

문서화: 최종 결정 전에 비전선언문, 실행 계획, 평등 결혼 정책 등을 작성해야 한다.

공동 결의: 공식적으로 퀴어긍정 사역지가 되는 것을 어떻게 결정할지 분별한다. 긍정적 결정은 적어도 참석자의 75%가 찬성해야 한다.

가족이 되다: 공개 기념식을 연다! 전국 퀴어긍정 사역의 가족으로 공식 환영을 받는다.

퀴어긍정 사역 비전선언문 예시

어펌 유나이티드 웹사이트의 퀴어긍정 사역지 찾기(<http://affirmunited.ausc.ca/find-a-ministry/>)에서 퀴어긍정 사역지들의 웹사이트를 확인하여 더 많은 예를 참고할 수 있다.

온타리오주 사니아(Sarnia)의 그레이스 연합교회(Grace United Church)

우리는 교회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사역의 생활과 사역에 온전히 참여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기 위해

안전하고 개방된 테이블과 세레반 주위에 모인다.

창조세계를 존중하며 살기 위해

다양성을 포용하고 기뻐하는 데 전념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차이를 존중하고 기뻐한다.

정의를 추구하고 악에 저항하기 위해

계층, 인종, 성별, 나이, 장애에 대한 차별에 도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심판자이자 희망으로 선포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확신한다.

온타리오주 캐닝턴(Cannington)의 트리니티 연합교회(Trinity United Church)

트리니티 연합교회에 속한 우리는 모든 사람의 삶의 경험을 긍정하고 적극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연령, 피부색, 민족,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지적·신체적 장애, 가족 구성,

정신건강, 사회경제적 환경의 사람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트리니티 가족의 모든 생활과 사역에 의도적으로 환영하는 안전하고 양육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든 사람은 멤버십, 리더십, 인생의 통과의례와 결혼을 포함한 교회 생활의 모든 측면에 참여하도록 초대받는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정의를 향한 여정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갈 것을 공개적으로 다짐한다.

온타리오주 킹스턴(Kingston)의 시든햄 스트리트 연합교회(Sydenham Street United Church)

비전선언문

퀴어긍정 사역지로서 우리는 캐나다연합교회에서 중요한 신앙공동체가 되고자 노력한다. 영성과 정의, 창조성에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성서에 근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여 다양성과 포용성, 풍성한 삶을 기뻐한다.

미션선언문

우리는 모든 연령, 인종,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출신 민족, 정치적 신념, 경제적 상황, 다양한 능력과 과제를 가진 사람들을 시든햄 스트리트 연합교회의 사역과 생활에 포용하며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겠다고 다짐한다.

우리는 환대와 목회적 돌봄을 확장하고, 합당하고 의미 있는 예배, 영성 수련, 소그룹 사역을 공유함으로써 영적 관계성을 심화하고 각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겠다고 다짐한다.

우리는 지역과 국가, 전 세계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 프로그램, 옹호 활동, 새로운 계획을 통해 지원 활동과 사회 정의 사역을 확장하고, 연민과 평화의 삶을 추구하며 지원 활동과 사회 정의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우리 공간을 사용하는 것을 환영하겠다고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예술적 노력을 기울이는 이들이 우리 시설을 사용하도록 장려함으로써

교회와 더 넓은 지역사회에서 예술을 육성하고 예술로 사람들을 양육하겠다고 다짐한다.

앨버타주 캠로즈(Camrose)의 캠로즈 연합교회(Camrose United Church)

우리의 비전

누구도 외롭다고 느끼지 않고
모두가 자기 집처럼 편하게 여기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는 것.

캠로즈 연합교회는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민족 정체성, 나이, 장애, 사회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포용적으로 환영한다고 선언한다. 우리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힘쓰며 다양성이 가져다주는 선물을 기뻐한다. 모든 사람이 예배와 사역에 온전히
참여하도록 초대한다.

뉴브런즈윅주 색빌(Sackville)의 색빌 연합교회(Sackville United Church)

우리 색빌 연합교회 공동체는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선포하고, 그에 따라
살도록 부르심 받았다고 느낀다. 색빌 연합교회에 속한 우리는 (경제적 지위, 식이 제한,
인종, 문화, 언어, 나이, 장애, 정신건강, 결혼 여부,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등의 이유로)
억압받고 배제되고 소외된 이들을 모두 긍정하고 포용하며, 안전하고 양육적인 환경이
되기 위해 헌신한다.

우리는 정의와 온 지구에 대한 연민, 모두를 위한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는 모든 이와
함께할 것이다.

우리는 신앙의 노래(Song of Faith⁴)를 통해 창조로부터 시작된 관계가 어떻게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사역을 지나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지 기뻐한다. 관계에 대한 필요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도록 우리를 부른다. 우리는 서로를 긍정하는 사역을 통해 색빌 연합교회 공동체 안에서 멤버십과 사역, 삶의 경험의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연약한 모습 그대로 개방한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 세인트존스(St. John's)의 가워 스트리트 연합교회(Gower Street United Church)

가워 스트리트 연합교회에 속한 우리는 지역사회와 글로벌 공동체에서 사랑하고 봉사하고 아낌없이 베푸는 등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올바르게 행동하는 데 헌신한다. 우리는 전통을 존중하고 변화를 수용하며 불의에 도전하는 활기차고 진화하는 공동체를 꿈꾼다.

우리는 나이, 피부색, 인종, 민족, 신앙,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장애, 결혼 여부, 가족 구성, 사회적 또는 경제적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긍정하며, 모두의 참여를 격려하기 위해 헌신한다.

매니토바주 브랜든(Brandon)의 녹스 연합교회(Knox United Church)

신앙공동체로서 우리는 예배, 공부, 사역, 실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헌신한다.

녹스 연합교회에 속한 우리는 나이, 피부색, 인종,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장애, 결혼 여부, 사회적 또는 경제적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녹스 가족의 생활과 사역에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안전하고 양육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⁴ <https://united-church.ca/community-and-faith/welcome-united-church-canada/faith-statements/song-faith-2006> (역주)

우리는 하나님 세상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정의와 자유를 추구하는 사역과 생활에 헌신한다.

매니토바주 위니펙의 그리스도교 연구센터(Centre for Christian Studies)의 정의에 관한 입장

우리는 창조세계가 거룩하고 신성하다고 믿기에 온전함과 평화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고자 한다. 우리는 건설적이고 포용적이며 사랑과 영감을 주는 공동체를 원한다. 우리는 젊거나 나이 든 사람, 아프거나 가난한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선주민,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난민, 폭력의 희생자, 인종주의를 경험한 사람 등을 무시하는 언어나 행동에 맞서 싸운다.

우리는 디아코니아, 해방신학, 페미니즘에 근거한 모델에 따라 행동한다. 우리는 올바른 관계를 위해 일하고 투쟁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정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 우리는 세상과 우리 자신 안에서 작동하는 권력과 권세를 평가하고 비판함으로써 교회와 사회에서의 리더십을 위해 서로를 준비시킨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체적, 영적, 정서적, 지적 환경을 보호하는 데 헌신한다. 우리는 현재에 발 딛고서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한 미래를 그리기 위해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바라본다.

퀴어긍정 사역을 시작한 다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퀴어긍정 사역 프로그램과 실천 아이디어

퀴어긍정 사역지가 되는 일은 퀴어긍정 사역지로 선포된 뒤에도 끝나지 않는다. 퀴어긍정 사역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교회와 더 넓은 사회에서 정의를 위한 행동을 계속해 가겠다는 약속이다.

다음은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아이디어이다.

선포하기

모든 간행물, 홍보 자료, 예배 주보, 웹사이트와 페이스북에 여러분의 공동체가 퀴어긍정 사역을 하고 있음을 명시한다. 외부 간판, 모든 간행물, 웹사이트, 예배 주보, 공문, 페이스북 등에 어펄 유나이티드 로고를 게시한다. 로고 파일은 어펄 유나이티드에서 제공한다. 새로 온 사람이나 방문자가 건물이나 공간에 들어올 때 무엇을 보게 될지 고려하고, 길을 지나거나 인터넷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퀴어긍정 사역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무지개 스티커, 성소수자 친화적 표식, 접근성 스티커, 보청기, 향기 주의(scent aware) 안내문과 포스터 등 기타 포용 영역에 대한 표시를 건물 곳곳에 게시한다. 뉴스레터나 기타 간행물에 퀴어긍정 사역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시하고, 그 실천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소식을 공유한다.

새신자에게 퀴어긍정 사역이란 무엇인지, 왜 퀴어긍정 사역지가 되기로 했는지 설명한다. 구성원들, 특히 공동체에 새로 온 사람들에게 어펄 유나이티드의 온라인 뉴스레터와 기타 정보를 공유한다.

비전선언문에서 제기한 이슈에 대한 다양한 자료(버튼, 포스터, 팸플릿, 뉴스레터, 책)를 비치해둔다.

- 노바스코샤주의 베드포드 연합교회(Bedford United Church)는 예배 후 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채롭고 유익한 자료를 상설 진열대에 비치하고, 교인이 직접 만든 무지개 직조물을 예배당에 걸어놓았다.
-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배서스트 스트리트 연합교회(Bathurst St. United Church)는 연합교회 최초로 트랜스젠더 목사후보생을 위해 목회실습지를 제공했다.
- 앨버타주 캘거리의 와일드 로즈 연합교회(Wild Rose United Church) 예배당에는 무지개 모래 조각상이 눈에 띄게 전시되어 있어서 예배자들에게 이곳이 포용적이고 다양한 공동체임을 상기시킨다.
- 퀘벡주 몬트리올의 연합신학대학(The United Theological College)은 그리스도교 교회 조직 안팎에서 성소수자 커뮤니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졸업식에서 격년으로 크레이그 채플린 상(The Craig Chaplin Award)을 수여한다.
- 앨버타주 캘거리의 힐허스트 연합교회(Hillhurst United Church)는 흑인, 선주민, 유색인을 상징하는 검은색과 갈색 줄무늬 그리고 트랜스 색상이 포함된 프라이드 무지개 깃발을 걸어두었다.
- 서스캐처원주 리자이나(Regina)의 선셋 연합교회(Sunset United Church)는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를 포용한다”라고 선포하는 쉼트를 제작하여 예배당에 걸어두었다.
- 앨버타주의 라콤 연합교회(Lacombe United Church)는 교회 문 앞에 횡단보도를 연상시키는 형형색색의 무지개를 그려서 어떠한 삶의 여정을 걸어왔든 모두를

환영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표현했다.

목회후보생을 지원하고, 소외된 커뮤니티 출신의 사역자와 스태프를 환영한다는 사실을 알린다.

기념하기

예배, 모임, 사업, 이야기 등등에서 인류가 얼마나 다양하고 가족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언어를 사용한다.

단순히 “모든 사람을 환영합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나이, 인종, 문화, 장애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환영합니다”라고 말한다. 가족 구성의 다양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예식을 진행한다. 예컨대 노인 여성과 동성애자 청소년이 짝을 이루어 성찬 집례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비혼인 교우와 어린이가 함께 대림절 초를 점화하도록 한다. 투스피릿을 초대하여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 또 그들이 당한 억압에 식민주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가르침을 나눌 수 있도록 한다.

성소수자 정체성을 지닌 작사가, 작곡가가 쓴 찬송가를 부른다. 환영과 포용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찬송가를 부른다.

위탁 아동이나 입양 아동을 동성 커플의 가족으로 맞이하는 축하 행사, 성전환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한 기도회, 스페셜올림픽에 참여하는 사람을 위한 파송식, 난민 가족 환영 기념일 행사, 커밍아웃 축하 행사처럼 사람들의 삶에서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예전을 만든다.

퀴어긍정 사역지가 된 날처럼 특별한 날을 기념한다. 퀴어 문화 축제일인 프라이드 데이(Pride Day)에는 워크숍, 공동체 식사, 예배, 초청 강연회를 열 수도 있고, 신앙공동체의 퀴어긍정 깃발을 들고 퍼레이드에 참여하거나 커뮤니티 박람회에 전시물을

설치할 수도 있다.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은 과거, 현재, 미래의 여성의 경제·정치·사회적 성취를 기념하는 세계적인 기념일이다. 이날은 여성의 성취를 축하하는 동시에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불평등을 상기시킨다. 전국 퀴어긍정의 날(National Affirming Day)로도 알려진 파이(PIE: Public, Intentional, Explicit) 데이(3월 14일)는 캐나다와 세계 신앙공동체가 성소수자들을 온전히 포용한 것을 축하하고 기리며 파이를 나눠줄 기회이다. 국제 인종 차별 철폐의 날(3월 21일)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샤프빌(Sharpeville)에서 아파르트헤이트 법안 통과에 항의하던 평화 시위대 69명이 살해당한 날로,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1966년 유엔에서 지정한 날이다.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11월 20일)은 트랜스젠더 또는 성별 비순응자라는 이유로 혐오와 무지의 표적이 되어 살해당한 이들을 추모하는 날이다. 세계 에이즈의 날(12월 1일)은 HIV/AIDS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HIV/AIDS에 걸린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 및 친구들을 지원하는 날이다. 에큐메니컬 환영 주일(Ecumenical Welcoming Sunday, 1월 마지막 주일)은 북미 에큐메니컬 환영 교회 운동 전반에 걸쳐 북미 대륙에서 일어나고 있는 퀴어긍정 사역을 축하하는 날이다.

축하 행사와 지역 공동체 시간을 활용하여 지역 문화를 조명한다. 사역지의 공간으로 예술적 경험을 불러들인다. 에이즈 추모 퀘트를 전시하고, 게이나 레즈비언 합창단 또는 노숙인 합창단을 초청하여 노래를 부르고, 선주민 드럼 연주단이나 필리핀 전례 무용단을 초대한다.

- 위니펙의 어거스틴 연합교회(Augustine United Church) 교인들은 다양한 종교적·영적 전통과 문화적·민족적 배경의 성소수자 강사들이 함께한 신앙, 인종, 퀴어의 교차점에 관한 이틀간의 행사인 ‘퀴어와 신앙인’에 참석했다.
- 에드먼턴의 맥두갈 연합교회(McDougall United Church) 교인들은 퀴어 축제에 참석했으며,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들의 전시 부스를 찾았다.
- 에드먼턴의 트리니티 연합교회(Trinity United Church)는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드래그 쇼와 질의응답 세션을 주최하여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지속적인 퀴어긍정 사역과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모금했다.

- 토론토에서 퀴어긍정 사역을 하는 교회들은 매년 꽃마차를 화려하게 꾸미고 토론토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참여하여 포용과 정의를 추구하는 자신들의 믿음을 증거한다.
-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켈로나의 퍼스트 연합교회(First United Church)는 ‘무지개 포트럭(rainbow potlucks)’을 마련하여 성소수자와 엘라이(ally)가 친목을 도모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배우기

공동체로서 계속해서 함께 배우고 성장한다. 인종주의와 백인 특권 문제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게이 및 레즈비언 영화제에 함께 참석하거나 성서 공부나 워크숍의 기회로 삼는다. 지역 사람들이 빌려보고 공유할 수 있는 책과 기타 자료를 갖춘 도서관을 만든다. 어린이와의 대화나 그리스도교 양육 프로그램에 정의와 평등 문제에 관한 대화를 포함한다. <가족: 다양성, 헌신, 사랑의 축하(Families: A Celebration of Diversity, Commitment, and Love)>와 같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어린이책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아샤의 엄마들(Asha's Mums)>에서처럼 가족 구성이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따돌림당하거나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어린이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청소년부나 입교 교육에서 섹슈얼리티와 동성 간의 관계에 관해 이야기하고, 다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제공한다. <갓 박스(The God Box)>를 읽고 토론한다.

- 어펌 유나이티드 웹사이트(www.affirmunited.ca)의 ‘다가오는 행사(Upcoming Events)’에 공지되는 퀴어긍정 사역 워크숍을 참고하라.

행동하기

정의를 위해 노력한다. 퀴어긍정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정의와 평등을 위한 더 큰 노력의 일환임을 인식한다. 성별과 성적 다양성 문제에 관한 정의를 위해 일할 때, 우리의 사역지에 존재하는 여타 장벽과 편견, 역사적 불의에 관해서도 숙고한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이슈에 더욱 깨어 있고 더욱 관심을 가지면서 나이와 장애, 경제적 상황, 인종과 문화적 배경 등 다양성을 대변하는 다른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 등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되는 다른 장벽을 인식하도록 노력한다. 자신과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을 계속하고, 반-인종주의 또는 장애 정의 연합(disability justice coalitions)과 같은 변화를 위한 단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퀴어긍정 사역지로서 정의를 위해 일하는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여 존재감을 드러낸다.

- 토론토의 트리니티 세인트폴 연합교회(Trinity-St.Paul's United Church)가 퀴어긍정 사역을 시작하고 처음 한 일 중 하나는 교회 안팎의 인종주의 이슈를 탐구하기 위한 반-인종주의 모임을 만든 것이었다.
- 오타와의 퍼스트 연합교회(First United Church)는 인디언기숙학교의 역사적 상흔을 안고 살아가는 선주민과의 화해와 치유 과정에 교회가 함께할 수 있도록 실무진을 구성했다.
- 캘거리의 디어 파크 연합교회(Deer Park United)는 사회 정의와 아웃리치 사역을 하면서 파생된 프로그램으로서 퀴어긍정 사역을 시작했다. 이들은 청소년, 타 종교 신도들, 경제적 곤경에 처한 사람들, 게이 또는 레즈비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의 관심사에 선교의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신앙공동체 전체가 퀴어긍정 사역의 의미를 탐구하게 되었다.
- 연합교회의 캠프 사역지 중 일부가 퀴어긍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탐구하고 있다. 이는 2020년 현재 진행 중이며,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어펍 유나이티드 웹사이트에 게시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에서 젠더소수자 및 성소수자를 지원하려는 움직임과 변화를 위한 행동을 지원한다. 모임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캠페인이나 이벤트를 홍보하고,

시위나 집회에 참석한다. 퀴어 청소년과 미정자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든든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활동(가령 캐나다 전역의 학교에 동성애자-이성애자 연대 조직(Gay - Straight Alliance)을 만들기 위한 Egale의 캠페인)을 지원한다.

- 온타리오주 캐닝턴의 트리니티 연합교회는 교회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과 단체가 다양성을 환영하는 교회의 퀴어긍정 입장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는 사용자 동의서를 만들었다.
- 온타리오주 벌링턴의 포트 넬슨 연합교회(Port Nelson United Church)는 포용성, 특히 성소수자의 필요 및 관심사와 관련된 분야에서 청소년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기리기 위해 매년 청소년상을 수여한다.

건강 옹호, 동성애 혐오 폭력, 주거, 성 확정 수술비 지원, 성소수자 노인들의 필요 등 더 넓은 게이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와 이슈에 참여한다.

- 온타리오주 스카버러(Scarborough)에 있는 버치클리프 블러프스 연합교회(Birchcliff Bluffs United Church)의 토비의 집(Toby's Place)은 퀴어, 트랜스, 미정자 청소년이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다.
- 버치클리프 블러프스 연합교회의 도로시의 집(Dorothy's Place)은 성소수자 노인들을 섬기는 열정적 사역지이다.

전 세계 성소수자와 앨라이의 인권을 지지하는 편지 쓰기 행사를 정례화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성소수자와 앨라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웹사이트(www.amnesty.org)에서 동성애 등의 키워드로 검색한 뒤 캠페인을 선택한다.

- 온타리오주 피커링(Pickering)의 던바턴-페어포트 연합교회(Dunbarton-

Fairport United Church)의 교인들은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긍정하고 그들을 수용하는 예배를 드리는 다종교 그룹의 일원이다.

- 앨버타주 에드먼턴의 맥두걸 연합교회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영적 표현이 캐나다연합교회의 전통적인 예배에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성소수자 그리스도인들이 이끄는 복음주의 형식의 월레 예배인 헤이븐(Haven)을 시작했다.
- 캘거리의 힐허스트 연합교회는 창의적이고 역동적이며 온전히 포용적인 신앙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고자 2012년 퀴어긍정 사역 코디네이터를 고용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 토론토의 로열 요크 로드 연합교회(Royal York Road United Church)의 다양성 긍정 위원회(Affirming Diversity Committee)는 2018년 성소수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국가 중 하나인 자메이카에서 온 성소수자 난민 두 명을 후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역 내 다른 사역지 및 더 넓은 범위의 시민사회단체들과 교류한다. 다른 신앙공동체나 지역 사역체를 교회의 교육 행사에 초대하거나, 트랜스젠더 또는 동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사를 강조하는 지역 차원의 행사를 계획한다.

캐나다연합교회의 다른 사역지와 동역자들이 퀴어긍정 사역을 고려하도록 독려하고, 필요한 자료나 강사를 추천하거나 사역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분별의 과정을 돕겠다고 제안한다. 이웃 신앙공동체와 더 넓은 지역사회에 사역 활동과 행사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퀴어긍정 사역에 관한 지역 행사나 에이즈 인식 개선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한다. 결의안, 우려 사항, 청원서를 상위 교회 조직에 제출한다.

지역협의회에 연락하여 지역협의회가 퀴어긍정 사역을 하는지, 지원하거나 참여할 만한 퀴어긍정 사역 행사나 워크숍 등이 있는지 알아본다.

어떤 유나이티드 웹사이트에 게시된 뉴스레터를 통해 퀴어긍정 사역지들이 이 정의 사역에 대한 헌신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는다.

다양성에 관한 유의 사항

학습하고 커뮤니티 관계를 구축할 때 교류하는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사려 깊게 행동해야 한다. 이 배움의 과정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학습 방법과 내용 면에서도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하고, 신앙공동체가 초청 강사를 선정하거나 자료 등을 선택할 때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주의 깊게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퀴어긍정 사역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퀴어긍정 사역이란 무엇인가?

A. 퀴어긍정 사역이란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을 위한 포용과 정의에 헌신할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연합교회 내 신앙공동체, 지역협의회, 요양원, 교육 기관, 수양관, 캠프 사역 및 기타 사역을 뜻한다. 퀴어긍정 사역은 섹슈얼리티와 젠더 문제에 대해 명시적으로 진술하지만, 정의에 대한 헌신은 훨씬 더 광범위하다. 하나님이 창조세계를 환영하고 사랑하고 정의롭게 대하는 방식을 더욱 온전히 따르며 살기 위해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한다. 하나님이 창조세계의 선함과 다양성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퀴어긍정 사역도 다양성을 존중하고 기뻐한다.

Q. 그렇다면 퀴어긍정 사역은 그러한 문제에만 관심을 둔다는 뜻인가?

A. 퀴어긍정 사역은 ‘동성애자 전용 교회’ 또는 하나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사역이 아니다. 퀴어긍정 사역은 다양한 정의 문제를 다룬다. 인종주의에 맞서 싸우거나 건물에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게 만들 때, 빈곤 퇴치 행진에 참여하거나 인디언기숙학교에 대한 연합교회의 사죄를 실천하려 노력할 때, 투스피릿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며 중독 지원 그룹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때도 퀴어긍정 사역은 치유와 정의를 실현하는 이 모든 사역이 교회 됨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Q. 교회나 단체를 퀴어긍정 사역지로 선포하는 것을 누가 결정하는가?

A. 해당 사역지의 운영위원회가 퀴어긍정 사역 비전선언문, 평등 결혼 정책, 실행 계획과 함께 신청서를 퀴어긍정 사역 코디네이터에게 (이메일로) 보낸다. 어퍼 유나이티드에서 이 문서들을 승인하면 해당 사역지의 구성원들이 모여 퀴어긍정 사역지가 될지를 두고 투표한다. 찬성표가 많은 경우(최소 75% 권장) 사역지는 어퍼 유나이티드의 재무 담당자에게 회원 가입서와 기관 등록비를 보낸다. 퀴어긍정 사역 코디네이터가 회원 등록을 확정하고, 퀴어긍정 사역 인증서를 전달받는 기념 예배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런 다음 해당 사역지가 어퍼 유나이티드 웹사이트의 전국 기관 목록에 추가된다.

Q. 성서는 동성애에 대해 뭐라고 말하나?

A. 성서는 성적 지향으로서의 동성애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성적 지향이 다른 사람이 있다는 생각은 성서적 세계관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히브리 성서와 그리스도교 서신서에는 남성이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과 여성이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언급이 있다(예: 로마서 1:26~27). 이 모든 구절에서는 동성 간 성관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구절들은 맥락을 고려하여 이해해야 한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논거로 인용되는 이러한 구절 중 일부는 사람이나 새, 동물의 형상을 만들거나(로마서 1:22), 성서에서 가증한 것으로 간주하는 새우 같은 음식을 먹는 행위(레위기 20:25)처럼 우리가 허용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행동도 정죄한다. 급진적 환대와 포용의 신학은 복잡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에 성서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성서의 맥락에 대한 신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탐구해야 한다.

Q. 예수님께서 동성 관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있는가?

A. 복음서에는 동성 관계나 동성애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다.

Q. 성서는 성별 정체성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

A.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의 성(sex)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셨으나, 창조 이야기에는 성별(gender)에 대한 언급이 없다. 성별이 성과 같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성서는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는 명확한 성 역할을 제시하지만, 이는 남성이 여러 아내를 두고, 적의 과부와 강제로 결혼하고 첩을 둘 수 있었던 시절의 역사적 맥락 안에서 읽어야 한다. 또한 전통적인 성 역할에서 벗어난 사례도 많다. 예컨대 털이 많고 사냥꾼인 에서와 매끈하고 여성이 머무는 장막에 머무는 야곱 사이의 대비를 생각해보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선택받은 이는 성별 비순응자인 야곱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신명기 22장 5절(“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니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임이니라”)을 인용하여 성별 불일치를 검열하지만, 성서에는 성별 다양성을 존중하는 구절(예: 마태복음 19:12, 이사야 56장, 사도행전 8장)이 훨씬 더 많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Q. 퀴어긍정 사역지는 어썸 유나이티드에 재정 지원을 할 의무가 있다. 얼마나 요청하며, 그 돈은 어디에 쓰는가?

A. 퀴어긍정 사역지는 어썸 유나이티드의 기관 회원이 되기 위해 100~500달러의 연간 기부금과 별도의 수수료를 내는데, 수수료는 신앙공동체의 순수익에 따라 차등이 있다. 이렇게 모인 돈은 퀴어긍정 사역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연간 6회의 뉴스레터와 기타 커뮤니케이션에 드는 비용을 지불하고, 교단 내 여러 교회가 퀴어긍정 사역을 시작하는데 도움을 주고, 연례 콘퍼런스와 총회뿐 아니라 어썸 유나이티드 전국협의회의 비용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Q. 연합교회 내 모든 신앙공동체가 동성 결혼식을 거행하는가?

A. 아니다. 그 결정은 사역지 별로 이뤄진다. 모두에게 결혼식을 제공하는 곳도 있고, 이성애자 커플에게만 결혼식을 제공하는 곳도 있으며, 자기 교회의 목사가 교회 밖에서 하는 동성 결혼식의 주례를 보도록 허용하는 곳도 있다.

Q. 모든 퀴어긍정 사역지가 동성 결혼식을 진행하는가?

A. 그렇다. 이는 퀴어긍정 사역지로 선포하기 위해 갖춰야 할 필수 요건 중 하나이다. 이성애자 커플과 동성 커플에게 결혼식을 비롯하여 모든 권리와 특권을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

Q. 우리 신앙공동체가 퀴어긍정 사역지가 된다면 동성애자 교회가 된다는 뜻인가?

A. 아니다. 퀴어긍정 사역지에는 다른 모든 캐나다연합교회 신앙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젠더소수자와 성소수자뿐 아니라 이성애자 커플, 가족, 노인, 어린이, 청소년, 비혼 등 다양한 구성원과 지지자가 있다. 대개 퀴어긍정 사역지에서 성소수자들은 안전하고 지지받는 공간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 눈에 더 잘 띄고 활동적이다. 종종 동성 커플들은 자녀들이 퀴어긍정 사역에 함께하기를 바라는데, 이 또한 퀴어긍정 사역지의 비판적이지 않고 지지적인 분위기 때문이다. 많은 이성애자도 같은 이유에서 퀴어긍정 사역지를 선택한다. 다양한 삶의 여정을 걸어온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분위기에서 어린이, 청소년, 성인 모두가 신앙 속에서 성장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Q. 퀴어긍정 사역지가 되면 구성원이나 기부자를 잃게 되지는 않을까?

A. 퀴어긍정 사역지가 되기로 결정하면 일부 교우를 잃기도 한다. 보통 그렇게 떠나는 이들은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완고하게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대부분 사역지는 퀴어긍정 사역지가 되면서 교우가 늘어나고 활력이 배가된다. 사람들은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들의 비전과 사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을 환영하는 신앙공동체에 매력을 느낀다.

Q. 캐나다연합교회의 퀴어긍정 사역지는 얼마나 많이 있는가?

A. 2020년 현재 신앙공동체와 지역협의회, 전국 조직, 교육 기관, 캐나다연합교회 내 여성 조직, 대학 교목실, 요양 기관을 포함하여 220여 개의 퀴어긍정 사역지가 있다. 일부 캠프 사역제도 퀴어긍정 사역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모두 합하면 캐나다연합교회 전체 사역지의 10%에 가깝다. 특히 소규모 공동체와 비신앙공동체 사역지 가운데서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Q. 단순히 “모두를 환영한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한가? 비전선언문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라는 말을 명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첫째, 너무 많은 그리스도교인이 배타적인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왔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다. 둘째,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환영한다고 말하는 많은 교회가 실제로는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지닌 이들을 전혀 포용하지도 환영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모두(all)’ 또는 ‘누구나(everyone)’라는 말에 실제로 누가 포함되는지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소외된 집단의 사람들은 지원하고자 하는 이들에게조차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인권은 불의한 이슈들이 더욱 가시화되었을 때 비로소 성취되어왔다. 퀴어긍정 사역은 환영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공개적·의도적·명시적으로 표현한다.

Q. 어퍼 유니티드와 캐나다연합교회는 어떤 관계인가?

A. 어펄 유나이티드는 캐나다연합교회의 협력 단체이다. 어펄 유나이티드는 독립적으로 설립된 자선 단체로서, 회원(주로 연합교회 회원 교회와 사역지)들은 단체의 활동을 지지하는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 어펄 유나이티드는 연합교회의 변화를 기뻐하는 동시에 교회가 그 소명에 충실하도록 계속 도전하고 있다.

Q. 퀴어긍정 사역지임을 선포하는 기념식이 퀴어긍정 사역지가 되기 위한 절차의 끝인가?

A. 기념식은 중요한 이정표이지만, 퀴어긍정 사역의 의미를 실천하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의 일부일 뿐이다. 퀴어긍정 사역은 지속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는 여전히 더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안다. 퀴어긍정 사역은 사역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얻어가며 그리고 모든 창조세계의 치유와 온전함을 위해 행동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며 계속 성장하고 변화한다.

반대와 두려움,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들

퀴어긍정 사역지가 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움직임에 강경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곤 한다.

이러한 반대는 퀴어긍정 사역의 의미를 오해한 데서 비롯하기도 하므로 사역에 대한 명확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게이 교회”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 사역지나 구성원들이 공격(기물 파손, 지역사회에 가혹한 반응 또는 배척, 따돌림, 아이들에 대한 괴롭힘과 기타 부정적 영향)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비롯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지만, 정보를 제공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 우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른 퀴어긍정 사역지들과의 교류도 우려하는 이들을 안심시킬 수 있다.

그러나 동성애가 죄악이고 성서적이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굳게 믿는 이들도 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신념에는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를 향한 강한 혐오가 수반되기도 한다. 아무리 설득력 있는 논증과 분석을 제시한다고 해도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생각을 바꾸도록 강요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밝혀졌다. 때로는 그저 의견 차이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다. 영화 <성경에 써 있네(For the Bible Tells Me So)>(www.forthebibletellsmeso.org)는 이러한 견해를 고수하는 사람들의 관점, 그리고 이러한 신념이 성소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의 조언들은 자체적으로 연구의 과정을 거치고 퀴어긍정 사역지가 되기로 결정한 연합교회 신앙공동체의 제안들이다.

서둘러 진행하지 않기

퀴어긍정 사역지가 되는 과정을 경험한 사역지들이 첫째로 꼽는 조언은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가지라는 것이다. 결정할 때가 되었다는 외부의 요인들보다는 구성원들의 필요에 따라 일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새로운 관점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결정을 강요하지 않는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새로운 퀴어공정 사역 비전선언문을 가지고 1년의 시범 기간을 지내보기로 하는 신앙공동체도 있다. 아직 퀴어공정 사역지가 될 때가 아니라고 느껴지면 더 연구하면서 기다리기로 결정하는 신앙공동체도 있다. 지금이 신앙공동체가 퀴어공정 사역지가 되기 위한 적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정의와 포용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둔다.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관계를 발전시키기

진솔한 대화를 할 기회와 신뢰가 있고, 서로의 이야기와 경험을 들으며 계속 가까워지는 튼튼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저녁 식사에 누가 올지 맞추기(guess who is coming to dinner)’ 같은 이벤트나 정기적인 포트럭 공동식사, 또는 서로 모르거나 잘 어울리지 않았던 사람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는 친교 시간을 마련하기로 할 수 있다. 이런 친교 모임을 꾸릴 때는 공동체 내 여러 그룹을 최대한 다양하게 섞어 구성한다. 더 큰 규모의 회의에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기 전에 사람들과 논의하는 소그룹 회의(home meeting)를 연다.

지속적인 대화의 장 만들기

퀴어공정 사역지 신청 과정에 대한 피드백과 최근 소식을 공지 사항과 게시판에 정기적으로 게시한다. 예배 시간(설교, 공지 사항, 선교 보고 등)을 활용하여 신앙공동체가 진행 중인 과정을 설명하고, 어려운 성서 구절에 대해 이야기하고, 주요 용어를 정의한다. 뉴스레터, 교회 블로그, 답변을 적을 수 있는 마커와 게시판, 의견함, 마음속에 있는 것을 무엇이든 나눌 수 있는 피드백 서클 등을 만들어 피드백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사람들이 질문이나 의견, 우려 사항을 게시할 수 있도록 화장실에 빈 종이를 비치해둔다(실제로 한 교회에서 큰 성공을 거둔 바 있다). 사람들이 질문할 기회를

제공하되 그 시간이 의견 피력이나 토론이 아닌 진짜 질문을 할 기회가 되게 한다. 다른 사람들의 질문이나 우려 사항을 적극적으로 요청한다.

용어와 절차, 용어의 정의를 분명하게 설명한다. 절차 진행 과정 중에 설명하는 시간을 자주 마련해서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 무슨 말을 하는지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가정하지 않는다. 했던 말이라도 다시 반복한다. 게시판, 뉴스레터, 광고 시간을 활용하여 정보를 반복해서 제공한다.

젠더소수자와 성소수자의 경험에 귀 기울이기

지역의 퀴어긍정 사역지에서 활동하는 이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한다. 지역 행사와 지역 퀴어긍정 사역지에 방문단을 파견한다. 설교, 워크숍, 영화 상영회나 낭독회, 소그룹 모임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젠더소수자와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를 많이 제공한다. 초청 강사나 자료 제공자에게 연락하는 방법은 3부의 ‘관련 기관 링크’를 참조하라.

영적 여정으로 초대하기

신앙공동체 또는 사역공동체 전체를 영적 여정에 초대하여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대화, 모임, 워크숍에 기도와 침묵의 시간을 포함한다. 촛불을 켜고 다른 예배 상징과 의례를 사용하여 기도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긴장감이 돌면 모든 사람에게 심호흡을 몇 번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도록 요청한다. 성령의 임재를 요청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비전에 자신을 열도록 참가자들을 격려한다. 각 모임이나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감사나 염려의 기도를 나누도록 초대한다.

모든 모임에서 정기적으로 침묵의 시간을 갖는다. 특히 논쟁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경우 사람들이 중심을 잡고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시간을 준다.

모두에게 말할 기회를 제공하기

사람들의 우려 사항을 주의 깊게 경청한다. 상대방 말에 서둘러 대답하거나 반박하기 전에 그들이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 기회를 준다. 정의에 대한 헌신에 타협하지 않으면서 다른 의견과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포용한다. 예컨대 성서에 대하여 자신의 믿음을 가질 권리나 윤리적 행동이라고 느끼는 바를 믿을 권리가 모두에게 있음을 확실히 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본적인 이해에 동의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공유할 수 있으며, 저임금 노동자나 게이, 레즈비언, 선주민, 소수 민족, 트랜스젠더, 양성애자, 급진적 활동가, 전업주부 등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다.

사역지의 모든 위원회와 그룹들을 개별적으로 만난다. 퀴어긍정 사역지가 되는 것이 해당 그룹의 사역에 어떠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보도록 각 그룹에 요청한다. 그룹 안에서 두려움과 희망에 대해 대화를 나누도록 장려한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을 요청하고, 위원회나 그룹 모임에서 나눌 수 있도록 한다. 특정 의견의 장점을 두고 토론하기보다는 서로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경청하도록 장려한다.

의견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가능하다면 소외된 사람들뿐 아니라 퀴어긍정 사역지가 되는 과정에 반대하거나 이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안전한 공간을 마련한다. 사람들의 마음이나 신념을 바꾸려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지 말고,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임을 강조한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공유하고, 퀴어긍정 사역지가 된다면(여기에 반드시 동의할 필요는 없다) 어떻게 될 것 같은지를 열린 마음으로 솔직하게 생각해보도록 격려한다. 자신의 핵심 가치나 신념을 바꾸도록 강요당한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자신이 우선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기꺼이 수용하기도 한다.

스토리텔링은 자기 삶의 이야기와 경험을 나눔으로써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과 신념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사람들이 배제와 포용의 경험, 기존의 신앙이

도전받은 경험, 섹슈얼리티와 성별 다양성에 대한 경험을 나눌 기회를 많이 만든다.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퀴어긍정 사역지 신청 과정 초기에 지침이나 그룹 규약을 정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고 느끼도록 한다. 다음과 같은 지침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기로 함께 약속한다.

- 대답할 말을 생각하지 않고 경청한다. 끼어들지 말고 다른 사람이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린다. 발언과 발언 사이에 잠시 멈추어 기다린다.
- 말을 많이 했다면 다른 사람이 말하도록 기다린다.
- 자신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가정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 가치와 경험, 신념을 공유한다.
- 하나의 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 토론보다는 상대방을 존중하며 경청하는 태도를 장려한다.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신념과 의견을 갖도록 장려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견해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변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한다.

일반적인 의견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 감정이나 경험에 관해 이야기하는 ‘나 전달법’을 사용한다. 즉 “...하는 것은 잘못이다”, “성서는 ...라고 말한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처럼 일반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는 방식이 아니라 “나는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할 때 매우 불편하다”, “나는 이 성서 구절이 ...를 의미한다고 이해한다”와 같이 말한다.

논의를 확산하고 다양한 관점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특정 이슈에 관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는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격려한다.

“그렇습니다” 또는 “동의합니다/반대합니다”와 같이 응답함으로써 서로의 의견을 판단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도록 요청한다. 격렬한 논쟁이나 언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피한다.

외향적인 사람들이 발언을 독차지하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룹 토론 중에 잠시 멈추고 사람들이 조용히 생각한 뒤 답변을 적게 하거나, 소그룹으로 나누거나, 또는 그룹에 속한 모든 사람이 차례로 돌아가며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사람들이 짝을 지어 이야기하거나,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세 명씩 그룹으로 만나게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캐나다연합교회와 성별 다양성 및 성적 지향 이슈

캐나다연합교회가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

총회(General Council)는 캐나다연합교회 전국 단위 운영위원회(governing body)로 3년마다 개최된다. 총회 회원은 연합교회 지역협의회가 교회 전체에서 선출한다. 총회는 연합교회 총회장(Moderator)이 주재하며, 3년 임기의 총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총회는 지역협의회가 제출한 권고안(청원서)을 검토하고, 전국 연합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한다. 주요 정책 변경은 모든 신앙공동체가 참여하는 전체 교회의 광범위한 연구와 협의를 거친 뒤에만 이루어진다. 연합교회 정책은 수많은 권고와 보고서를 통해 수년에 걸쳐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다.

다음은 성별 다양성과 성적 지향 이슈에 관한 연합교회의 주요 정책을 요약한 것이다.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위한 포용과 정의

연합교회는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하나님의 선물이며, 창조세계의 놀라운 다양성의 일부"라고 믿는다. 연합교회는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에게 대한 완전한 포용을 공식적으로 지지한다. 연합교회는 모든 사람이 연합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모든 구성원은 평신도 사역자 또는 성직자를 고려할 자격이 있다. 연합교회는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지닌 사역자를 안수하고 파송한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나 연합교회의 입장이었던 것은 아니다. 1988년에 연합교회는 레즈비언이나 게이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거나 사역자가 될 수 있다고 선언했다. 2000년에 연합교회는 동성애가 죄라고 1960년에 발표한 성명을 폐기했다. 연합교회는 동성애에 대한 과거 연합교회의 입장 때문에 입은 피해를 치유할 방법을 모색했다.

1970년대부터 연합교회는 성별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택, 의료, 고용, 교육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비롯해 모든 권리가 동등하게 부여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가족. 연합교회는 가족이 항상 어머니와 아버지, 자녀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한다. 교회는 동성 커플 가족, 자녀가 있거나 없는 가족, 비혼 가구 등 다양한 가족 구성을 긍정하고 지지한다.

결혼. 연합교회는 하나님이 인간관계를 “신실하고,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고, 건강함으로 모시고, 치유하고, 공동체와 자신을 지탱하도록” 의도하셨다고 믿는다(〈멤버십, 사역, 섹슈얼리티(Membership, Ministry, and Human Sexuality)〉, 1988). 이는 모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연합교회는 결혼이 성별에 관계없이 두 사람 사이의 평생 약속이며 결혼 서약은 영속성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확신한다.

동성 결혼 또는 평등 결혼. 2003년 연합교회는 캐나다 정부에 연방법에서 동성 결혼, 즉 평등 결혼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교회는 공식적으로 동성 커플 간의 결혼을 지지한다. 연합교회의 각 신앙공동체는 자체적으로 결혼 정책을 정하므로 모든 신앙공동체가 평등 결혼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어떤 목회자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평등 결혼을 강요받지 않는다. 하지만 캐나다의 모든 주와 주요 도시의 많은 신앙공동체와 목회자가 동성 커플의 결혼식을 거행한다.

퀴어긍정 사역. 2000년에 연합교회는 어퍼 유니티드의 퀴어긍정 사역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연합교회에 소속된 신앙공동체들이 퀴어긍정 사역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교회는 교회가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을 포용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있다. 동성 커플 가족과 트랜스젠더를 지원하기 위한 자료도 제공한다. 1994년 연합교회 총회는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를 증진하는 일에 있어서 어퍼

유나이티드가 교회에 제공한 리더십에 감사를 표했다.

성소수자 청소년. 연합교회는 다양한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지닌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표명해왔다. 예컨대 1997년 연합교회는 관내 교육청에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를 괴롭힘 금지 정책에 포함하도록 촉구하고, 모든 도서관에 성소수자 이슈를 세심하게 다루는 책들과 기타 자료를 비치할 것을 요청했다. 연합교회는 교사 노조에 관용을 장려하고 성소수자 이슈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으며, 신앙공동체가 다양한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지닌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투스피릿. 연합교회는 투스피릿을 위한 정의를 지지한다. 2017년 어펄 유나이티드와의 공동 프레젠테이션의 일환으로 11개국에서 온 약 40명의 성소수자, 투스피릿, 이성애자와 시스젠더 앨라이들이 라마 선주민(Rama First Nation)의 치페와(Chippewas) 영토에 있는 온타리오주 카우치칭 호수(Lake Couchiching) 기슭에 모였다. 이들의 목표는 서로를 지지하고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었다. 이때 투스피릿 참가자들은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성서. 성서는 연합교회의 중심으로, 교회는 성서와의 관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 우리는 성서를 읽고 해석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 문화, 국가, 공동체에 깊은 영향을 받는다. 성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모든 창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발견하도록 초청받는다. 노예제를 용인하거나 여성, 어린이 또는 환경에 대한 지배 논리를 지지하기 위해 성서를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다양한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지닌 사람들이나 동성 관계에 대한 혐오와 정죄를 조장하는 데 성서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성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2부: 퀴어긍정 사역을 위한 교육과 분별, 실행 계획

2부에서는 퀴어긍정 사역과 사역자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 활동과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이슈를 탐색한다.
- 성서를 다룬다.
- 퀴어긍정 사역지가 되는 것의 의미를 발견한다.
-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더욱 포용적이고 퀴어긍정적이 될 수 있는지 탐색한다.
- 퀴어긍정 사역 비전선언문 또는 실행 계획을 작성한다.
- 성소수자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활동이나 성소수자를 위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한다.

퀴어긍정 사역지에 이르는 단 하나의 길은 없다. 여기서 제시하는 아이디어는 채택하고 수정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다. 예컨대 일일 특강, 연속 워크숍, 예배 후의 단기 학습 모임, 설교에서 다룬 주제에 대한 토론 시간 등을 가질 수 있다.

시작과 마무리

다음은 퀴어긍정 사역지가 되기 위한 분별 과정에서 진행하는 워크숍과 기타 모임의 시작과 마무리에 대한 제안이다.

공간 준비

매력적이고 머물고픈 공간을 꾸민다. 편안한 의자를 둥글게 배치하고, 꽃을 가져오고, 촛불을 켜고. 주스나 물, 간식이 필요할지, 조명이 적절하고 눈부시지는 않은지, 실내 온도는 어떤지 등 몸이 편안하도록 특히 주의를 기울인다. 활동이나 워크숍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한다.

참가자를 환영한다. 모두의 이름을 부르며 따스하게 인사하고, 경청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격려한다. 게스트나 새로 온 참가자를 소개하고 모두 서로를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름표를 사용해도 좋다. 촛불을 켜고 침묵의 시간을 갖는다. 사람들이 공간에 안착해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도록 돕는다.

여는 기도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연민의 영을 불어넣어 주소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우리 귀를 열어주소서. 여기 모인 각 사람의 얼굴에서 당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우리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열어 당신의 현존과 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소서.
부드러운 영이여,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지혜로운 영이여, 우리를 당신의 진리로 채우소서.
정의의 영이여, 우리를 연민으로 이끄소서.
성령이여,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소서.
아멘.

하나님, 당신은 사랑입니다. 당신은 가족 간의 사랑이고, 친구 간의 사랑이며, 세상 모든 사람을 한 가족으로 만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감사하고, 가족에 감사하고, 당신께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게 도우소서. 아멘.

환영하시는 하나님, 당신은 이 시간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분별력으로 듣고, 성령 충만한 배려로 말할 수 있게
도우소서. 서로의 목소리에서 당신의 음성을 듣고, 서로의 얼굴에서 당신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서 함께 하는 행동과 말이 사랑과 정의, 치유를 향한
당신의 사역의 일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환영하시듯 서로를 환영하세요. 그리스도의
평화를 서로에게 전합니다.

닫는 기도

(둥글게 둘러서서 한 사람씩 축복을 나눈다.)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거룩하고 온전합니다.” 또는 “평안히 가십시오. 당당하게 가십시오.
사랑이신 하나님과 함께 가십시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우리가 이곳을 떠날 때 우리와 함께하소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부드러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소서. 당신이
창조한 만물을 향한 당신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를 온전히
열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당신의 선하심과 정의의 길을 구합니다. 당신의 지혜와
희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당신의 가능성으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소서. 아멘.

퀴어긍정 사역: 기본 사항

다음은 퀴어긍정 사역이란 무엇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 워크숍이다. 선택 사항에 따라 1~3시간이 소요된다.

진행자 준비 사항

퀴어긍정 사역에 관한 정보를 모임에서 어떻게 공유할지 다음 세 가지 선택 사항 가운데 고른다.

- 선택 사항 1. 외부 강사를 초대한다. 3부의 관련 기관 링크를 참고한다. 퀴어긍정 사역을 하면서 강사가 경험한 바를 발표해주길 요청한다. 강사가 속한 사역지가 퀴어긍정 사역지가 되기로 한 이유는 무엇인지, 퀴어긍정 사역지가 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연구와 분별 과정은 어떠하며 그 과정에서 사역이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했는지, 퀴어긍정 사역지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등의 주제를 다루도록 요청한다.
- 선택 사항 2: 영상을 시청한다. <P.I.E., 리버사이드 연합교회의 ‘퀴어긍정 교회 되기’(P.I.E., Riverside United Church’s Being an Affirming Church)> 또는 어펌 유나이티드 웹사이트(<https://affirmunited.ause.ca/videos>)에 있는 다른 소개 영상들을 시청한다.
- 선택 사항 3: 퀴어긍정 사역에 관한 문서 자료를 활용한다. 1부의 ‘어펌 유나이티드와 퀴어긍정 사역 프로그램’, ‘우리는 이미 모두를 환영하는데 왜 굳이 퀴어긍정 사역지가 되어야 하는가?’, ‘퀴어긍정 사역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과 ‘퀴어긍정 사역 비전선언문 예시’의 복사본을 만든다.

활동 안내

소그룹으로 나누어 참가자들에게 아래 질문에 답하도록 하고 한 사람이 전지에 기록한다.

- 퀴어긍정 사역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 퀴어긍정 사역에 대해 무엇이 궁금한가?
- 퀴어긍정 사역지가 되는 데 대한 두려움과 우려는 무엇인가?

그룹 전체가 모여서 전지를 게시하고, 열거된 정보와 질문, 두려움과 우려 사항을 기록하여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취합한다. 그룹에서 퀴어긍정 사역에 관해 몇 가지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모든 질문에 답할 수는 없지만, 여러 질문이 조명되길 바란다. 그룹에게 이 시간은 입문 세션이며 앞으로 더 많이 이야기 나누고, 더 많이 배울 기회가 있을 것임을 상기시킨다.

선택 사항 1: 퀴어긍정 사역을 하는 외부 강사와의 대화(1시간)

초청 강사를 소개하고 그룹과 이야기하도록 한다. 질문과 대화 시간을 마련하고, 끝날 무렵 다음과 같이 묻는다.

-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질문은 무엇인가?
- 향후 세션에서 더 알고 싶거나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선택 사항 2: 영화·비디오 상영(1시간)

어펌 유나이티드 웹사이트(<https://affirmunited.ause.ca/videos>)에 소개된 비디오 중 하나를 시청한다. 그중 <P.I.E., 리버사이드 연합교회의 ‘퀴어긍정 교회 되기’>는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 토론할 내용
 - 영상에서 어떤 점이 눈에 띄었나?
 - 퀴어긍정 사역지가 되는 것의 의미 중 무엇을 발견했나?
 - 영상을 보면서 어떤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떠올랐나?

선택 사항 3: 퀴어긍정 사역에 관한 문서 자료 사용 (45분)

이 자료집 1부의 ‘어썸 유나이티드와 퀴어긍정 사역 프로그램’, ‘우리는 이미 모두를 환영하는데 왜 굳이 퀴어긍정 사역지가 되어야 하는가?’, ‘퀴어긍정 사역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과 ‘퀴어긍정 사역 비전선언문 예시’ 유인물을 나눠준다. 유인물을 읽고 다음의 내용을 토론한다.

- 어떤 정보가 새로웠나?
- 어떤 질문이 남아 있는가?
- 퀴어긍정 사역에 대한 새로운 질문이나 우려 사항은 무엇인가?

스토리텔링 서클

스토리텔링 서클(Storytelling Circles)은 모든 참가자가 자신의 개인적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어려움과 희망, 성장,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경청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의 다양성을 긍정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고 수용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워크숍이다.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것은 경험과 정체성의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면서 더 큰 공감과 연민, 이해를 쌓는 데 도움이 된다.

진행자 준비 사항

스토리텔링의 초점을 정한다(위의 선택 사항 참조). 참가자들이 스토리텔링 서클에 등록하도록 안내한다. 참가자에게 미리 연락하여 나눌 만한 개인적 경험을 준비하게 한다.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룹에 기꺼이 이야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험을 생각해보라고 요청한다. 참가자들이 스토리텔링의 초점을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스토리텔링 서클의 이상적 규모는 5~15명이다. 참가자가 20명 이상이면, 그룹을 나누어 두 세션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전체 그룹이 두 개의 스토리텔링 세션을 함께 경험하게 하는 등 두 번 이상의 스토리텔링 시간이 필요하다.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사람들은 그룹의 규모에 따라 스토리텔링 시간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다. 스토리텔링은 보통 3~5분쯤 소요되며, 조금 더 오래 걸리기도 한다. 각 스토리텔링 서클에는 특정 초점이나 주제가 있어야 한다. 아래는 세 가지 제안이다. 각 주제로 각각 1.5~2시간 동안 진행한다.

1. 언제 배제나 차별을 경험했는가? 스토리텔링의 초점: 자신의 어떤 면(피부색, 계층, 민족, 성별, 성적 지향, 나이, 장애, 사회적 위치 등) 때문에 배제, 차별, 상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는지 그 경험을 나눈다.
2.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문제가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스토리텔링의 초점: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삶에 영향을 미쳤거나 영향을

미친 방식(성소수자로서, 성소수자의 친구나 가족, 이웃, 동료로서, 의료계 종사 등 특정 경험으로 인해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3.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스토리텔링의 초점: 자신의 정체성 일부(나이, 경제적 배경, 문화적 배경, 출신 국가 등)를 드러내는 삶의 시간이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을 나눈다.

활동 지침

그룹에 스토리텔링의 초점을 상기시킨다.

- 다른 사람 경험이 아닌 자기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를 나눈다.
- 인생 전부를 이야기하려 하지 말고 특정한 이야기를 한다.
- 의견을 제시하거나 일반적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고 구체적인 경험을 이야기한다.
- 맛과 색, 질감 등 자신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비롯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설명한다. 다른 사람들이 그 경험 속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장면을 묘사하거나 무대를 설정한다.
- 온전히 집중해서 경청한다.
-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무엇을 말할지 걱정하지 않는다.
- 내면의 판단이나 비평을 최대한 접고 열린 마음으로 경청한다.
-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끼어들지 않는다.

참가자들을 거룩한 경청의 시간으로 초대한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 경험을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고 말해준다. 이야기를 마칠 때마다 잠시 멈춰서 그룹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한 사람에게 시작해달라고 요청한다.

각자의 이야기가 끝나면, 그룹의 다른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나눌 시간을 갖는다. 긍정적인 반응이란 “나는 ...에 대한 당신의 설명이 마음에 들었어요” 또는 “나는 당신 경험에 정말 공감했어요”와 같은 감사의 말, 고개를 끄덕이는 행위나 간단한 코멘트를 뜻하는 것임을 그룹에 상기시킨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한 판단, 반박이나 토론이 아니며,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시간도 아니다.

계속해서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하도록 한다. 필요하면 스트레칭을 하거나 다과를 나누며 잠시 휴식한다.

성찰의 시간

모든 이야기를 마치면 참가자들에게 경청한 내용과 감동받은 점에 대해 조용히 글을 쓰거나 생각할 시간을 준다.

토론 시간에는 인원이 많다면 소그룹으로 나뉘어도 좋고, 전체 그룹 그대로 진행해도 좋다.

토론을 위한 질문 예시

- 스토리텔링 시간에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
- 어떤 이야기가 공감을 불러일으키거나 자신의 이야기와 특별히 연결되는 듯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들은 이야기 중 마음에 걸리거나 도전이 되었던 부분이 있는가?
- 어떤 질문이 남아 있는가?
- 스토리텔링 시간 동안 당신이 주목한 일반적 주제는 무엇인가? 또는 여러 번 등장한 이슈가 있었는가? (전지에 기록해둔다.)
-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 공동체가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을 환영하고 긍정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진행되는 분별 과정에서 다시 참조할 수 있게끔 기록해둔다.)

성서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슈들

이 워크숍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이슈에 관한 논의에서 성서의 역할과 중요성에 초점을 둔다. 참가자들은 성서에 대해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이 주제에 대해 성서가 무엇을 말하며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어왔는지, 우리 지침으로서의 성서의 역할은 무엇인지, 어떻게 성서가 성소수자들을 반대하는 데 이용되어왔는지, 그리고 성서가 어떻게 젠더소수자와 성소수자에게 “공포의 텍스트” 또는 축복의 텍스트가 될 수 있는지를 탐구할 것이다.

활동 1: 성서에 대한 믿음의 스펙트럼(20분)

진행자 준비 사항

마스킹테이프를 사용하여 배움의 공간 중앙에 긴 선을 만든다(최소 2.5미터 길이로 가급적 더 길게). 선의 한쪽 끝에 체크 표시(V)와 ‘동의함’이라고 쓴 종이를 붙인다. 반대편 끝에서도 잘 보이도록 크게 쓴다. 선의 다른 쪽 끝에는 큼지막한 엑스 표시(X)와 ‘동의하지 않음’이라고 쓴 종이를 붙인다.

다음과 같이 성서에 관한 몇 가지 진술을 준비한다.

- 나의 그리스도교 신앙은 성서에 근거한다.
- 성서는 문자 그대로 읽을 수 없다.
-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 성서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 성서가 기록된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성서를 이해할 수 없다.
- 성서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다.

활동 지침

사람들을 선의 중간 지점 가까이 모이게 한다. 성서에 관한 진술을 몇 가지 읽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선의 한쪽 끝은 ‘동의함’이고 다른 쪽 끝은 ‘동의하지 않음’이며, 각 진술을 읽을 때마다 참가자들은 그 선 어디에 있을지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참가자가 정말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음’ 쪽 끝으로 가도록 한다. 강하게 동의한다면 ‘동의함’ 쪽 끝으로 이동한다. 확실하지 않거나 혼란스럽다면 중간쯤에 위치하도록 한다. 정답은 없다고 말한다. 이 활동은 다양한 관점과 아이디어를 나누기 위한 활동이다.

첫 번째 진술을 읽고 사람들이 선의 여러 지점으로 이동하게 한다. 진행자는 마치 거리의 리포터가 된 것처럼, 선의 다른 지점에 서 있는 몇 명의 참가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다. 계속해서 다른 진술을 읽고, 다른 참가자들에게 왜 그와 같은 선택을 했는지 이야기해주길 요청한다. 대여섯 개의 진술을 진행하거나 사람들이 성서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주요 아이디어가 제기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계속한다.

토론할 내용:

- 성서가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시간은 성서 내용을 두고 토론하는 시간이 아니며, 성서가 말하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따로 있을 거라고 설명한다. 이 시간은 일반적인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다.)
- 성서는 우리가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길 요청한다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그렇게 믿게 되었나?
- 퀴어긍정 사역지가 되기로 결심하는 데(또는 우리는 퀴어긍정 사역자로 사는 데) 성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활동 2: 영화 <성경에 써 있네(For the Bible Tells Me So)> 상영(2시간)

진행자 준비 사항

www.forthebibletellsmeso.org에서 영화를 구하거나 아마존 같은 곳에서 구입해 준비한다. 시청 장비를 준비하고, 이 영화가 일부 시청자에게 충격을 줄 경우를 대비하여 지원과 목회적 돌봄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섭외한다. 특히 폭력을 경험했거나 가족 중 자살한 사람이 있다면 각별히 주의한다. 영화에서 자살을 경험한 가족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다.

활동 지침

이 영화는 미국의 다양한 그리스도교인 가족에 관한 이야기이다. 성적 지향을 다루는 성서 구절과 주제에 대한 훌륭한 개요를 제공하며, 이 주제를 소개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성서가 이 주제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 성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말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은 사람들, 성서가 동성 관계를 정죄하는 것을 정당화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 사람과 그 가족의 삶을 통해 성서, 종교적 권리, 동성애 혐오, 성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인간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화 <성경에 써 있네>를 소개한다. 영화 중 보기 힘들거나 불편한 장면이 있을 수도 있음을 모두에게 알린다.

영화를 상영한다.

워크숍 참가자들에게 그룹 내 다른 사람과 짝지어 영화에 대한 첫인상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이 영화가 자신의 경험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함께 나누도록 요청한다.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이야기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큰 그룹으로 모인다. 이 영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토론하도록 한다. 토론

시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활용한다.

- 성소수자들을 해치거나 상처 주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성서가 어떻게 이용되어왔는가?
- 이 영화를 통해 새롭게 배우거나 발견한 점은 무엇인가?
- 이 영화에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걸렸는가?
- 이 영화가 어떤 질문이나 우려를 불러일으켰는가?
- 이 영화에 어떻게 응답해야 한다고 느끼는가?
- 성서가 치유나 정의를 위해 어떻게 사용될 수 있겠는가?

활동 3: 윤리적 지침으로서의 성서에 관한 성찰(40분)

진행자 준비 사항

성서, 펜, 다음 장의 활동 자료 ‘성서 구절과 일상생활’ 복사본을 준비한다.

활동 지침

활동 자료 복사본을 나눠주고, 각 성서 구절에 대해 답하도록 요청한다. 성서 구절을 찾아보고 싶은 사람을 위해 성서를 준비해둔다.

답한 뒤에는 다음과 같은 토론 질문을 활용하여 대화를 유도한다.

- 어느 성서 구절이나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 일상에 중요한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성서가 명령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키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 성서의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당신의 윤리적 의사 결정에 성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 성서를 성적 지향에 대한 특정 관점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활동 자료: 성서 구절과 일상생활

아래는 몇 가지 성서 구절이다. 일상생활에서 성서의 가르침을 얼마나 충실히 따르고 실천하는지 각 구절에 해당하는 응답을 표시하라.

이 성서의 법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항상 실천한다	성서의 정신을 준수한다	따라야 하지만 못할 때가 많다	무시한다	실천해서는 안 된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눅 18:22)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하라. (엡 6:5, 골 3:22)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살전 5:17)					
원수를 사랑하라. (마 5:44)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엡 5:22)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눅 10:27)					
돈을 꾸어줄 때 외국인에게가 아니면 이자를 받지 말라. (신 23:19~20)					
동성과 성관계를 하는 이들은 죽어 마땅하다. (롬 1:26~32)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자코 있어야 한다. (고전 14:34)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라. (미 6:8)					
두 종류의 씨를 함께 심지 말라. (신 22:9)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고전 5:9)					
남자가 같은 남자와 동침하면 사형에 처해야 한다. (레 20:13)					
도둑질하지 말라. (출 20:15)					
몸에 문신을 해서는 안 된다. (레 19:28)					
새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신 14:9)					
신부가 처녀가 아니라고 신랑이 주장하고 신부의 가족이 그의 처녀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신부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신 22:19~20)					

활동 4: 비탄과 염원의 교독문(1시간)

진행자 준비 사항

참가자 수만큼의 성서, 마커와 전지, 테이프, 다음 성서 구절을 적은 종이를 준비한다.
(레위기 18:22, 레위기 20:13, 신명기 22:5, 로마서 1:18~32, 고린도전서 6:9~10,
디모데전서 1:9~10)

활동 지침

성서를 나눠주고 종이에 적힌 성서 구절을 돌아가며 큰소리로 읽도록 한다.

다 읽은 뒤 성서가 말하는 내용을 목록으로 만들어보라고 요청한다.

- 어떤 행동을 정죄하고, 어떤 행동을 용납하는가?
- 정죄할 행동에 대한 처벌이 명시되어 있다면 어떤 처벌이 있어야 하는가?
- 이러한 성서 구절들이 젠더소수자와 성소수자를 해하고, 비난하고, 그들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하는 데 어떻게 이용되어왔는가? (전지에 적어둔다.)

여섯 개 소그룹으로 나누거나 짝을 지어서 각 구절을 시작점으로 삼아 비탄과 염원의 교독문(각 구절과 관련하여 성소수자에게 준 상처나 불의에 대한 애가)을 작성하도록 한다. 여섯 구절을 각 그룹에 하나씩 할당한다.

비탄의 예:

- 우리는 게이에 대한 공격과 트랜스젠더에 대한 폭력을 통탄한다.
- 우리는 학교에서의 욕설을 통탄한다.

- 우리는 하나님에게 정죄 받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수치심을 통탄한다.
- 우리는 동성애자 청소년이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통탄한다.
- 우리는 “하나님은 호모를 증오한다(God hates fags)”라는 팻말을 통탄한다.

염원의 예:

- 우리는 아이들이 게이가 나쁜 말이 아님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 우리는 퀴어, 트랜스 또는 미정자 청소년들이 친절과 지지를 경험하기를 바란다.
- 우리는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에게 안전한 거리가 되기를 바란다.
- 우리는 교회가 성소수자 성도들의 은사를 기뻐하기를 바란다.

각 그룹이 비탄과 염원의 교독문을 준비했다면, 모두 함께 모여 다음 순서대로 비탄과 염원의 교독문을 낭독한다.

1. 성서 구절을 낭독한다.
2. 그 구절에 대한 비탄의 교독문을 낭독한다.
3. 그 구절에 대한 염원의 교독문을 낭독한다.

낭독을 마친 뒤 침묵의 시간을 갖거나 ‘보이시스 유나이티드(Voices United)’, ‘모어 보이시스(More Voices)’ 또는 어펄 유나이티드 웹사이트에서 고른 찬양곡을 부른다.

활동5: 공포의 텍스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읽기(1시간)

진행자 준비 사항

성서, 전지, 마커, 아래에 나오는 ‘소그룹을 위한 지침’ 유인물

활동 지침

비이성애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이야기할 때마다 자주 언급되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읽을 것이라고 참가자들에게 설명한다.

소돔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는 곳이다. 지금 읽을 이야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긴 대화 뒤에 등장하는데, 이 대화에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악함을 한탄하자 아브라함은 그 성읍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과 흥정하려 애쓴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은 선한 사람 열 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참가자들에게 창세기 19:1~29를 읽도록 한 뒤 다음 질문을 던진다. 어떤 행동이 정죄 대상이 되었는가? 어떤 징벌을 받았는가? 답변을 전지에 기록한다.

참가자들을 다섯 그룹으로 나눈다. 각 그룹에 그룹 번호와 ‘소그룹을 위한 지침’ 유인물을 나눠준다. 각 그룹에 다음 관점을 하나씩 배정한다.

1. 교회에 다니는 부모에게 자신이 게이라고 말할 것인지, 어떻게 말할지를 고민하는 10대 게이
2. 동성 파트너와 헌신적인 관계로 살고 있는 성인 남성
3. 최근 성폭행을 당한 10대 딸을 둔 어머니
4. 레즈비언 커플의 10세 아이
5. 최근 교회에 양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한 남성

각 그룹에 배정된 관점의 사람에게 이 성서 본문이 어떻게 들릴지 상상해보라고 한다. 그룹마다 대화 내용을 기록할 사람을 정한다.

다시 모두 함께 모인다. 그룹별로 논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발표하도록 요청한다.

토론할 내용: 이 성서 구절을 이용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

성서학자 필리스 트리블(Phyllis Trible)은 남성 권력의 횡포를 경험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담긴 성서 본문을 ‘공포의 텍스트’라고 부른다(*Texts of Terror: Literary-Feminist Readings of Biblical Narratives*, Fortress Press, 1984). 트리블은 여성을 위한 축복의 신학을 발전시키려면 성서 속 공포와 대면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구절이 어떤 면에서 젠더소수자와 성소수자에게 ‘공포의 텍스트’라고 생각하는가? 젠더와 성적 다양성을 위한 축복의 신학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 구절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유인물: 소그룹을 위한 지침

다음에 제시된 관점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룹마다 그 사람의 관점을 대변한다.

1. 교회에 다니는 부모에게 자신이 게이라고 말할 것인지, 어떻게 말할지를 고민하는 10대 게이
2. 동성 파트너와 헌신적인 관계로 살고 있는 성인 남성
3. 최근 성폭행을 당한 10대 딸을 둔 어머니
4. 레즈비언 커플의 10세 아이
5. 최근 교회에 양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한 남성

다음 질문에 대해 토론한다.

- 그룹에서 대변하는 관점을 가진 사람이 창세기 19:1~29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떻게 느낄까?
- 그 사람은 본문에서 어떤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까?
- 무엇이 그 사람을 괴롭히고, 방해하고, 두렵게 할까?
- 그 사람은 어떤 질문들을 제기할까? (예컨대 성폭행을 당한 10대 자녀를 둔 어머니는 어쩌서 딸들을 강간하도록 내어준 롯이 비난받지 않는지 질문할 수 있다. 동성 관계에 있는 성인은 분명히 이 구절은 집단 강간에 관한 이야기인데 왜 이 구절을 모든 성소수자를 비난하는 데 이용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 이 구절에 대해 그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나 응답을 주길 원하는가?

그룹 내 다른 사람에게 대화 내용을 기록해달라고 요청한다.

우리 사역지가 퀴어긍정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워크숍은 환영하는 것과 퀴어긍정이 된다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지, 기존 사역지가 퀴어긍정 사역지가 되면 사람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두려운 점이나 우려 사항은 무엇인지, 퀴어긍정 사역의 가능성과 희망은 무엇인지 등의 질문을 탐구하면서 퀴어긍정 사역지가 될 경우 그 의미와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돕는다.

활동 1: 여기서 집을 찾아라(30분)

진행자 준비 사항

모어 보이시즈(More Voices) 노래집의 ‘함께 집을 세우자(Let us build a house)’ 또는 어펄 유나이티드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메리 엘렌 키시(Mary-Ellen Kish)의 ‘여기서 집을 찾아라(Find a Home Here)’ 노래를 준비해둔다. 테이블 위에 전지를 깔고 밝은색 마커나 오일 파스텔(크레용과 비슷하지만 더 선명한 색)을 많이 준비한다.

활동 지침

참가자들에게 다른 사람 한두 명과 함께 전지 한 장이 깔린 테이블에 모이도록 요청한다. 어떤 장소나 상황에서 ‘집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요청한다. 놀이 같은 상호작용을 유도한다. 막대 그림도 괜찮다.

준비해둔 노래를 부른다.

다음 질문을 활용하여 집에 있듯 편안하게 느끼는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 온전히 ‘집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가?
- 어떤 그룹이나 상황에서 집에 있다고 느끼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 어떤 상황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경계심을 느끼거나, 진정한 나 자신이 될 수 없다고 느끼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 우리 신앙공동체에서 모두가 집에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돕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온전한 포용을 가로막는 장벽은 무엇인가?
-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환영하신 것처럼 우리 신앙공동체가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환영한다면, 무엇이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 무엇이 바뀔 것인가?

활동 2: 하지만 우리는 이미 환영하고 있다(35~45분)

진행자 준비 사항

1부에 있는 ‘우리는 이미 모두를 환영하는데 왜 굳이 퀴어긍정 사역지가 되어야 하는가?’의 복사본을 만든다.

활동 지침

복사본을 나눠주고 참가자들이 읽도록 시간을 준다. 토론과 대화를 위해 다음 질문을 활용한다.

- 일반적으로 환영하는 것과 퀴어긍정 사역지가 되는 것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
- 우리 신앙공동체는 어떤 면에서 이미 퀴어긍정 사역에 가까워졌는가?
- 우리가 퀴어긍정 사역지가 된다면 공동체로서 가장 힘들거나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크게 변화될까?
- 우리 신앙공동체 속 젠더소수자와 성소수자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더 넓은 지역사회의 젠더소수자와 성소수자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인가?

- 우리 신앙공동체 속 다른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더 넓은 지역사회의 다른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인가?

활동 3: 사례 연구

진행자 준비 사항

뒤에 나오는 ‘소그룹을 위한 사례 연구’에서 서너 개 사례를 선택하여 유인물을 만든다.

활동 지침

세 개의 소그룹으로 나눈다. 진행 방식을 설명하고, 각각의 사례 연구는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 유의한다. 각자의 환경에 적합한 사례 연구 세 가지를 선택한다. 각 그룹에 사례 연구 중 하나를 주고 다음 질문에 답하도록 요청한다.

- 사례 연구의 상황에서 어떤 고통이나 부정의가 관찰되는가?
-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 이런 상황이 여러분의 사역 환경 내 또는 가까운 곳에 존재한다고 상상해보라. 여러분의 사역이 귀어공정 사역이 된다면 이 상황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그룹별로 대화 내용을 보고하도록 요청한다.

활동 4: 우리가 귀어공정 사역을 했다면...

진행자 준비 사항

전지나 화이트보드에 다음 문구를 적어둔다. “만약에 (신앙공동체나 사역지 이름)이 퀴어긍정 사역지였다면 우리는…”

활동 지침

필기를 위한 펜과 종이를 나눠주고 참가자들에게 5분 안에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문장을 완성하도록 요청한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대로 재빨리 쓰도록 격려한다. 5분 뒤 그룹 내 다른 한 명과 문장을 공유하도록 요청한다. 참가자들에게 퀴어긍정 사역지가 되는 것에 대해 다음 질문에 답하도록 요청한다.

- 우리가 퀴어긍정 사역을 했다면 무엇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무엇이 그대로 유지되었을 것인가?
- 가장 두려운 점은 무엇인가?
- 어떤 점에서 희망적인가?
- 퀴어긍정 사역지가 되면 잠재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을까? (모두 응답하도록 격려한다. 퀴어긍정 사역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이점을 제시할 수 있다.)
- 퀴어긍정 사역지가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부정적인 결과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모두 응답하도록 격려한다. 퀴어긍정 사역을 지지하더라도 위험이나 부정적인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유인물: 소그룹을 위한 사례 연구

그룹에 배정된 사례 연구를 읽는다. 다음 질문에 대해 토론한다.

- 사례 연구의 상황에서 어떤 고통이나 부정의가 관찰되는가?
-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 이런 상황이 여러분의 사역 환경 내 또는 가까운 곳에 존재한다고 상상해보라. 여러분의 사역이 귀어공정 사역이 된다면 이 상황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사례 연구 1

멜리사는 67년 동안 같은 연합교회 신앙공동체의 일원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거의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알고 지내는 동네 교회이다. 멜리사와 남편 조지에게는 이제 30대가 된 두 자녀, 케이트와 케빈이 있다. 자녀들은 같은 교회를 다니며 자랐지만 지금은 200킬로미터 떨어진 도시에 살고 있다. 케이트는 결혼해서 두 자녀를 두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고향 마을을 방문하고 마을에 올 때마다 멜리사와 함께 교회에 간다(조지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 4년 전 케빈은 부모에게 자신이 게이이며 남자와 살고 있다고 말했다. 조지는 케빈이 다시는 집에 오지 못하게 했고, 멜리사가 아들과 연락하는 것도 막았다. 케빈을 사랑하는 멜리사는 남편이 없을 때면 아들과 자주 통화하지만, 운명을 바꾼 그날의 대화 이후로 케빈을 보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이 케빈이 잘 지내는지 묻곤 하지만 멜리사는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교회 식구들이나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케빈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케빈과 자신을 거부할까 봐 멜리사는 몹시 두려워한다.

사례 연구 2

어린 시절 안젤라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마약, 성매매, 음주, 도박, 간음과 함께) 동성애를 정죄하는 이야기가 아주 흔했다. 동성애가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동성애

혐오부터 배운 셈이다. 안젤라는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영성이 매우 깊었다. 하나님과 매우 가깝다고 느꼈고 교회에 가는 것을 좋아했다. 예배와 공동체 의식이 그녀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알았다. 10대 시절 그녀는 교회 청소년부에서 매우 활동적이었고, 성서 공부를 인도했고, 예배에서 성서 봉독과 대표 기도를 맡았으며, 주일학교에서 가르쳤고, 언젠가 목사가 되기를 꿈꿨다. 안젤라는 대학에 진학하며 마을을 떠난 뒤에야 레즈비언으로 커밍아웃했다. 그녀는 동성애는 그리스도교인이 되는 것과 양립할 수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다시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럴 때면 안젤라는 하나님과 신앙공동체로부터 떨어진 것에 대해 깊은 상실감과 고뇌를 느낀다.

사례 연구 3

애나는 4년째 이 연합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아들을 말고는 캐나다에 가족이 없는 난민이다. 애나는 영적인 안식처를 찾고 있었고, 이 교회가 예배드리기에 좋은 곳이라 생각했다. 애나는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지만, 사람들은 항상 처음 온 사람 대하듯 그녀에게 인사를 건네고, 차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한다. 신앙심이 강한 애나는 교회의 삶과 사역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지만 아무도 그녀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애나가 용기를 내어 예배 후 다과를 제공하는 일을 돕겠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통역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 주저하였다. 통역 없이는 애나가 그 일을 제대로 못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애나는 주일에 교회문을 나설 때마다 낙담하고 더 고립감을 느낀다.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한다.

사례 연구 4

열다섯 살 캐시는 동갑내기 월과 가장 친한 친구이다. 비록 월이 자세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지만 캐시는 월이 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월도 캐시가 알고 있음을 안다). 월과 캐시는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많다. 대부분은 둘이 사귀다고 생각하고, 캐시와 월은 사람들이 그렇게 상상하도록 내버려둔다. 월은 두려움 때문에, 캐시는 친구를 보호하려 그렇게 한다. 월은 열정적인 하키 선수인데, 팀 동료들은 종종 '퀴어'와 '동성애자'에 대한 농담과 악의적인 말을 하곤 한다. 학교와 지역사회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 게이로

의심받는 아이들은 따돌림과 구타를 당하고 모욕적인 말을 듣는다. 최근 월은 점점 우울해지는 것 같다. 월은 캐시에게 인생이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그리고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다고 이야기하곤 한다. 캐시는 누구와 이야기해야 할지, 어떻게 월을 도울 수 있을지 알지 못한다.

사례 연구 5

로버트는 이전에 한 남자와 오랫동안 연애를 했지만, 앤과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다. 앤은 그 관계에 대해 알고 있다. 두 사람은 일부일처제 관계이지만 로버트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강한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양성애자로 여겨왔다. 그는 대부분 교인이 게이, 레즈비언 또는 양성애자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사실에 매우 괴로워한다. 특히 최근에는 그의 면전에서 “그 사람들은 모두 소아성애자다” 또는 “신은 퀴어를 혐오한다”라는 말을 해 큰 상처를 받았다.

사례 연구 6

헤이즐은 캐나다 이민 3세대이다. 자신이 캐나다인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항상 “그런데 원래 어느 나라 출신인가요?”라고 묻는다. 그럴 때마다 유색인이 캐나다인이 될 ‘권리’를 얻으려면 몇 세대나 지나야 하는지 궁금해진다. 그녀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자신의 온전한 정체성을 주장할 곳이 없다는 생각에 끊임없이 갈등한다. 신앙공동체에서 헤이즐은 눈에 띄는 유일한 소수자인데, 이 때문에 긍정적이지 않은 의미로 ‘다르게’ 여겨져 그녀는 외로움을 느낀다.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음에도 말이다.

사례 연구 7

과거 로버트였던 로즈메리는 8년째 여성으로 살고 있다. 평신도 예배 인도자로, 예배위원회 위원장으로 신앙공동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최근 로즈메리는 신앙공동체 몇몇 사람에게 자신이 트랜스 여성임을 커밍아웃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반응에 지지와 격려를 받기도 했지만, 트랜스젠더 이슈에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자신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다는 사실에 놀랐다. 로즈메리는 “내가 트랜스젠더 여성임이 뻔히 보일 줄 알았는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성 확정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을 때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병원에서 영적 돌봄을 하는 사람들도 트랜스젠더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고, 그녀를 심방한 다른 연합교회 신앙공동체 목사는 매우 부정적인 말을 해서 충격을 받았다. 로즈메리는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목사와 함께 지역 연합교회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트랜스젠더 이슈와 목회적 돌봄에 관한 워크숍을 열자고 제안했다. 수개월간 준비하고 인근 연합교회 교육 센터와 협력한 끝에 마침내 워크숍이 열렸다. 지역 전체에 널리 홍보하였으나 워크숍에는 겨우 몇 명만 참석했다. 로즈메리는 이같이 무관심한 반응에 매우 놀라고 상처받고 화가 났다. 그녀는 연합교회가 트랜스젠더에 대해 배우는데 열려 있지 않다고 결론 내린다. “교회는 우리의 필요나 걱정은커녕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례 연구 8

리사와 앤은 최근 새로운 도시로 이사한 레즈비언 커플이다. 그들은 자신들과 여섯 살 된 두 쌍둥이를 위한 교회를 찾고 있다. 그들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연합교회에 방문하여 자신들을 환영해줄지 알아보기로 한다. 어느 주일 리사는 교회가 어떤지 알아보러 찾아간다. 예배 후 그녀는 목사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과 파트너인 다른 여성이 교회를 찾고 있다고 말한다. 목사는 응답조차 하지 않고 이내 다른 교인과 이야기하기 위해 돌아선다. 리사는 성가대원 중 한 명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이 교회가 동성 커플에게 열려 있는지 묻는다. 성가대원은 “우리는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다만 그에 대해 유난스럽게 구는 걸 좋아하지 않을 뿐이에요”라고 말한다. 리사에게 이 이야기를 들은 앤은 이 교회는 아이들을 데려가고 싶은 교회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다른 교회를 찾아보려 애쓰고 싶은지조차 잘 모르겠어.” 앤은 이렇게 결론 내린다. “교회는 여기까지인가 봐.”

사례 연구 9*

수잔이라는 선주민 여성은 성소수자와 투스피릿의 필요를 경청하고 분별하기 위한 워크숍에 참석했다. 그녀는 워크숍이 끝날 때까지 말을 하지 않다가 이렇게 말했다. “캐나다연합교회에는 처음 와봤어요. 투스피릿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해서 오게

되었어요. 최근에 우리 아이가 자살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투스피릿인 우리 아이가 만약 여기에 있었다면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아이를 사랑하고 받아들였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 죽은 아이를 위해 쓴 시를 나누고 깊이 슬퍼하며 울었다. 워크숍이 끝나고 집에 갈 때까지도 그녀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워크숍이 열렸던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다.

사례 연구 10*

주드는 캐나다 중부 시골에서 여자아이로 태어나 자신의 성별을 탐색하는 과정 중에 있는 고등학생이다. 주드는 전국 교회의 청소년 모임에서는 환영과 지지를 경험하지만, 자신의 개인적 어려움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고향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다.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어려워요. 특히 청(소)년들에게 별 관심이 없는 나이 든 분들께는 더더욱 그래요. 또 교회 사람들은 너무 완벽하게 행동해요. 저는 교회 사람들이 연약하고 완벽하지 못한 모습도 편안하게 드러내고, 덜 경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 역시 교회 사람들에게 연약한 존재여도 괜찮다고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궁금한 게 진짜 많거든요.” 주드는 논바이너리로서 신체적 괴롭힘의 위협을 겪었고, 그래서 신체적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 캐나다연합교회와 어펄 유나이티드가 3년에 걸쳐 진행한 공동 프로젝트인 ‘이리데스: 살아내는 사죄(Iridesce: The Living Apology)’ 프로젝트에서 발췌.

퀴어긍정 사역을 위한 비전과 희망, 가능성 분별하기

이 워크숍은 성서 본문과 예술 활동을 이용하여 퀴어긍정 사역을 위한 비전과 희망, 가능성을 불러일으키고 영감을 불어넣는다. 이 활동은 지속적 연구나 분별 과정으로 또는 이벤트나 워크숍을 시작할 때 성서 본문을 소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성서 본문을 가지고 반복할 수 있다. 이 과정은 45분에서 1시간가량 소요된다.

진행자 준비 사항

성서와 펜, 종이를 준비한다. 참가자들이 고를 수 있도록 예술 활동을 선택하고(아래 예시 참조), 필요에 따라 미술 도구나 자료를 준비한다. 아래의 성서 본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참가자들이 볼 수 있도록 전지에 게시한다.

-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1~15, 27)
- 예수와 가나안 여인 (마태복음 15:21~28)
-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복음 10:25~37)
-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 (누가복음 14:15~24)
- 베드로의 꿈 (사도행전 10:1~34)

활동 지침

때때로 우리는 인종이나 성적 지향, 빈곤, 가부장제 등의 이슈에서 특정 입장을 강화하거나 증명하기 위해 성서를 이용하고자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작한다. 성서에는 다양한 본문과 목소리와 의견이 담겨 있고 해석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서는 거의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또 그렇게 사용되어왔다. 하지만 적어도 이 세션에서는 성서를 그렇게 사용하지 말자고 제안한다. 대신 성서 이야기가 지닌 비전과 희망, 가능성을 찾기 위해 상상력을 발휘하고 기도하며 겸손한 태도로

본문을 다루기로 한다.

선택한 본문을 천천히 또박또박 소리 내어 읽는다.

참가자들에게 본문에 응답하는 데 사용할 예술 자료를 선택하도록 한다. 재미있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을 선택하도록 제안한다. 예술가가 될 필요는 없으며, 아무도 그들의 작품을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린다. 참가자들에게 최소 20분(30분이 가장 좋다)의 시간을 주고, 예술 활동을 통해 최대한 자유롭게 상상력을 발휘하며 본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한다. 참가자들이 원할 경우 성서 구절을 다시 읽을 수 있도록 성서를 준비해둔다.

다시 모인다. 참가자들이 원한다면 자신이 만든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한다.

질문하기: 이 성서 구절에서 우리 공동체가 소외된 사람들을 환대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문제에 충실하게 반응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희망, 가능성, 영감 또는 비전을 발견했는가?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하면서 성서 구절을 다시 읽는다. 그런 다음 생각을 나누게 한다. (비전과 분별의 과정을 계속할 때 다시 참조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생각을 전지에 기록한다.)

예술 활동 예시: 점토 놀이, 오일 파스텔로 낙서하기, 수채화 그리기, 음악에 맞춰 몸 움직이기, 일기 쓰기, 목탄으로 스케치하기

하이쿠(세 줄로 이루어진 시)

첫 줄은 5음절, 둘째 줄은 7음절, 셋째 줄은 5음절로 이루어진다.

빗방울 사이를 달리다 Running through rain drops
반짝이는 젖은 가을 나무 Glistening wet, autumn, wood

색으로 흠뻑 젖은 나뭇잎 Leaves drenched in colour

퀴어공정 사역 비전선언문 작성하기

이 워크숍은 각 퀴어공정 사역지에서 비전선언문을 작성하거나 갱신할 때 도움이 되는 활동과 과정을 제공한다.

이 과정은 보통 퀴어공정 사역 추진위원회가 이끈다. 다음은 각 사역지나 신앙공동체의 퀴어공정 사역 비전선언문 작성을 위해 제안하는 과정이다.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아래 두 가지 활동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한다.

1. 다양한 그룹과 위원회, 당회나 운영위원회에 다음 질문에 응답하도록 요청한다.
우리는 어떻게 젠더소수자와 성소수자, 소외되거나 침묵을 강요당해온 이들을 위해 정의와 연민을 가지고 행동하도록 부름받았는가? 그 소명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2. 그룹과 위원회의 활동이나 워크숍, 교육 행사를 통해 알게 된 것 중 비전선언문에 포함되어야 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 목록을 작성한다.
3. 다른 퀴어공정 사역지의 비전선언문을 살펴보고 말하고 싶은 내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다(본 자료집과 어펄 유나이티드 웹사이트의 사역지 목록 참조). 1부 내용, 그중에서도 ‘퀴어공정 사역 준비 단계’와 ‘퀴어공정 사역지가 되는 법’을 검토한다. 비전선언문에서 말해야 할 중요한 내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계속 나열해간다.
4. 한두 명을 정해 선언문 초안을 작성한다.
5. 소그룹에서 선언문을 다듬고 수정한다.
6. 선언문을 퀴어공정 사역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와 공유하여 피드백을 받고, 필요한 사항을 수정한다.
7. 선언문을 당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받고, 사역지의 모든 구성원이 모인 회의에 상정한다.

활동 1: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진행자 준비 사항

누군가 메리-엘렌 키시의 찬양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What Would Jesus Say)’를 인도하도록 준비하고, 가사를 유인물로 만든다(<http://affirmunited.ause.ca> 참조). 메모할 펜과 종이를 준비한다.

캐나다연합교회 찬송가 ‘보이시스 유나이티드(Voices United)’나 ‘모어 보이시스(More Voices)’에서 다른 찬송가를 부른다.

활동 지침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또는 다른 찬양을 선곡해 부른다.

자원하는 이가 다음 본문을 큰 소리로 읽도록 한다. 누가복음 6:36~37, 마태복음 9:9~10, 누가복음 4:18~19, 요한복음 14:27, 요한복음 13:44.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각자의 환경에서 예수님이 성소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지 상상해볼 수 있다고 말한다.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진 다음 참가자들이 응답을 나누도록 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소수자와 성별 비순응자, 공동체 안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희망, 지지, 긍정,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가?
- 그 메시지를 우리 신앙공동체에게 어떻게 전할까?
- 그 메시지를 우리 주변의 더 넓은 지역사회에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까?
(비전선언문 작성을 시작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된 아이디어를 메모해둔다.)

활동 2: 다른 비전선언문에서 아이디어 찾기

진행자 준비 사항

1부에 있는 ‘퀴어긍정 사역 비전선언문 예시’를 확대 출력하여 준비한다. 출력한 성명서를 전지와 함께 실내 여러 곳에 게시한다. 참가자들이 코멘트를 남길 수 있게 형광펜과 마커를 준비한다.

활동 지침

참가자들이 벽에 게시된 비전선언문을 읽으며 실내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한다. 비전선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마음에 드는 단어나 문구에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비전선언문 옆 전지에 어떤 코멘트든 적어달라고 요청한다.

자신의 사역지가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와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비전선언문 앞에 모이도록 요청한다. 그 자리에서 같이 토론하고 전지에 기록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이 선언문에서 어떤 부분이 좋았는가?
- 어떤 내용을 추가하고, 삭제하고, 바꾸고 싶은가?

모두 다시 모여 피드백과 아이디어를 나눈다.

질문하기: 비전선언문이 전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비전선언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질문에 대한 답변과 전지에 적은 내용들을 보관한다.)

실행 계획 개발을 위한 5단계

이 워크숍은 퀴어공정 사역 비전선언문을 실천하기 위한 계획, 즉 사역지가 퀴어공정 사역지로 선포된 뒤의 지속적 실행 계획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과정을 제공한다.

이 과정은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기록하고 분류할 수 있게 컴퓨터와 프로젝터를 사용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전지와 마커로도 할 수 있다. 가위, 테이프, 여러 색상의 마커를 준비해두면 분류 작업이 더 쉬워진다. 이 과정을 한 번에 마칠 필요는 없다. 사실 이 과정을 마치려면 두세 번의 모임이 필요할 수도 있다.

미리 참가자들에게 1부의 ‘퀴어공정 사역을 시작한 다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읽게 한다.

1단계: 퀴어공정 사역 비전선언문 소리 내어 읽기

이 비전선언문이 각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한다. 각 사람에게 우리 신앙공동체나 사역지가 이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 가지씩 생각해보라고 한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준다. 아이디어를 기록한다.

2단계: 강점과 자원 목록 작성하기

퀴어공정 사역 비전선언문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공동체의 강점, 자원, 자산 목록을 작성한다. 구성원, 연락처 또는 네트워크, 건물, 자원, 정보 접근성, 관련 기술, 직원 등을 포함한다.

3단계: 미션 수행을 위한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힌트: 브레인스토밍할 때 코멘트나 비평을 하는 등 스스로 검열하지 않는다. 나중을 위해 저장해둔다.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가 빠르고 자유롭게 흐르게 하면서 전지에 기록한다.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한다. 목록이 완성되면 명료화를 위해 질문한다.

4단계: 아이디어 분류하기

보통 가장 긴 단계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는 하지 않을 일은 덜어내고, 반드시 할 일을 확인한 다음, 남은 아이디어나 가능성 중에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한다. 아이디어를 분류하면서 장단점을 논의하고, 아이디어를 더 구체화한다. 주요 프로젝트나 지속적인 활동을 결정할 때는 에너지와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 좋은 아이디어는 폐기하지 말고,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 하지 않는다.

아이디어 목록을 검토하고 범주화한다. 마커와 전지를 사용할 때는 범주마다 다른 색상을 사용한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몇 가지 범주이다.

- a. **아니요.** 그룹에서 지지하지 않는 아이디어, 현실적이지 않거나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하지 않은 아이디어, 사역지의 성격에 맞지 않는 아이디어, 퀴어공정 사역 비전선언문이나 사역지의 강점에 맞지 않는 아이디어들을 모아두는 범주이다. ‘아니요’라고 표시한 아이디어 중 일부는 좋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사역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범주를 먼저 만들면 분류 작업이 단축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는 목록에서 빼거나 지운다.
- b. **예.** 시간, 노력, 논의나 계획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모아두는 범주이다. 연회비를 납부한다거나 퀴어공정 사역 위원회를 구성하는 일처럼 퀴어공정 사역지가 되면 자동적으로 계속 해야 하는 일이지만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도 있다. 예배 주보에 퀴어공정 사역에 대한 공지 사항을 추가하는 일, 사역지 공문서 용지를 바꾸는 일, 교회 간판에 어펄 유나이티드 로고를 넣는 일, 웹사이트에 퀴어공정 사역에 대한 알림을 게시하는 일 등 단기간에 쉽게 완료할 수 있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일도 있다. 다른 것들은 더 많은 계획이나 논의가 필요한 것일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치거나 강조 표시를 해둔다.

- c. **이 사역에 착수하자.** 사역의 주요 프로젝트와 실천 과제를 위한 한 가지(또는 두 가지)의 주요 실천 아이디어에 대한 범주이다.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 더 많은 대화를 나누는 등 더 오랜 기간에 걸쳐 계획하고 작업해야 한다. 사역지에서 이미 진행 중인 사역과 잘 어울리고 사역지의 강점과 자원에 부합하는 아이디어를 선택한다. 이 아이디어들 옆에 별표를 표시해둔다.
- d. **어쩌면 나중에.** 지금 당장 실행에 옮기지는 않더라도 폐기하고 싶지 않은 아이디어를 위한 범주이다. 이 아이디어들은 괄호 안에 넣어둔다.

이제 아이디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준비하거나, 더 많은 정보나 의견을 수집하거나, 최종 결정을 하기 전 아이디어들이 머릿속에 스며들도록 잠시 휴식을 취한다.

‘아니요’와 ‘어쩌면 나중에’ 목록을 따로 정리해놓고 분류 과정을 마치면 퀴어공정 사역을 위한 지속적인 실행 아이디어 목록을 갖게 된다. 사역 내용을 요약하고 문구를 다듬을 사람이 정해지면, 이것으로 퀴어공정 사역 코디네이터에게 제출할 실행 계획은 준비된 것이다. 동시에 사역지 운영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위한 준비도 완료된다. 이를 구성원들에게 제출하여 승인 과정을 거치는 사역지도 있다.

실행 계획은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에 책임이 있는 퀴어공정 위원회(Affirming Committee)를 조직하여 우리 공동체가 퀴어공정 비전선언문에 부합하는 실천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모색하고, 어팜 유나이티드와 다른 퀴어공정 사역지들과의 연결고리를 제공하도록 한다. (예: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다른 위원회와 주기적으로 만나 퀴어공정 사역지로서 서로의 사역을 지원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 구성원 세 명이 상호문화(intercultural) 콘퍼런스에 참석하도록 지원하고, 이들이 배운 정보를 운영위원회와 다른 사역 그룹에 공유할 방법을 계획한다.
- 탈빈곤 문제와 관련하여 활동 중인 지역사회 단체와 연결한다.
- 웹사이트, 뉴스레터, 주보 등에 어펄 유나이티드 로고를 사용하여 퀴어긍정 사역을 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알린다. 사역지 간판에 다양한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지닌 사람들을 환영한다는 표시를 한다. 지역 신문에 퀴어긍정 사역에 대한 월간 광고를 게재한다.
- 매년 학습 모임이나 워크숍을 열어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역의 측면을 탐구한다.
- 구성원 두 명이 퀴어긍정 사역 콘퍼런스나 어펄 유나이티드 연례 회의에 참석하도록 지원한다.
- 매년 공동체 예배를 드리며 퀴어긍정 사역지가 된 기념일을 기리고, 프라이드 페스티벌에 (퀴어긍정 사역 배너를 가지고) 참여한다.
- 향후 2년 동안, 특히 주거 및 영적 돌봄과 관련하여 지역의 성소수자 노인들의 필요를 지원하기 위해 신앙공동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5단계: 무엇을, 누가, 언제

실행 계획이 승인되면 실행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 이 일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 누가 이 일을 책임지고 있는가?
- 이 일은 언제 완료되는가? (대략적일지라도 작업 완료를 위해 일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 매년 추가로 실행할 일이 있는지, 다른 영역의 교육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검토하여 실행 계획을 계속 업데이트한다.

예:

- 실행할 일: 뉴스레터와 웹사이트에 퀴어긍정 사역지임을 알린다.
- 무엇을: 다른 퀴어긍정 사역지가 사용하는 문구를 수집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소통위원회에 전달한다.
- 누가: 빌이 조사하고 초안을 준비한다. 릴리안은 소통위원회 위원장과 이야기한다.
- 언제: 4월 모임 전까지.

청소년을 위한 탐구

다음 워크숍은 13~18세 청소년들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이슈, 포용에 대한 성서적 비전, 퀴어긍정 사역의 의미를 탐구하도록 마련한 것이다.

활동 1: 영화 <원 오브 them> 시청(40분)

진행자 준비 사항

시청 장비를 설치하고 영화 <원 오브 them>(One of Them)>(캐나다국립영화위원회, 2000, www.onf-nfb.gc.ca/collection/film/?id=33969 참조)의 사본을 대여한다.

활동 지침

영화를 시청한다. 다음 질문을 사용하여 대화로 초대한다.

-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슈들이 얼마나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가?
-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이슈와 관련하여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는 영화 속 학교와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가? 학교에 동성애자-이성애자 연대 조직(Gay - Straight Alliance)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어려울까? 만약 있다면, 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반대는 없었는가?
- 학교에서 성소수자 청소년이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성별 비순응자나 젠더플루이드인 청소년은 어떠한가? 어떠한 괴롭힘이나 미묘한 부정적 압박에 직면할 수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 성소수자 청소년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 교회나 학교가 성소수자 청소년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려면 어떤 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무엇이 공간을 안전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안: 3부에서 추천하는 영화 가운데 하나를 시청한다(〈아웃: 레즈비언과 게이 청소년 이야기(Out: Stories of Lesbian and Gay Youth)〉, 〈달리 말하면(In Other Words)〉 등).

활동 2: 베드로의 꿈(35분)

진행자 준비 사항

사도행전 10:1~34를 읽고 의역된 버전으로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한다. 성서와 펜, 종이를 준비하고, 그 밖에 성서 시대의 의상이나 동물 가면 같은 소품을 준비할 수도 있다.

활동 지침

사도행전 10:1~34를 소리 내어 읽거나 의역된 버전을 들려준다.

청소년들에게 이 이야기를 담은 촌극을 함께 만들도록 한다. 인원이 많으면 두 그룹으로 나누어 만들고 발표하도록 한다. 재미있게 즐기도록 격려한다. 창의력을 발휘할 여지가 많다(보자기에 있는 동물들을 상상해보라).

베드로에게는 새우나 돼지고기처럼 부정하게 여겨지는 음식을 먹는 것,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가령 로마인과 함께 식사하거나 로마인을 환대하는 것) 등이 신앙의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였음을 설명한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이었고 이방인(유대인이 아닌 외국인)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었다. 교회가 이에 대해 생각을 바꾼 것은 큰 결정이었다.

다음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한다.

- 베드로가 고넬료와의 만남을 망설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어떤 사람에 대한 첫인상을 나중에 바꾼 적이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가?
-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초대 교회가 포용하기 시작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는가? 이방인을 교회에 받아들이는 것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논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
- 역사상 그리스도교 교회가 환영하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고 취급한 다른 그룹이나 사람들이 있었는가?
- 이 성서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퀴어긍정 사역지가 될 것을 고려할 때 무엇을 말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추가 활동: 청소년들에게 성소수자를 포용하고 지지할지 결정하려고 하는 교회에 대한 존극을 만들어보라고 한다.

활동 3: 초청 강연 듣기(40분)

진행자 준비 사항

성별 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에 대해, 또는 신앙공동체가 퀴어긍정 사역을 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청소년들과 이야기할 강사를 섭외한다.

섭외 가능한 강사: 인근 퀴어긍정 사역지의 청소년, 지역 고등학교의 동성애자-이성애자 연대 조직이나 성소수자 지지 단체의 청소년, PFLAG(성소수자 부모·가족 단체) 사람, 커밍아웃한 청(소)년의 부모,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청소년의 고민을 다루는 지역 상담 센터 또는 자원 센터의 청(소)년, 이 문제에 대해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교사(3부의 관련 기관 링크 참조).

활동 지침

강사를 초청해 강연을 하도록 한다. 청소년들이 질문을 하도록 격려한다. 성소수자 및 성별 비순응자 청소년이 직면하고 있는 특정 문제나 우려 사항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한다.

질문하기: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공동체가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지닌 청소년에게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을까?

활동 4: 청소년 자료 웹사이트 만들기(1회 또는 2회의 세션)

진행자 준비 사항

웹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를 준비한다. PFLAG(www.pflagcanada.ca), Egale(www.egale.ca), 어firm 유나이티드(www.affirmunited.ca)의 링크를 게시하거나 적어둔다. 블로그 개설을 고려하거나 교회 웹사이트에 자료를 게시할 수 있게 준비한다.

활동 지침

이 과제는 지역사회의 성소수자 및 성별 비순응자 청소년을 위한 정보와 자료, 도움이 필요할 때 상담할 수 있는 사람 등의 정보를 담은 웹사이트(또는 블로그)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지닌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에 대해 이야기할 사람이 없고 정보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을 상상해보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유도한다. 청소년들은 무엇을 알아야 할까? 누구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청소년들의 가족이 지지해주지 않거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청소년들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청소년들이 자신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미워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나 모든 교회가 자신을 거부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가정해본다. 어떤 응원의 메시지를 쓸 수 있을까?

필요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 목록을 작성한다. 웹페이지에 추가하고 싶은 다른 내용도 메모해둔다.

그런 다음 웹페이지나 블로그에 어떤 정보와 자료를 게시할지 브레인스토밍을 시작한다. 지역사회에서 누구와 이야기하면 도움이 될까? (만약 있다면) 가까운 곳에 어떤 자료나 정보 그룹이 있는가? 가장 가까운 퀴어긍정 사역지는 어디인가? PFLAG, Egale 그리고 기타 알고 있는 웹사이트를 사용하여 정보와 자료를 찾기 시작한다. 블로그나 웹페이지 제작에 익숙한 청소년에게 찾은 정보를 정리하고 게시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이 작업은 한 세션 이상 소요될 수 있다. 다시 만나기 전에 청소년들이 해야 할 후속 과제를 할당한다. 웹페이지가 준비되면 게시하고, 신앙공동체 웹사이트에 링크한다.

어린이를 위한 탐구

다음 활동들은 1~6학년 어린이에게 퀴어긍정 사역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소개한다.

-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가족이 있으며, 하나님은 모든 가족을 사랑하신다.
- 하나님은 모두를 환영하신다.
- 퀴어긍정 사역을 하는 공동체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환대와 포용에 대해 이야기한다.

활동 1: 춤추는 무지개(20~30분)

진행자 준비 사항

‘무지개가 춤을 추고 있어요(A Rainbow is Dancing)’ 노래를 가르칠 사람을 섭외한다(어펄 유나이티드 웹사이트의 퀴어긍정 사역을 위한 찬송가 참조). 이외에 ‘내 사랑은 선 밖을 색칠해요(My Love Colours Outside the Lines)’(모어 보이시즈 138번), 신디 로퍼(Cyndi Lauper)의 팝송 ‘진짜 색깔들(True Colours)’ 등 다른 노래도 가능하다. 무지개색 스카프를 준비한다.

활동 지침

아이들에게 후렴과 1절을 가르친다.

이 노래는 우리 사역지(신앙공동체, 캠프 사역, 어린이부) 가족의 일원이 된 모두를 하나님이 환영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고 설명한다. 모두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전지에 “하나님은 …에 상관없이 모두를 환영합니다”라고 쓰고 아이들에게 이 문장을 완성하도록 한다(예: 나이에 상관없이, 어떤 종류의 가정에서 살든 상관없이). 아이들의 생각을 기록한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사랑하든’, ‘어떤 종류의 가족이든’, ‘동성애자이든 이성애자이든’ 등을 넣는다.

아이들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에서 환영받는다는 노래 내용에 맞춰 스카프를 사용하여 율동이나 춤을 만들어보게 한다. 후렴과 1절을 율동과 함께 다시 부른다.

활동 2: 손바닥 무지개(15~20분)

진행자 준비 사항

아이들 손이 닿기 쉬운 높이에 큰 종이 한 장을 벽에 붙여놓는다. 연필로 무지개 모양을 그리되 다양한 색을 넣을 수 있을 만큼 종이 전체에 크게 그린다. 파란색, 빨간색, 보라색, 초록색, 주황색, 노란색 물감을 파이 접시처럼 얇은 접시에 부어놓는다. 미술용 앞치마, 물, 수건을 준비한다.

활동 지침

아이들 손에 물감을 묻혀서 벽에 붙인 종이에 손도장을 찍어 커다란 무지개를 만들도록 한다. 한 번에 3~4명이 하도록 안내한다. 도우미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아이들과 무지개에 대해 이야기한다. 무지개를 본 적이 있는가? 무지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무지개에 관한 노래를 아는가? 무지개에 관한 성서 이야기는 무엇인가? 그 이야기에서 무지개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땅을 파괴하거나 땅의 사람들을 다시는 해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무지개가 완성되려면 다양한 색이 필요하듯 인류라는 가족에도 다양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가족들 사이의 차이에 대해 대화하도록 유도한다. 무지개는 다양한 피부색, 국적,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인류라는 가족의 일원임을 상기해주기에 인종주의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상징이라고 이야기한다. 또한 무지개는 게이나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양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려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상징인데, 우리가 누구든, 누구를 사랑하든 우리 모두 하나님의 가족임을 상기해주기 때문이다.

모든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환영하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사역지에 무지개 표식을 설치했다면, 아이들에게 건물 주변에서 무지개를 찾아보도록 한다.

활동 3: 베드로의 동물 꿈(15~20분)

진행자 준비 사항

사도행전 10장을 읽는다. 베드로의 꿈 이야기(아래)를 들려주기 위해 연습한다. 성서를 준비한다.

활동 지침

성서 이야기를 들려줄 거라고 설명한다. 사도행전 10장을 펼친다. 이 이야기는 여러 종류의 동물이 등장하는 이야기라고 말한다. 아이들에게 각자 흉내 낼 동물 소리를 하나씩 고르게 한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자신이 고른 동물이 나오는지 잘 듣고 동물 소리를 세 번 내야 한다고 설명한다. “모든 동물”이라고 말하면 모두가 함께 동물 소리를 낸다. 동물 소리를 연습한다(아이들이 선택한 동물을 메모해둔다). 아래의 ‘베드로의 동물 꿈’ 이야기를 들려준다.

베드로의 동물 꿈

베드로는 예수님의 좋은 친구였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베드로는 계속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고 있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으는 일에도 도움을 주었어요. 이 사람들이 최초의 교회가 되었어요.

어느 날 베드로는 고넬료라는 사람에게서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고넬료는 예수님에 대해 듣고 싶어 했고, 베드로가 자신의 집에 저녁 식사를 하러 와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유대인이었지만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이방인을 멀리하고, 절대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거나 그들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배웠어요.

베드로는 이 문제에 대해 생각했어요. 고넬료는 훌륭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싶었던 것뿐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베드로는 혼잣말을 했어요. “안 돼, 난 갈 수 없어. 그는 이방인이고, 사람들이 이방인에 대해 뭐라 하는지 알잖아.” 그리고 베드로는 낮잠을 자려고 누웠어요.

자다가 베드로는 꿈을 꾸었어요. 동물에 관한 꿈이었어요. 꿈에 _____와 _____와 _____가 나왔어요(아이들이 고른 동물 이름을 말하고, 그때마다 아이들이 동물 소리를 내도록 한다). 베드로의 꿈속에서 모든 동물이(동물 소리를 내는 동안 잠시 멈춘다) 큰 보자기에 같이 싸여 있었어요. _____가 _____ 옆에 있었고 _____도 같이 있었어요(아이들이 고른 동물 이름을 골고루 말한다).

베드로는 충격을 받았어요. 모든 동물이(동물 소리를 내는 동안 잠시 멈춘다) 비좁게 한데 모여 있었어요. 시끄러웠지만 다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했어요. 무서워하는 동물도 없었고,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동물도 없었죠. 모든 동물이(동물 소리를 내는 동안

잠시 멈춘다)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가 깨어났어요. 그는 꿈에서 본 모든 동물이(동물 소리를 내는 동안 잠시 멈춘다) 다 기억났어요. 그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그의 꿈이 고넬료와 관련이 있을까요?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아이들의 생각을 묻는다.)

“아, 그렇구나.” 베드로가 혼잣말로 말했어요. “꿈속 모든 동물이(동물 소리를 내는 동안 잠시 멈춘다) 함께 어울릴 수 있다면 우리의 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교회를 원하실 테고, 그 말은 곧 이방인도 함께라는 뜻이야.” 베드로는 하늘 높이 떠 있는 태양을 바라보았어요. “어서 가야겠어. 저녁 식사 시간 전에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려면 말이야”라고 베드로는 생각했어요.

다음 질문으로 이 이야기에 대한 대화를 유도한다.

- 베드로는 자기 꿈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는가?
- 베드로가 왜 마음을 바꾸었다고 생각하는가?
- 이 이야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하기를 바랐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환영하신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활동 4: 가족이란 무엇인가?(45분)

진행자 준비 사항

동성 가족이 등장하는 어린이 그림책을 준비한다. 예컨대 〈그리고 탱고는 셋을 만든다(And Tango Makes Three)〉, 〈아샤의 엄마들(Asha's Mums)〉, 〈한 명의 아빠, 두 명의 아빠(One Dad, Two Dads)〉, 〈가족 안에 누가 있을까?(Who's in a Family?)〉,

〈엄마와 엄마가 결혼해요(Mom and Mum Are Getting Married)〉, 〈아빠의 룸메이트(Daddy's Roommate)〉, 〈내가 나인 게 좋다(It Feels Good to Be Yourself)〉, 〈에이든이 형이 되었을 때(When Aidan Became a Brother)〉, 〈가족 책(The Family Book)〉, 〈우리 엄마들의 집에서(In Our Mothers' House)〉 등의 책이 있다(3부 퀴어긍정 사역을 위한 자료에서 '어린이' 부분을 참조하라). 다양한 색상의 찰흙을 준비한다.

활동 지침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여러분의 가족에는 누구누구가 있는가?
- 무엇이 가족을 가족으로 만드는가?
- 가족이 있어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
- 왜 가족이 중요한가?

찰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여러 종류의 다양한 가족으로 구성해보도록 한다. 그룹이 함께 작업하게 한다. 창의력과 장난기를 북돋는다. 예컨대 가족이 모두 파란색일 수도 있고, 모두 남자일 수도 여자일 수도 있으며, 한 사람만 있는 가족도 있고, 여러 명의 아이와 두 명의 어른으로 이루어진 가족도 있을 수 있다.

어떤 가족은 아빠나 엄마가 둘이고, 어떤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두 남자가 있고, 어떤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두 여자가 있고, 어떤 가족은 한 사람만 있을 수도 있음을 아이들에게 일깨워준다. 가족 구성원이 혈연관계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다. 사랑은 가족을 가족으로 만드는 요소이다.

아이들에게 동성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준다. 다음 질문을 통해 열린 대화로

초대한다.

- 이 이야기에서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나?
- 어떤 점에 주목하게 되었나?
- 어떤 점이 놀라웠나?

그림을 보고 아이들이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도록 유도한다.

아이들과 함께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거나, 침묵 시간에 자기 가족을 위해 기도하도록 한다.

메리-엘렌 키시의 ‘무지개가 춤춘다(A Rainbow is Dancing)’(어펄 유나이티드 웹사이트 참조) 또는 ‘들어오라, 들어와 앉으라(Come in, Come in and Sit Down)’(보이스스 유나이티드 395번)의 후렴을 부른다.

배움과 성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영화 상영의 밤

정기적으로 영화 상영의 밤을 열어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이슈를 다루는 할리우드 영화를 시청한다. 영화를 본 뒤 소감과 반응, 생각을 함께 나누도록 한다. 추천 영화와 토론 주제는 3부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영화’와 어필 유나이티드 웹사이트를 참조하라.

성소수자 강사 초대

다양한 가족 구성이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을 예배와 리더십, 교육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도록 초대한다. 강사에게 자기 경험을 나누고, 예배나 공동체 생활에서 리더십을 가지도록 한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비공식적으로 만나 질문하거나 강사에 대해 조금 더 잘 알 수 있도록 친교 시간을 제공한다.

강사는 지역의 퀴어긍정 사역지, PFLAG 모임, Egale과 같은 성소수자 단체 또는 에이즈 지원 단체에 연락하여 섭외할 수 있다. 어필 유나이티드에 연락하여 추천 강사 또는 연락처를 요청할 수도 있다. 지역 고등학교에 있는 동성애자-이성애자 연대 조직(gay-straight alliance)의 강사를 초청하여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이슈가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실천을 위한 기회 제공

퀴어긍정 사역지로 선포되기 이전이라도 구성원이나 참가자들에게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이슈에 대해 의미 있는 행동을 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의 태도 변화는 마음을 바꾸도록 누군가가 설득할 때보다 스스로 행동할 때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간단한 행동은 다음과 같다. 세계 에이즈 주일(World AIDS

Sunday)에 특별헌금 하기, 지역 에이즈 호스피스나 지원 단체에 물품 기부하기, 지역 교육청의 안전한 학교 정책 지지 청원서(또는 다른 이슈에 대한 청원서)에 서명하기, 게이 청소년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배지(버튼) 구매하기, 성소수자 기금 모금 행사를 위한 쿠키 굽기, 지역 성소수자 합창단 기금 모금 콘서트 열기, 직장에서 젠더소수자와 성소수자를 환영하고 포용한다는 의미의 스티커 붙이기, 퀴어긍정 문구가 적힌 차량용 스티커 구매하기, 우려를 제기하는 편지 작성하기 등.

다른 퀴어긍정 사역지와 교류하기

인근의 퀴어긍정 사역지들에 연락한다. 지역의 퀴어긍정 사역지에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퀴어긍정 사역지가 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이러한 교류는 퀴어긍정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한 구성원들의 두려움을 완화하고, 훗날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협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여러분의 진행 과정에 지원과 활력을 더해줄 것이다.

다른 퀴어긍정 사역지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어펄 유나이티드 뉴스레터를 참조하라. 어펄 유나이티드 뉴스레터는 정기적으로 퀴어긍정 사역지에 이메일로 발송되며, 어펄 유나이티드 웹사이트에도 게시된다.

공동체 시간 가지기

각자 준비해 온 음식으로 함께하는 만찬, 저녁 식사, 음악 축제, 디저트의 밤, 또는 동성애에 긍정적이지만 명시적으로 교육적 목적을 표방하지는 않는 여타 공동체 행사를 개최한다. 토론과 논쟁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를 구축하고 함께함을 축하하는 것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말한 것을 실천하기

퀴어긍정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여러분의 사역지가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사역지인 것처럼 행동하도록 사람들에게 요청한다. 이미 모두를 환영하므로 명시적으로 퀴어긍정 사역지가 될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젠더소수자와 성소수자를 더욱 긍정하고 지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고 알아차림으로써 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사람들을 격려한다.

검토하기

목록을 작성하여 성소수자, 성별 비순응자, 젠더플루이드, 동성 가정의 자녀, 게이·레즈비언·트랜스젠더 자녀의 부모가 충분히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는 장소와 상황을 살핀다(예: 세례 증명서 양식, 웹사이트에 결혼 정책을 명시한 방식, 뉴스레터나 건물 주변의 이미지와 사진).

성소수자의 존재를 인식하기

‘우리’와 ‘그들’로 나누는 언어보다는 성소수자의 존재와 참여를 인정하는 언어를 사용한다. 프로그램이나 신앙공동체에 커밍아웃한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구성원의 성인 자녀, 프로그램 참가자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사촌, 친구 또는 확대 가족, 청소년 구성원의 친구, 길 건너 이웃, 구성원의 동료,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공동체나 사역공동체 가운데 아직 커밍아웃하지 않은 성소수자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예술 접하기

미술관 관람, 예배 스톨 프로젝트(Shower of Stoles Project, <http://welcomingresources.org/sosp.htm>), 게이 연극, 성소수자 합창단 또는 무용단 공연 등 게이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3부 퀴어긍정 사역을 위한 자료

이 자료들은 신앙공동체와 다른 연합교회 사역자들이 성별과 성 다양성 이슈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행동을 취하도록 돕기 위해 제안된 것이다. 여기서는 선주민에 대한 불의(인디언기숙학교의 역사적 유산 포함)와 인종주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에 대한 행동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도 제안한다. 지역사회에서 정의를 추구하고 환대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 다뤄야 할 이슈를 알고 있다면, 캐나다연합교회 총회 사무국에 있는 UCRD(the United Church Resource Distribution) 서점에 전화하여 필요한 주제에 대한 자료를 제안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여기에 나열된 자료가 현재 이용 가능한 자료인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이 목록은 완전한 참고 문헌이 아니라 선별된 목록이다. 절판되었거나 역사적·학술적 관심을 끄는 많은 훌륭한 자료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인쇄물과 동영상으로 제공되는 더 많은 자료는 어펌 유나이티드 웹사이트(<https://affirmunited.ausc.ca/>)를 수시로 방문하여 확인한다.

자료 구하는 방법

캐나다연합교회 자료는 UCRD(www.ucrdstore.ca)를 통해 주문할 수 있다. 아래의 자료 대부분은 독립 서점과 온라인 서점(chapters.indigo.ca 또는 amazon.ca)을 통해서도 주문할 수 있다.

캐나다연합교회 지역협의회와 퀴어긍정 사역지들은 성소수자 관련 도서와 영화 및 여타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공공 도서관에도 이러한 자료가 있으며, 사서들이 기꺼이 도와주는 경우가 많다. PFLAG와 같은 성소수자 단체도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

캐나다연합교회와 유사한 미국 교단인 그리스도연합교회(The United Church of Christ)도 필그림 출판사(The Pilgrim Press)와 그리스도연합교회의 열린 퀴어긍정 연합(The Open and Affirming Coalition)에서 발행하는 성소수자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www.ucc.org/lgbt/resources.html 또는 openandaffirming.org/resources/ 참조).

일반 문서 자료

Baird, Vanessa. *넌센스 없는 성 다양성 안내서 The No-Nonsense Guide to Sexual Diversity*. 2nd edition. Toronto: Between the Lines, 2007.

글로벌 관점에서 성 다양성 문제에 대해 짧고 읽기 쉽게 쓴 책이다. 트랜스젠더, 성적 다양성의 역사, 과학, 종교, 동성애 혐오, 실천 행동 등의 주제를 다룬다.

Coren, Michael. *에피파니: 어느 그리스도교인의 동성 결혼에 대한 마음의 변화 Epiphany: A Christian's Change of Heart and Mind over Same-Sex Marriage*. Toronto: McClelland & Stewart, 2016.

전형적인 보수적 가톨릭 신자가 교회가 직면한 가장 까다로운 논쟁 중 하나인 동성 결혼에 대하여 태도 변화를 보여준다.

Countryman, L. William, and M.R. Ritely. *다름의 은사: 교회의 게이와 레즈비언 그리스도인 Gifted by Otherness: Gay and Lesbian Christians in the Church*. Harrisburg, PA: Morehouse, 2001.

레즈비언과 게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고,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며, 교회에서 자기 자리를 되찾아가는 과정의 경험이 담겨 있다.

Duncan, Geoffrey, ed. *사랑하기 위한 용기: 게이와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공동체를 위한 예전 Courage to Love: Liturgies for the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Community. Cleveland, OH: The Pilgrim Press, 2002.

게이와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남성과 여성이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긍정할 수 있는 예배 자료 모음집이다. 시, 기도문, 이야기, 교독문, 동성 축도, 결혼식, 축하 자료, 성찬식과 세례식 등이 수록되어 있다.

Habib, Samra. 우리는 항상 존재 했습니다 – 무슬림 퀴어 회고록 *We Have Always Been Here – A Queer Muslim Memoir*. Toronto: Penguin Random House, 2019.

파키스탄과 캐나다에서 무슬림이자 퀴어로 성장한 저자의 회고록으로, 저자의 가족사와 섹슈얼리티, 신앙, 문화의 실타래를 엮어낸 작품이다.

Hinnant, Olive Elaine. 하나님이 커밍아웃하다: 퀴어 설교 *God Comes Out: A Queer Homiletic*. Cleveland, OH: The Pilgrim Press, 2007.

성적 차이에 대한 자유로운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실용적인 제안으로, 특히 설교에 유용하다.

Knox, Amanda Jetté. 여기에 사는 사랑 – 트랜스젠더 가족이 잘 사는 이야기 *Love Lives Here – The Story of Thriving in a Transgender Family*. Toronto: Penguin Random House, 2019.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의 트랜스젠더를 가족으로 포용한 감동적인 이야기. 이 이야기는 사랑으로 이끌면 무엇이 가능해지는지 보여준다.

Kundtz, David J., and Bernard S. Schlager. 하나님의 퀴어들과 함께하는 사역: LGBT 목회적 돌봄 *Ministry among God's Queer Folk: LGBT Pastoral Care*. Berkeley, CA: Center for Lesbian and Gay Studies in Religion and Ministry and Pilgrim Press, 2007.

스스로 '퀴어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두 사람이 쓴 이 핸드북은 종교적 돌봄을 하는 사람과 신학생을 위한 책이다. 이들이 신앙공동체와 지역사회 안팎에서 LGBTQ에게 효과적이고 계몽적이며 지지적인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본 기술을 다루고 있다.

Prashaw, Rick, with Adam Prashaw. *날아올라, 아담, 날아올라 Soar, Adam, Soar*. Toronto: Dundurn, 2019.

전직 사제였던 아담의 아버지가 아들의 이야기를 아담 자신의 말과 함께 들려준다. 어린 시절 레즈비언으로 커밍아웃하고 다시 남자로 커밍아웃한 뒤 간질과 투병하며 굴하지 않는 모습까지, 자신을 정의하려는 아담의 노력과 즐거운 정신, 그리고 모든 것을 극복하는 그의 삶에 대한 사랑이 기록되어 있다.

Robertson, Brandon. *진정한 포용: 급진적 포용의 공동체 만들기 True Inclusion: Creating Communities of Radical Embrace*. St. Louis, MO: Chalice Press, 2018.

공공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저자는 교회가 단순한 환영에서 급진적 포용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저자는 성소와 공공 광장에서 급진적 포용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성서의 분명한 명령을 지적하며 "단순하지도 않고 쉬운 것도 없지만 모든 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비전을 제시한다.

Robertson, Brandon. *우리의 증언: 들려지지 않은 LGBT+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 Our Witness: The Unheard Stories of LGBT+ Christians*. Eugene, OR: Wipf and Stock, 2018.

Swanson, Ruby Remenda. *어느 가족의 커밍아웃 - 회고록 A Family Outing - A Memoir*. Toronto: Cormorant Books Inc., 2016.

루비 스완슨의 삶은 열여섯 살 아들이 사무실로 걸어와 문을 닫고 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나 게이예요"라고 말하는 순간 바뀌었다. 처음에는 충격과 두려움, 부정의 반응을 보였지만 루비는 퀴어 커뮤니티를 위한 평등과 포용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옹호자가 되었다. 이 책은 루비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녀는 베이비붐 세대가 자라난 동성애 혐오가 극심했던 시대, 동성애자 권리 운동의

출현, 에이즈 유행이 LGBT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Turney, Kelly, ed. 성소 만들기: 포용적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Shaping Sanctuary: Proclaiming God's Grace in an Inclusive Church*. Chicago: Welcoming Church Movement, 2000.

환영하는 교회 운동(Welcoming Church Movement, 다양한 교파의 개방과 퀴어긍정 사역 같은 프로그램)에서 제작한 기도, 예전, 축복, 음악, 에세이, 설교 등이 담긴 초교파적 자료집이다. 학습 가이드가 포함되어 있다.

VanderWal-Gritter, Wendy. 넉넉한 여유: 교회의 게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응답 *Generous Spaciousness: Responding to the Gay Christians in the Church*. Ada, MI: Brazos Press, 2016.

저자는 교회가 성소수자들과 관계 맺는 방식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어떻게 하면 함께 여정을 헤쳐나가면서 화합과 환대, 겸손과 정의를 키울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넉넉한 여유(generous spaciousness)이다. 이 책은 다양성을 은혜롭게 논의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며, 교회는 섹슈얼리티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환영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교회와 조직에서 넉넉한 여유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한다.

Wearing, Alison. 요정의 딸의 고백 - 게이 아빠와 함께 자라기 *Confessions of a Fairy's Daughter - Growing up with a Gay Dad*. Toronto: Alfred A. Knopf Canada, 2013.

온타리오주 피터보로(Peterborough)를 배경하는 이 이야기는 한 게이 남성의 커밍아웃을 딸의 이야기와 자신의 이야기, 아내의 이야기, 현재 가족의 이야기 등 네 가지 관점으로 풀어낸다.

White, Mel. 성서는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말하(지 않)는가? *What the Bible Says—and Doesn't Say—about Homosexuality*. Abilene, TX: Soulforce, no date.

24쪽 분량의 이 온라인 소책자에서 저자는 성서에 대한 오해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고통과 유혈 사태, 죽음의 흔적을 남겼는지 설명하고 선지자, 예수, 성서 저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동성애적 성향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동성애를 허용하지도 정죄하지도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진리를 추구할 때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www.psa91.com/pdf/whatthebiblesays.pdf

캐나다연합교회 자료

Huntly, Alyson. 사랑과 정의로: 동성 결혼 합법화를 향하여 *Of Love and Justice: Toward the Civil Recognition of Same-Sex Marriage*. Toronto: The United Church of Canada, 2003.

연구와 실천을 위한 이 안내서는 캐나다의 연방 동성 결혼 법안이 제정되기 전에 작성되었으므로 일부 정보는 현재 유효하지 않다. 그러나 이 책자에 포함된 네 가지 워크숍은 여전히 최신 정보이며, 교회나 단체가 신앙과 정의의 관점에서 동성 관계에 대한 시민의 인정을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소책자는 동성 결혼에 대한 교회의 의사 결정 과정을 제공한다. 캐나다연합교회 커먼즈(commons.united-church.ca)에서 찾아볼 수 있다.

The United Church of Canada. 성별 다양성을 기뻐하기: 신앙공동체를 위한 성별 정체성과 트랜스 경험에 관한 자료집 *Celebrating Gender Diversity: A Toolkit on Gender Identity and Trans Experiences for Communities of Faith*. Toronto: The United Church of Canada, 2019.

이 자료는 개인과 신앙공동체가 성별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서로를 환영하고 퀴어를 긍정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트랜스젠더의 은사와 역량을 교회 생활에 접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신앙공동체에서 트랜스젠더와 투스피릿을 축하하기, 급진적 환영과 성별 정체성, 대명사에 대한 사실 등에 관한

발췌본과 문서 전문은 다음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united-church.ca/community-faith/being-community/gender-sexuality-and-orientation#downloads>

The United Church of Canada. 성별, 성, 성적 지향(Gender, Sexuality, and Orientation) 웹사이트: <https://www.united-church.ca/community-faith/being-community/gender-sexuality-and-orientation>

동영상 자료를 비롯해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 링크, 관련 파트너 프로그램과 그룹(SNS 포함), 성별·성·성적 지향에 관한 블로그 링크, 다운로드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아래 자료 포함)가 수록되어 있다.

The United Church of Canada. *Mandate magazine*. A special issue on *The Affirming Journey*. Spring 2018.

캐나다연합교회는 퀴어긍정 사역의 여정 어디에 있는가? 이 자료는 성소수자들을 위한 정의에 초점을 두고, 우리 교회의 편견에 찬 과거를 통탄하며,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하는 미래를 내다본다. 예배부터 워크숍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위한 영적 긍정, 치유, 쉼을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The United Church of Canada. 결혼: 캐나다연합교회의 이해 *Marriage: A United Church of Canada Understanding*. Toronto: The United Church of Canada, 2005.

동성 결혼을 포함한 결혼에 대한 연합교회의 종합적 입장을 담고 있다. 수년에 걸친 교회의 입장 변화와 우리 교회가 결혼에 대해 믿는 바에 관한 현재의 신학적 이해를 강조한다. 캐나다연합교회 커먼즈(commons.united-church.ca)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The United Church of Canada. 완전한 포용을 향하여: 캐나다연합교회 내 성적 지향
Moving toward Full Inclusion: Sexual Orientation in The United Church of Canada.
2nd edition. Toronto: The United Church of Canada, 2014.

캐나다연합교회 에큐메니컬 파트너들을 위해 준비한 이 자료는 캐나다연합교회가 성적 지향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소개한다. 연합교회에 대한 소개와 연합교회의 의사 결정 과정, 성적 지향·멤버십·사역·동성 결혼에 대한 연합교회의 입장, 연합교회가 이러한 입장을 갖게 된 이유, 섹슈얼리티와 성서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켜온 연합교회의 역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야기, 사례 연구와 토론 질문이 수록되어 있다. <https://www.united-church.ca/sites/default/files/resources/full-inclusion.pdf>

The United Church of Canada. 열정과 자유: 커플들을 위한 자료 *Passion and Freedom: A Resource for Couples.* Toronto: United Church Publishing House, 2013.

참가자 워크북이자 아래 자료의 안내서이다. www.ucrdstore.ca

The Church of Canada. 열정과 자유: 목회자와 인도자를 위한 자료 *Passion and Freedom: A Resource for Ministers and Leaders.* Toronto: United Church Publishing House, 2013.

신앙을 기본으로 한 이성과 동성 관계의 헌신적 파트너십에 대한 모든 단계를 다루는 자료이다. 목회 이슈에 대한 개요, 일반적인 기본 패턴에 대한 몇 가지 방향성, 커플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실천하도록 격려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www.ucrdstore.ca

성별 및 성적으로 다양한 청소년

(주의: 모든 자료가 청소년 독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다.)

Bain, J. 그래서 너희 자녀가 게이라고: 캐나다 가족과 친구들을 위한 안내서 *So Your Child Is Gay: A Guide for Canadian Families and Their Friends*. Toronto: HarperCollins, 2000.

게이 자녀를 둔 캐나다 가족을 위해 쓴 책으로, 부모에 대한 응원과 유익한 정보를 담은 안내서이다.

Corneau, Michelle. 독수리의 길 *The Eagle's Path*. Nanaimo, BC: Strong Nations Publishing, 2017.

애나는 독수리의 길을 따르는 법을 배우면서 캐나다 선주민 부족인 모호크(Mohawk)가 된다는 것의 의미와 자신의 정체성, 다른 사람들의 정체성을 탐구한다. 애나는 자신이 속한 모호크족의 선주민 문화가 여러 세대에 걸쳐 일상에서 정직, 지혜, 용기를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쳐온 방법을 배운다. 또한 애나는 가장 친한 친구가 다른 여자 어린이를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투스피릿에 대해 알게 된다. 이로 인해 애나는 궁금한 점이 많아졌는데, 현명하고 사랑스러운 어머니의 도움으로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의 가치를 이해하게 된다.

Francis, Brian. 열매: 한 소년과 그의 젖꼭지에 관한 소설 *Fruit: A Novel about a Boy and His Nipples*. Toronto: ECW Press, 2000.

열세 살 소년이 자신의 성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해학적이면서도 심오하고 통찰력 있게 감동적으로 그려낸 캐나다 소설이다.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여 소설의 재미를 더해준다. CBC에서 선정한 2009년 도서 목록에 올랐다.

Garden, Nancy. 내 마음의 애니 *Annie on My Mind*. 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1982.

뉴욕에 사는 열일곱 살 소녀, 애니와 리자의 사랑 이야기. 수상작인 이 책은 출간 이후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

Goldman, Linda. 커밍아웃, 커밍 인: 주류 사회에서 게이 청소년에 대한 복지와 포용 증진하기 *Coming Out, Coming In: Nurturing the Well-Being and Inclusion of Gay Youth in Mainstream Society*. New York: Routledge, 2008.

이 책은 청소년과 부모 모두의 관점에서 포용하고 보살피는 가족으로 '커밍 인(coming in)' 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저자는 학교 상담교사이자 아동·청소년 상담치료사로 활동해왔다. 그녀는 엄마이자 PFLAG의 회원이기도 하다. 이 책에는 LGBT 청소년을 위한 양육과 안전한 공간 조성을 위해 필요한 도구, 정보, 연습 문제, 일화, 자료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Sanchez, Alex. 갓 박스 *The God Box*. Toronto: Simon and Schuster Children's Publishing, 2009.

람다(Lambda) 문학상 수상 작가인 저자는 종교인이자 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 흥미롭고 생각을 자극하는 탐구에서 실제 뉴스에서 영감을 받은 주제를 다룬다.

Tigert, Lianne McCall, and Timothy J. Brown, eds. 커밍아웃하는 젊은 신자들 *Coming Out Young and Faithful*. Cleveland, OH: The Pilgrim Press, 2001.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인생 이야기와 그들의 믿음, 교회, 영성에 대한 성찰이 담긴 글이다.

어린이

다음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에게 적합한, 다양한 성별 조합으로 이뤄진 가족의 이슈와 경험을 보여주는 그림책 추천 목록이다.

Elwin, Rosamund, and Michele Paulse. 아샤의 엄마들 *Asha's Mums*. Toronto:

Women's Press, 1990.

흑인 캐나다인 소녀 아샤는 현장학습에 필요한 부모 동의서를 가지고 집에 왔다. 선생님은 두 여성이 서명한 동의서를 다시 돌려보낸다. 엄마가 두 명인 것에 대해 교실에서 토론이 이어진다. 어떤 아이들은 자기 부모가 두 명의 엄마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한다. 하지만 아샤는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들은 같이 살고 서로 사랑하니까 우리는 가족이야”라고 말한다.

동성 부모의 양육, 동성애 혐오, 다양한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책은 〈한 아빠, 두 아빠 그리고 벨린다의 꽃다발 *One Dad, Two Dads and Belinda's Bouquet*〉과 함께 서리(Surrey) 교육청에 의해 금서로 지정되었다. 이후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은 이 조치를 무효화하였다.

Herthel, Jessica, and Jazz Jennings. 나는 재즈다 *I am Jazz*. New York: Dial Books for Young Readers, Penguin, 2014.

셀라 맥니콜라스(Shelagh McNicholas)의 그림과 함께 트랜스젠더 소녀가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이다.

Hoffman, Mary, and Ros Asquith. 가족이라는 거대한 책 *The Great Big Book of Families*. New York: Dial Books for Young Readers, 2011.

집과 휴일, 학교와 반려동물, 감정과 가계도 등 가족생활의 모든 측면을 따뜻함과 재치, 감성으로 탐구하며 선입견에 도전하고 토론으로 초대하는 책이다.

Jopling, Heather. 외동이 아닌 아이 *The Not-So-Only Child*. Cobourg, ON: Nickname Press, 2008. A book about diversity of families.

가족의 다양성을 다룬 책이다.

Kelly, Sheila M., and Shelley Rotner. 가족 *Families*. New York: Holiday House, 2015.

현대 가족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어린이용 그림책으로 다양성을 예찬한다. 크거나 작거나, 비슷하게 생겼거나 다르게 생겼거나, 온갖 종류의 가족이 존재한다. 부모가 한 명인 가족도 있고, 두 명인 가족도 있으며, 확대 가족도 많다.

Lukoff, Kyle, and Juanita, Kaylani. 에이든이 형이 되었을 때 *When Aidan Became a Brother*. New York: Lee & Low Books, 2019.

이 책은 트랜스젠더 어린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형이 되는 것을 걱정하는 모든 어린이를 안심시키며, 가족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변화를 축하하도록 안내하는 따뜻한 책이다.

Parr, Todd. 가족 책 *The Family Book*. New York: Little, Brown, 2010.

아주 어린 아이들을 위한 책이다. 대가족과 소가족, 부모가 한 명인 가족, 엄마나 아빠가 둘인 가족, 조용한 가족, 시끄러운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묘사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모두 비슷하고 어떤 면에서는 모두 특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Polacco, Patricia. 우리 엄마들의 집에서 *In Our Mothers' House*. New York: Philomel Books, 2009.

두 명의 엄마와 세 명의 입양아로 구성된 놀랍도록 특별한 가족이 그들 자신의 규칙에 따라 살아가며 아주 특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이야기이다.

Richardson, Justin, and Peter Parnell. 그리고 탱고는 셋을 만든다 *And Tango Makes Thre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2015.

1998년 서로를 발견하고 이후 함께 지내온 센트럴파크 동물원의 두 수컷 펭귄의 실화이다. 함께 동지를 만들었지만 알을 낳지 못한 두 펭귄은 보살핌이 필요한 알을 얻게 되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알을 품어 갓 태어난 새끼 탱고를 돌본다. 탱고와 두 아빠 펭귄은 다른 펭귄 가족들과 함께 펭귄 집에서 함께 끼안고, 수영하고, 놀이한다.

Setterington, Ken, and Alice Priestly. 엄마와 엄마가 결혼해요 *Mom and Mum Are Getting Married*. Toronto: Second Story Press, 2004.

한 어린 소녀가 마침내 두 엄마의 결혼식에서 화동을 하고 싶다는 소원을 이룬다. 결혼식은 서로를 지지하는 친구와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사랑으로 가족이 된 것을 축하하는 잔치이다.

Stewart, Paul, and Jane Porter. 용감한 브라이언 *Brian the Brave*. Herefordshire, Great Britain: Otter-Barry Books, 2019.

서로를 차별하던 양들이 목숨을 위협하는 사건으로 인해 브라이언이라는 용감한 양의 지도력 아래 하나가 되는 이야기이다.

Thorn, Theresa, and Noah Grigni. 내가 나인 게 좋다 *It Feels Good to Be Yourself*. New York: Henry Holt & Co., 2019.

어떤 사람들은 소년이다. 어떤 사람들은 소녀이다. 어떤 사람들은 둘 다이기도 하고, 어느 쪽도 아니거나 그 중간 어딘가에 있기도 하다. 성별 정체성에 대한 이 사랑스럽고 직설적인 탐구는 어린이들이 자신과 타인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어린이 친화적인 언어와 생동감 넘치는 예술이 돋보이는 이 책은 어린이 독자와 부모 모두가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 세심하게 토론할 수 있는 어휘를 제공한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영화

이 영화들은 비디오 대여점이나 공공도서관에서 대여할 수 있다.

빌리 엘리어트 *Billy Elliot*. 감독 Stephen Daldry, 2000. 110분.

생각지 않게 무용을 사랑하게 된 한 재능 있는 소년이 가족의 반응에 갈등하는 이야기. 이 영화는 엄격하게 남녀로만 구분하는 젠더 선입견이 주인공 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플루토에서 아침을 *Breakfast on Pluto*. 감독 Neil Jordan, 2005. 128분.

1970년대 아일랜드의 작은 시골에서 살던 버림받은 소년 패트릭 “키텐” 브레이든이 엄마도 찾을 겸, 트랜스젠더인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골을 떠나 런던으로 가는 이야기.

에브리바디 올라잇 *The Kids Are All Right*. 감독 Lisa Cholodenko, 2010. 106분.

20년을 함께한 줄스(줄리엔 무어)와 닉(아네트 베닝)은 자녀 둘을 인공수정으로 얻었다. 사춘기가 된 자녀들이 생물학적 아버지를 찾겠다고 결심하면서 인생이 복잡해졌다. 재미있지만 동성 커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문라이트 *Moonlight*. 감독 Barry Jenkins. 111분.

한 젊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이 어린 시절, 청소년기, 급성장하는 성인기의 일상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섹슈얼리티에 대해 고민하는 이야기.

평범 *Normal*. 감독 Jane Anderson, 2005. 110분.

어느 날 로이가 성전환 수술을 받겠다고 말하기 전까지 로이와 어마는 서로에게 충실하며 일리노이주 시골에서 한적하고 평범하게 살던 부부였다.

싱글맨 *A Single Man*. 감독 Tom Ford, 2009. 100분.

크리스토퍼 아이셔우드(Christopher Isherwood)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이다. 1964년 캘리포니아를 배경으로 오랜 파트너를 잃고 슬픔에 잠긴 게이 대학교수의 하루를 그린 이야기로, 동성애 혐오가 주인공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트랜스아메리카 *TransAmerica*. 감독 Duncan Tucker, 2005. 103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 수술을 앞둔 브리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 브리는 자신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아이는 현재 뉴욕 거리에서 가출 청소년으로 지내고 있다.

성소수자, 성별 정체성 이슈를 다룬 다큐멘터리

대부분 영상은 UCRD 서점(www.ucrdstore.com)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일부는 아마존과 같은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일부 캐나다국립영화위원회(National Film Board) 작품은 www.onf-nfb.gc.ca 또는 공공도서관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어퍼밍 파이 데이 *Affirming PIE Day*, Affirming Connections and Affirm United/S'affirmer Ensemble, 2019.

파이를 좋아하는 스테반과 팸이 3월 14일을 맞이하여 PIE의 뜻을 소개한다. 퀴어긍정 사역에서 말하는 Public, Intentional, Explicit를 자신들의 이야기로 설명하고 성소수자 공동체를 환영하는 이야기이다.

누구와 모두 *Anyone and Everyone*. IronZeal Films, 2007. 57분.

게이 자녀를 둔 가족들의 내밀한 이야기이다. 다양한 배경과 종교를 가진 가족의 부모들이 자신들의 어려움도 고통에 대해 이야기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녀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며, 그것이 어떻게 자녀들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이끌어내었는지 이야기한다. 장면 선택(22개 장면)을 통해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음 주소에서 예고편을 보거나 영화 사본을 받을 수 있다.

www.anyoneandeveryone.com

사과와 오렌지 *Apples and Oranges*. National Film Board of Canada, 2003. 17분.

이 영상은 동성애 혐오와 성별 관련 호칭, 편협성, 고정관념, 괴롭힘의 해로운 영향에 대한 아이들의 인식을 높인다. 초등학생과 성평등 교육자 간의 활발한 수업 중 토론 과정에서 아이들의 그림이 두 편의 짧은 애니메이션에 마법처럼 녹아든다. 이 영상은 아이들에게 자신과 다른 사람과 가족에 대한 반응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8~12세용. <http://onf-nfb.gc.ca/en/our-collection/?idfilm=51090>

성경에 써 있네 *For the Bible Tells Me So*. 감독 Daniel Karslake, 2007. 98분.

수상 경력이 있는 이 다큐멘터리는 그리스도교 우파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성서를 어떻게 휘두르는지 보여주고, 동성애에 대한 종교적 편견이 거의 전적으로 성서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근거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다섯 그리스도교 가족의 경험을 통해 신앙인들이 동성애자 자녀를 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알아본다. 이 영화는 심오하고 도전적이고 깊은 감동을 주며 행동에 영감을 준다. 장면 선택을 통해 12개 챕터와 특별 기능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주의: 이 영화를 공개 상영할 때는 교육용 라이선스(학습 가이드와 옹호 교육 커리큘럼 사용)가 필요하다. 입장료는 받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www.forthebibletellsmeso.org 참조. 구매는 www.amazon.ca 또는 기타 주요 매점 참조.

달리 말하면 *In Other Words*. National Film Board of Canada, 2000. 27분.

이 영상은 청소년에게 직접 말을 건네며, 학교 안팎에서 들리는 동성애 혐오 언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교사, 상담사, 지역사회 청소년 지도자에게 단어와 그 유래, 청소년이 동성애 혐오에 대해 느끼는 감정, 그로 인한 상처와 분노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유용한 도구를 제공한다. 13세 이상 이용 가능.
https://www.nfb.ca/film/in_other_words/에서 구매.

원 오브 them *One of Them*. National Film Board of Canada, 2001. 25분.

한 그룹의 청소년들이 고등학교에서 인권의 날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일부는 인종주의, 성차별주의와 마찬가지로 동성애 혐오도 편견과 억압의 한 형태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적 행동이 아닌 동성애 혐오와 차별에 초점을 맞춘 이 드라마는 시청자가 자신의 반응을 살펴보고 모든 학생을 위한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을 장려한다. 13세 이상 시청 가능.
https://www.nfb.ca/film/one_of_them/에서 구매.

아웃: 레즈비언과 게이 청소년 이야기 *Out: Stories of Lesbian and Gay Youth*. National Film Board of Canada, 1993. 78분.

이 영상은 캐나다의 게이와 레즈비언 청소년의 투쟁과 승리를 보여준다. 다양한 문화적·인종적 배경을 가진 게이와 레즈비언 청소년들의 솔직한 인터뷰를 통해 차별 이슈와 인종 차별 및 성차별에 맞서는 복합적인 문제를 민감하게 다룬다. 이 영상은 각각 약 20분 분량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인터뷰에 참여한 청소년과 그들 가족 간의 관계를 조명한다. 2부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레즈비언이나 게이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더 자세하게 다룬다. 현재 캐나다국립영화위원회에서 구매할 수는 없지만 일부 도서관에서 대여할 수 있다.

막대기와 돌 *Sticks and Stones*. National Film Board of Canada, 2001. 17분.

아이들은 은연중에 사회가 성 역할, 동성 부모, 다른 모양의 가족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배운다. 이 영상에 등장하는 어린이들은 가족이 전통적인 성 역할을 따르지 않을 때 놀림 받는 기분이 어떤지 설명한다. 또한 괴롭히는 아이들이 왜 욕하기를 좋아하는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해 이야기한다. 모든 연령대 시청 가능. https://www.nfb.ca/film/sticks_and_stones/

이게 가족이지! *That's a Family!* GroundSpark Video, 2000. 35분.

다양한 가족 구성의 어린이들이 자신의 가족 활동을 설명하고 자신의 상황과 관련된 단어의 의미를 설명한다(예: 보호자, 이혼, 레즈비언, 입양). 가족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사람들의 말에 대한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는 사람들”이라는 데 모두 동의한다. 토론·교육 안내를 제공한다. 그라운드스파크(Groundspark)에는 <이것이 기본이다 *It's Elementary*>를 비롯하여 다양성 문제를 다루는 다른 훌륭한 영상도 있다. 영상은 그라운드스파크에서 스트리밍하거나 구매할 수 있다.

<https://groundspark.org/our-films-and-campaigns/thatfamily>

변형: 성서 속 넘어서는 젠더 *Transfigurations: Transgressing Gender in the Bible*.

Peterson Toscano, 2017. 60분.

토스카노(Peterson Toscano)는 성서학계를 뒤흔들고 장르를 넘나드는 획기적인 젠더 혼합 성서 해석으로 높은 찬사를 받았다. 토스카노의 1인극은 성서 속 인물의 성별 이야기를 발굴하여 잘 알려진(혹은 덜 알려진) 성서 이야기를 심화시키고, 다양한 성별을 가진 성서 속 인물들을 선보인다.

투스피릿 관련 주제

영화

Deb-we-win Ge-ken-am-aan,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자리 *Our Place in the Circle*.

National Film Board, 2008. 22분.

론 올슨(Lorne Olson)의 단편 다큐멘터리에는 춤추고, 웃고, 미소 짓는 투스피릿들에 대한 비전이 담겨 있다. 그는 이 비전을 통해 과거의 힘을 재발견하여 오늘날의 도전에 더 잘 맞설 수 있도록 자극을 준다. 이 유쾌하고 활기찬 영화는 그의 감동적인 여정을 보여준다.

투스피릿 *Two Spirits*. Riding the Tiger Productions, Say Yes Quickly Productions, and Just Media. *Two Spirits*, 2011. 90분.

이 영화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비극적인 이야기와 세상이 단순히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지 않았을 때를 드러내는 시선을 교차시킨다. 여러 북미 선주민 문화에서는 통합된 성별을 가진 사람들을 기리는 장소가 있었다.

서적

Chacaby, Ma-Nee. 어느 투스피릿의 여정: 오지브와-크리 레즈비언 장로의 자서전 *A Two-Spirit Journey: The Autobiography of a Lesbian Ojibwa-Cree Elder*. Edmonton: University of Alberta Press, 2016.

이 책은 오지브와-크리(Ojibwa-Cree)족 레즈비언인 마니 차카비(Ma-Nee Chacaby)의 특별한 이야기이다. 가난과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던 오지브와 공동체의 삶과 학대에 대한 끔찍한 기억을 바탕으로, 차카비의 이야기는 식민주의가 남긴 사회·경제·건강상의 문제들을 견뎌내고 궁극적으로 극복한 이야기이다.

트랜스 관련 주제

영화

맬컴이라고 불러주세요 *Call Me Malcolm*. The United Church of Christ and Filmworks, 2004. 90분.

트랜스젠더 신학생의 신앙, 사랑, 성별 정체성에 대한 고뇌를 다룬 장편 다큐멘터리이다. 맬컴 자신의 이야기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트랜스젠더의 실제 삶을 엿볼 수 있다. 여섯 세션으로 구성된 학습 가이드가 포함되어 있다. 자세한 정보와 다운로드 가능한 학습 가이드는 다음 주소를 참조하라. www.ucc.org/lgbt/callmemalcolm.html

서적

Mollenkott, Virginia. *옴니젠더: 트랜스-종교적 접근 Omnigender: A Trans-religious Approach*. Cleveland, OH: The Pilgrim Press, 2007.

저자는 트랜스젠더 정체성과 성전환에 대한 탐구를 통해 두 가지 성만을 고집하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녀는 이분법적 성별 구조가 개인과 사회에 해롭고, 두 가지 성별 범주 중 하나에 속하지 않거나 속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대한 편견과 혐오를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저자의 옴니젠더 패러다임은 무지개 같은 성별 다양성을 존중하고자 한다.

Tanis, Justin. *트랜스젠더가 된: 신학, 사역, 신앙공동체 Trans-Gendered: Theology, Ministry, and Communities of Faith*. Cleveland, OH: The Pilgrim Press, 2003.

안수받은 목사이자 학자인 저자는 자신의 여정과 다른 사람들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교회와 사회에 다양한 성별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준다. 탄탄한 성서적 배경을 제공한다.

웹사이트

아래의 사이트들을 탐색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이트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금방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서로 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것에 동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항상 그렇듯이 검색할 때 트랜스젠더 친화적이라 주장하는 사이트가 많다는 점에 유의한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트랜스섹슈얼(transsexual)'이라는 단어를 이용해 외설 사이트로 유도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이트 중 일부는 사용자의 연락처 정보를 수집하여 사용자의 컴퓨터를 전송 네트워크의 일부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실수로 이러한 사이트에 접속했다면 절대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즉시 종료해야 한다. 다음 사이트의 모든 링크는 외설 사이트의 위험을 잘 알고 있는 사이트 관리자가 엄격하게 검증하고 확인한 것이다.

All Mixed Up: www.genderpsychology.org

Andrea James: www.tsroadmap.com

웹에서 가장 광범위한 트랜스젠더 지도(map) 중 하나이다.

Anne Vitale: www.avitale.com

The AntiJen Pages: www.antijen.org

청소년, 특히 트랜스 어린이를 위한 웹사이트이다.

Dr. Anne Lawrence: www.annelawrence.com

Lynn Conway: <http://ai.eecs.umich.edu/people/conway/conway.html>

'성공한 트랜스 남성'과 '트랜스 여성의 성공' 페이지를 확인하라.

Press for Change: www.pfc.org.uk

가장 오래되고 유익한 사이트 중 하나이다.

Trans-Health: www.trans-health.com

Transsexual: <http://transsexual.org/index.htm>

관련 기관 링크

Dignity Canada/Dignité: www.dignitycanada.org

가톨릭 기관으로 가톨릭교회의 젠더와 섹슈얼리티 입장에 도전한다.

Egale Canada: www.egale.ca

캐나다 전역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와 그 가족을 위한 평등과 정의를 증진하는 국가 기관이다. 이 웹사이트는 유용한 자료와 실천 행동 아이디어의 훌륭한 출처이다. Egale의 안전한 학교 캠페인은 캐나다 학교들에서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형평성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Lutherans Concerned North America: www.reconcilingworks.org

루터교 성소수자 관련 단체

PFLAG Canada: www.pflagcanada.ca

자신과 가족 구성원이 이성애자가 아닌 자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도우려는 부모들이 설립한 전국적 자선 단체이다. PFLAG는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부모, 가족, 친구, 동료들을 지원하고 교육하고 자료를 제공하며 더 큰 사회적 관용과 정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이 웹사이트에는 무지개 가족, 자녀 양육, 트랜스젠더와 간성인, 게이 청소년, 종교, 투스피릿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폭넓은 도서와 자료 목록을 비롯하여 트랜스젠더와 성적 지향 문제에 대한 자료와 정보가 있다. 일인칭 시점의 이야기와 사실에 입각한 정보, 캐나다 전역의 연락 가능한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포함한 PFLAG 지부 목록(강사를 찾기에 좋은

출처)도 있다.

Queering Christian Voices: An Ecumenical Coalition in Canada:

www.queeringchristianvoices.ca

이 연합 단체는 모든 성별과 성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정의롭고 공평하게 대우받는 세상을 꿈꾸며, 그리스도교적 맥락과 공적 영역에서 모든 성별과 성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옹호하는 그리스도교의 목소리를 확대하고자 한다. 어퍼 유나이티드와 제너러스 스페이스 미니스트리(Generous Space Ministries)의 공동 노력으로 현재 이 연합에는 20개 이상의 그리스도교 교단 출신의 개인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옹호 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다.

The United Church of Canada LGBTIQ2S Solidarity Fund. Staff contacts: Sarah Charters at fdn@united-church.ca and Jim Hodgson at jhodgson@united-church.ca.

캐나다연합교회는 전 세계 성소수자의 권리와 포용을 위해 선교와 봉사 파트너들의 사역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법을 시작한다. 이 캐나다연합교회 재단 기금은 성소수자의 인권 존중을 증진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며, 사회와 교회, 에큐메니컬과 종교 간 공간에서 포용을 촉진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The United Church of Christ Coalition for LGBT Concerns: openandaffirming.org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교회 신앙공동체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확장하기 위한 미국의 그리스도연합교회(The United Church of Christ)의 퀴어긍정 사역이다. 이 연합에는 전국 담당 직원이 있으며 LGBT 이슈에 대한 연구, 교회 생활, 예배, 신앙과 실천 행동에 대한 훌륭한 자료를 많이 제작한다. 이 웹사이트에는 신앙공동체, LGBT, 그리고 그들의 친구와 가족, 동맹을 위한 유용한 자료가 많다.

선주민과 인디언기숙학교에 관한 캐나다연합교회 자료

기억된 어린이들(The Children Remembered): <http://thechildrenremembered.ca>

기숙학교에 대한 캐나다연합교회 자문위원회에서 시작한 웹사이트이다.

여기에서는 기숙학교 생존자와 선주민 커뮤니티, 기타 관심 있는 사람들이 토론토의 연합교회 기록보관소에 있는 컬렉션에 더욱 쉽게 접근하여 사진들을 볼 수 있다.

캐나다연합교회(The United Church of Canada):

www.united-church.ca/aboriginal/schools

지난 20여 년 동안 캐나다연합교회는 기숙학교가 남긴 악영향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관심을 쏟고자 기도하고 합심하며 노력을 기울여왔다. 연합교회 웹사이트에는 이 유산에 관하여 개인과 신앙공동체, 기타 교회 사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다. 그 외 식민주의를 정당화하는 ‘발견의 교리(The Doctrine of Discovery)’에 대한 자료나 UN 선주민 권리 선언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 다음 웹페이지를 참조하라. <https://www.united-church.ca/social-action/justice-initiatives/reconciliation-an-indigenous-justice>

인종주의와 문화적 정체성에 관한 캐나다연합교회 자료

캐나다연합교회의 반-인종주의 정책(2000)은 인종주의는 죄이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에 어긋난다고 선언한다. 정책선언문은 캐나다연합교회 커먼즈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연합교회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반-인종주의 자료를 제작하였다.

Ending Racial Harassment: Creating Healthy Communities of faith. Toronto: The United Church of Canada, 2008.

이 소책자는 교회 구성원, 목회자, 교회 위원회가 인종 차별적 괴롭힘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중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을 제공한다. 워크숍 개요도 포함되어 있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그룹 개인적 조치, 교회 또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취할 조치, 면밀한 검토 위원회 또는 그룹 회의를 포함한 실행 계획을 개발하도록 권장된다. 다음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www.united-church.ca/sites/default/files/resources/handbook_racial-harassment.pdf

That All May Be One: A Resource for Educating toward Racial Justice. Toronto: The United Church of Canada, 2004.

지금은 절판된 이 소책자에서 발췌한 내용을 다음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www.united-church.ca/sites/default/files/resources/that-all-may-be-one-excerpts.pdf. 연합교회의 다른 자료와 정보는 www.united-church.ca/racial-justice를 참조하라.

연합교회가 소속된 캐나다 에큐메니컬 반-인종주의 네트워크(The Canadian Ecumenical Anti-Racism Network, CEARN)는 국제 인종 차별 철폐의 날인 3월 21일을 전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종 정의 관련 자료를 제작하였다. 다음 주소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www.councilofchurches.ca/social-justice/undoing-racism/anti-racism-network/